

정책연구

2024-08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Ecotourism in Jeonbuk State

천정윤 김보국 배진아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이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천정운

고려대학교 이학박사(환경계획 및 조경학)
경기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초빙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보국

전북대학교 공학박사(환경공학)
전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배진아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석사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도시재생팀장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Ecotourism
in Jeonbuk State

천정윤 김보국 배진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천정운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공동연구 김보국 | 수석연구위원 | 제4장(2절)
배진아 | 전문연구원 | 제2장(3절), 제3장(1,3절), 제4장(2절)

자문위원 최영기 |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상욱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허문경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민동규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전문위원
조영호 | 남해문화관광재단 본부장
김상수 | 공간정보연구소 소장

연구협력관 전경식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前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성석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생태자원팀장
강신범 |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주무관
백수연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주무관

연구관리 코드 : 24JU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성과와 한계

■ 성과

-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12개소)'와 '전라북도 천리길(44코스, 405km)'가 조성되었고 기초 인프라(방문자센터, 생태체험관, 탐방로, 주차장 등)가 확보되었음
-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가(에코메니저, 해설사)를 양성하고 통합브랜드(초록원정대) 개발과 홈페이지, 가이드북, 팸플렛 등 홍보수단을 확보함
- 생태관광 교육, 평가, 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전북특별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이하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생태관광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시군 주민공동체가 형성됨
- 국가생태관광지 3곳 지정, 국가지질공원 3곳 인증, 고창 운곡 랍사르 습지의 최우수 관광마을 지정 1곳 등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향상되었음

■ 한계

- 시·군의 정책 추진의지와 여건, 지역주민 참여도에 따라 시·군간 격차가 발생했으며, 10년간 동일 대상지에 동일 유형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는 부족함
- 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여 인적자원 증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된 방문객으로 신규 수요층 확보와 경제적 효과 창출에 한계 발생
- 생태관광분야의 독립적 사업 추진으로 지질공원, 대표관광지 등 타 분야(관광, 산림, 환경 등)와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 발생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개념) 지역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구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
- (핵심키워드) ① 연계와 통합, 권역화 ②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③ 생물문화다양성 증진, ④ 지속가능, 탄소중립 생태관광
- (범위 확장)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 활성화 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범위 확대
- (비전, 목표, 추진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과제는 아래 그림과 같음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정책 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정책 추진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개선 필요

요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5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5

 가.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다. 연구 기대효과 7

 라.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8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여건 분석

1. 전북지역 생태관광 자원분석 11

 가. 자원분석 개요 11

 나. 자원별 분석결과 14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35

2. 생태관광 수요 변화 40

 가. 관광 트렌드 변화 40

 나. 대응 사례 45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47
가. 해외 정책동향	47
나. 국내 정책동향	51
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생태관광	77

제3장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평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15~'24) 평가	81
가. 생태관광 사업 개요	81
나. 생태관광 사업 추진경과 및 평가방법	88
다. 생태관광 사업 평가(2015~2024)	91
2.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운영	107
가. 포럼 개요	107
나. 포럼 개최결과	108
3.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110
가. 설문 개요	110
나. 설문 결과	111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119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및 추진과제 도출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 비전과 전략	125
가. 종합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	125
나.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 개념 정립	129
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133

2. 추진 과제	136
추진과제 1. 시·군별 생태관광 ⁺ 지역 조성	136
추진과제 2.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운영	142
추진과제 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144
추진과제 4.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145
추진과제 5. 마을 비즈니스 사업 개발	146
추진과제 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148
추진과제 7.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150
추진과제 8.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152
추진과제 9.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155
추진과제 10.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 운영	157
3. 추진체계 및 투입예산	158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163
2. 정책 제언	166

참고문헌	167
------------	-----

영문요약 (Summary)	169
----------------------	-----

부록	173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북자치도 주요 생태관광자원	12
[표 2-2] 생태·환경자산 자원분석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목록	12
[표 2-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현황	14
[표 2-4] 전북자치도 전국자연환경조사(4차) 현황	15
[표 2-5]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천㎡)	18
[표 2-6]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계속)	19
[표 2-7] 전북자치도 하천 현황	21
[표 2-8] 전북자치도 명승 현황	22
[표 2-9] 전북자치도 전통사찰 현황	24
[표 2-10] 전북자치도 문화유적지 현황	25
[표 2-11] 전북자치도 옛길 현황	26
[표 2-12] 전북자치도 탐방로 현황	28
[표 2-13] 전북자치도 임도 현황	30
[표 2-14]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현황	31
[표 2-15] 전북자치도 도로보급률 현황(전국, 전북)	32
[표 2-16] 전북자치도 지방도 현황	34
[표 2-17] UNWTO가 제시한 생태관광(자연 기반 관광)의 특성	48
[표 2-18]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개요	52
[표 2-19]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개요	53
[표 2-20]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주요 자원	55
[표 2-21] 생태관광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및 세부사업	56
[표 2-2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사업 선정 내역	59
[표 2-23] 관광두레사업 단계별 목표 및 사업내용	62
[표 2-24] 농림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비교	67
[표 2-25]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추이	70
[표 2-26] 환경부(자연보전국) 사업별 국가예산 사용 현황	72
[표 2-27]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금액)	73
[표 2-28]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	74
[표 2-29] 전북자치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액('20~'24)	76

[표 3-1]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구상	82
[표 3-2] 천리길 조성사업 예산 투입 내역	85
[표 3-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및 '천리길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89
[표 3-4]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자체 평가 항목	90
[표 3-5]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투입 및 사용 내역	92
[표 3-6] 생태해설 프로그램 현황	96
[표 3-7]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 활동 현황	97
[표 3-8] 생태관광지 경영 및 수익모델 창출 현황	100
[표 3-9] 천리길 해설사 활동 현황	102
[표 3-10] 천리길 해설사 활동 실적	103
[표 3-11] 천리길 완주자 현황	103
[표 3-1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추진 일정 및 내용 ...	107
[표 3-13] 시군 생태관광지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항목	111
[표 3-14] 시군 생태관광지 담당자 의견수렴 설문지 응답률	111
[표 4-1] 에코캠핑 삼천리길 거점마을의 역할과 기능	143
[표 4-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비 지급 단가 및 기준	153
[표 4-3] 기능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158
[표 4-4]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투입예산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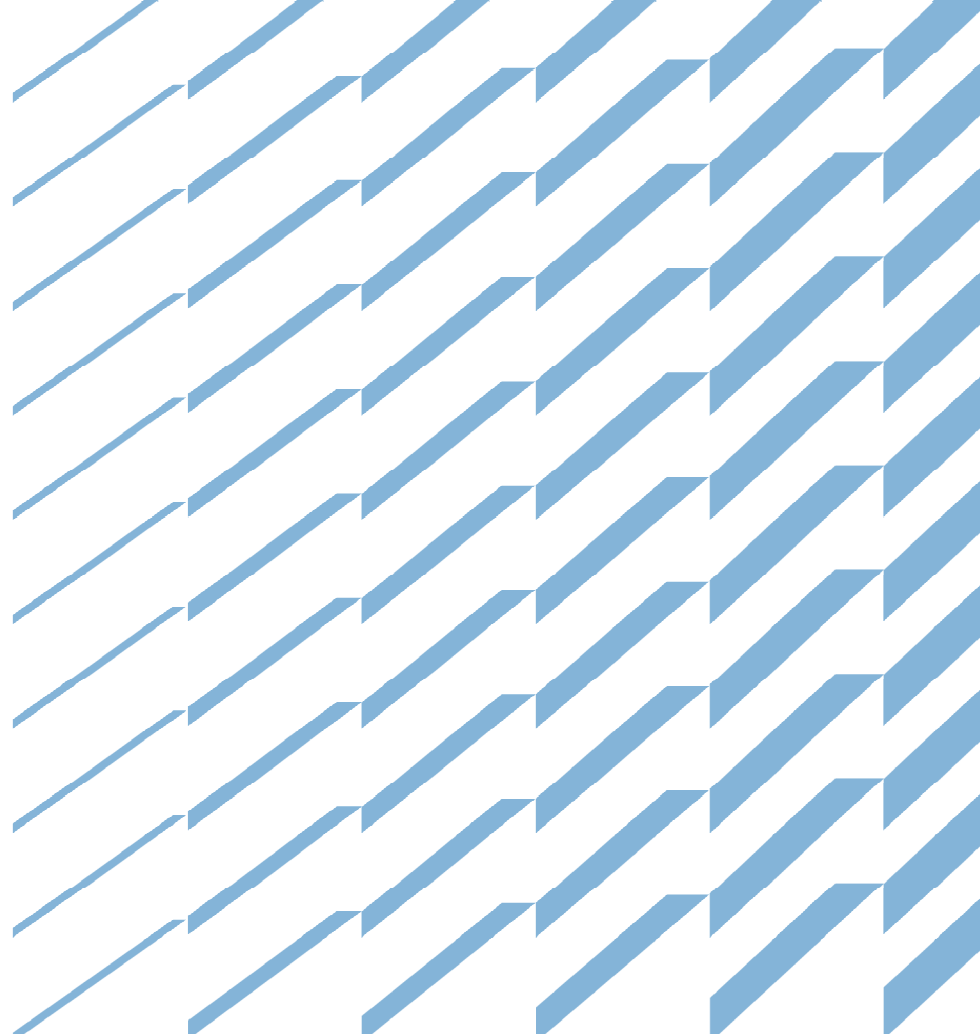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전북자치도 시·군별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지별 깃대종 선정 현황	4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8
[그림 2-1] 전국 자연환경조사 항목별 분포 현황	16
[그림 2-2]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도	19
[그림 2-3] 전북자치도 산림축 현황도	20
[그림 2-4] 전북자치도 하천축 현황도	21
[그림 2-5] 전북자치도 명승 분포도	23
[그림 2-6] 전북자치도 전통사찰 분포도	24
[그림 2-7] 전북자치도 문화유적지 분포도	26
[그림 2-8] 전북자치도 옛길 현황도	27
[그림 2-9] 전북자치도 탐방로 현황도	29
[그림 2-10] 전북자치도 임도 현황도	30
[그림 2-11]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위치도	31
[그림 2-12] 전북자치도 주요 도로망도	32
[그림 2-13] 전북자치도 주요 철도망도	33
[그림 2-14] 전북자치도 지방도 현황도	34
[그림 2-15] 커널밀도추정 기법을 활용한 열지도(heat map) 작성 방법 예시	35
[그림 2-16] 전북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분류군별 핫스팟 분석 결과	37
[그림 2-17] 전북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종합 핫스팟 분석 결과	38
[그림 2-18] 기존 생태관광지와 생태관광 자원 종합분석 결과	39
[그림 2-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3~2025)	40
[그림 2-20] 개인 여행 유튜버 현황	41
[그림 2-21] 개인 여행 취향에 맞춰 제작된 지도 및 출판물	43
[그림 2-22] 베이붐 세대 인구 분포, 외국인 방문객 비율 및 BTS 촬영지(아원고택)	44
[그림 2-23]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상호관련성 예시	45
[그림 2-24] RURITAGE의 6가지 요소	46
[그림 2-25] TNFD(자연자본관련 공시) 사례	50

[그림 2-26] 국가생태탐방로 구성요소(개념)	51
[그림 2-27] 2024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 전경 ..	53
[그림 2-28]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의 비전, 전략, 목표	54
[그림 2-29] 생태관광 법제적 기반 마련(상) 및 일본 생태관광추진법 조문 내용(하) ..	57
[그림 2-30] 생태녹색관광지도	60
[그림 2-31] 관광두레 추진방향	61
[그림 2-32] 코리아둘레길 개념 및 노선	63
[그림 2-33]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64
[그림 2-34]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69
[그림 2-35]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추이('15 ~ '24)	71
[그림 2-36] 환경부(자연보전국) 사업별 국가예산 사용 현황	72
[그림 2-37]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	75
[그림 2-38] 전북자치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액('20~'24)	76
[그림 2-39]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77
[그림 3-1]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업무 분장	86
[그림 3-2]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87
[그림 3-3] 생태관광지별 예산 및 집행액	95
[그림 3-4] 12개 생태관광지 '16~'23년 방문객 수 및 소득 현황	99
[그림 3-5] 생태관광지 평가등급 평균('16~'23)	101
[그림 3-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및 천리길 조성사업의 주요성과와 한계 ..	106
[그림 3-7]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개최 사진	109
[그림 3-8]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평가	112
[그림 3-9]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예산 및 평가	113
[그림 3-10]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113
[그림 3-11]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결과 : 천리길 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	114
[그림 3-12]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천리길 조성사업 예산 및 평가 ..	115
[그림 3-13]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천리길 조성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115
[그림 3-14]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중간지원조직의 평가	116
[그림 3-15]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방향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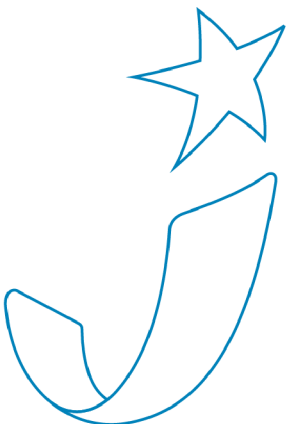
[그림 4-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128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지향점	129
[그림 4-3]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핵심 키워드	131
[그림 4-4]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범위	132
[그림 4-5]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134
[그림 4-6]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추진과제	135
[그림 4-7]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유형	136
[그림 4-8] 에코캠핑 삼천리길 노선 및 선도거점마을	143
[그림 4-9] 일본 Ishikawa-Kanazawa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 사례: 음식, 물환경, 공예	145
[그림 4-10]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사례	146
[그림 4-11] 장거리 걷기길의 교통서비스 제공 사례	147
[그림 4-12] 동국대학교 생태교육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사례	151
[그림 4-13]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정책 개요	153
[그림 4-14]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 개편 방안	156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전북자치도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도내 고유의 생태자산과 마을을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옴
- 국가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2014)와 정읍 월영습지(2018)를 포함, 2023년말 현재 12개 시·군에서 생태관광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24 (10년간) / 12개 시·군 (전주, 부안 제외)
- 총사업비 : 1,022억원 (균특 511, 도 255.5, 사군 255.5)
- 주요내용 : 생태관찰·안내·전시·교육시설, 생태마을 조성 등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방문자센터 등 생태탐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생태밥상 운영, 생태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육성과 지역사회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고창의 운곡람사르습지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세계 100대 지속가능한 관광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함



[그림 1-1] 전북자치도 시·군별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광지별 깃대종 선정 현황
출처: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https://m.jb-ecotour.org/page/page6>)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2015~2024)」 완료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정책 추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지방소멸 대응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사업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도출 필요
 - 걷기길과 자전거길로 구성되는 삼천리길 노선과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의 생태·환경자산을 새로운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
 - 글로벌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14년 1월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생태관광지를 발굴·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과제 제시 필요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특례 발굴안 제시

-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생태관광 사업('25~'34)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도 개선사항 등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목적

-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고
- 향후 10년간 생태관광 조성사업('25~'34)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제도 개선사항 등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가.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 년도 : 2024년
 - 목표 년도 : 2034년(10년 후)

2) 연구내용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여건분석
 - 생태·환경자산, 역사·문화자산 등 생태관광 자원분석
 - 생태관광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추진현황 및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운영 현황분석
 - 국내외 생태관광 선진 추진사례 분석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및 추진과제 도출
 -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도출
 - 전북특자도 특례 반영안 및 전북자치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 법제도 개선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
 - 생태관광 및 연관 분야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계획, 관련 통계자료,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선행연구 및 관련 평가자료를 활용, 1단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분석
 - 국내외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문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자료 분석

2) 조사 및 위탁계획

- 생태관광자원 지도 구축(GIS)
 - 생태·환경자산(자연생태), 역사·문화자산(인문사회), 마을자원 등 생태관광 자원 현황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자원별, 시군별 지도로 구축(외부 원고자문 실시)
 - 작성된 부분은 전북지역 생태관광 자원조사 부분에 반영할 예정

3)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운영

- 전북 지역의 생태관광 추진방향 도출과 시·군별 생태관광사업 육성 분야 자문을 위한 국가·지역의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전북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로 구성된 포럼을 약 3회 이내로 개최하여 의견 수렴
- 구성 :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전북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전문가 등 약 20명 내외
- 운영 방법
 - 킥오프 회의: 전문가 포럼 구성 목적과 자문 내용 소개, 기존 생태관광사업 방향 전문가(1~2인) 발표
 - 2차 회의: 생태관광 자원분석, 정책동향, 우수 추진사례 분석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 최종 회의: 전북자치도 통합 생태관광 개념,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과제 적정성 검토

■ 시·군 생태관광분야 담당자 의견 수렴

- 시·군(환경과, 산림과 등) 생태관광 관련분야 담당자와 생태관광 에코메니저 및 천리길 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관광 분야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
- 설문지를 통해 검토의견 수렴

다. 연구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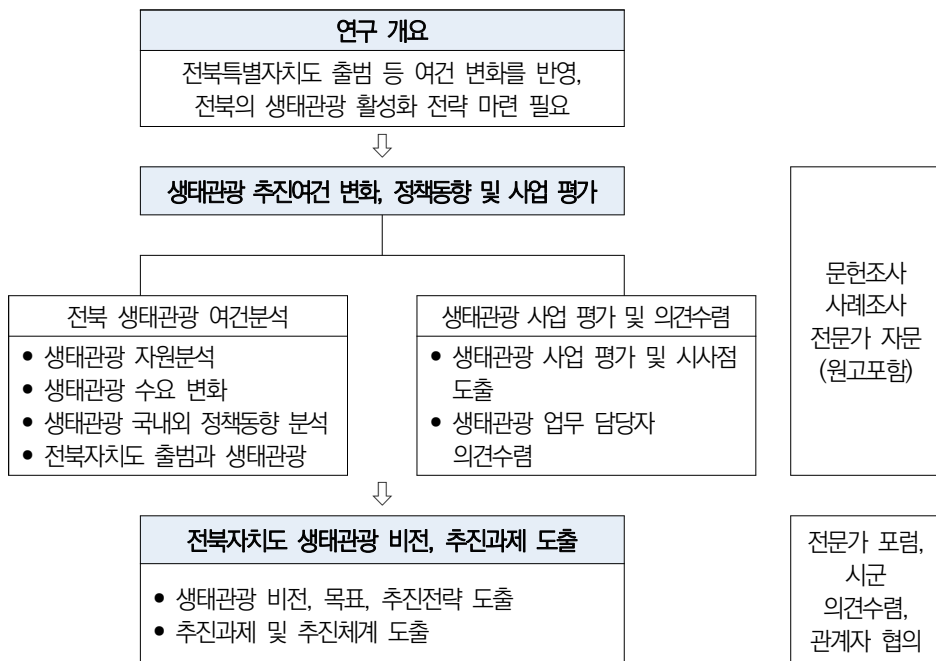
-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단편적 시설조성 중심의 점(point)적 생태관광지 조성에서 탈피, 시·군 생태·환경자산을 선(line)으로 연결하여 생태와 역사, 문화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공간(area)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생태적·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 창출 기여

라.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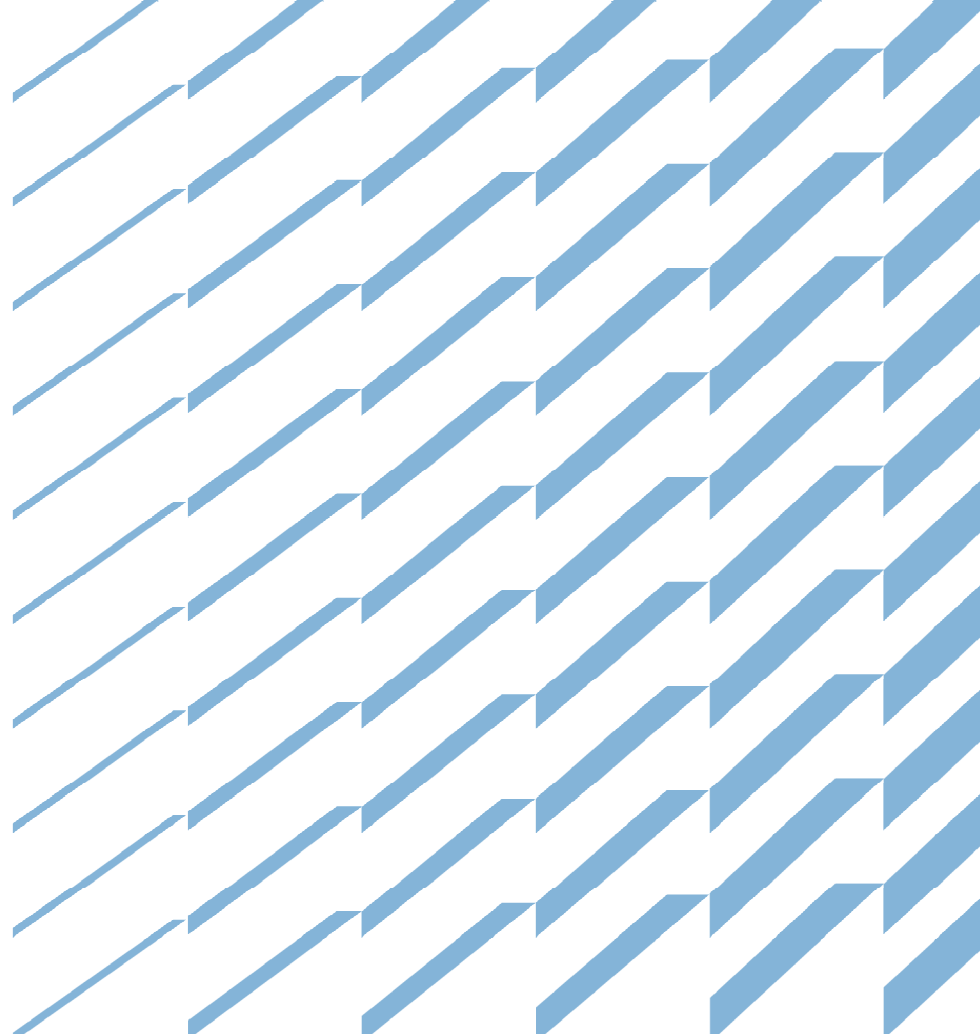
1) 연구진

- 책임연구 : 천정운 연구위원
- 공동연구 : 김보국 수석연구위원, 배진아 전문연구원

2)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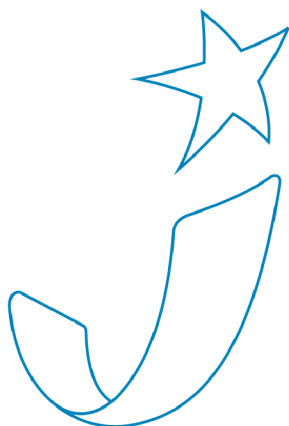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여건 분석

1. 전북지역 생태관광 자원분석
2. 생태관광 수요 변화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생태관광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여건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자원분석

가. 자원분석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이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김보국 외(2013)는 전북 전역에 대해 생태관광의 기반이 되는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국가에서 구축한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원 DB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함
 - 천정윤 외(2022)는 전북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한 생태·환경자산을 조사하여 지도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함
- 특별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채로운 자산에 대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자원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에 산재한 생태지역(지형경관, 비오톱, 생물종 서식지 등), 생물자원, 문화유산 등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자산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방법

- 생태관광 자원분석 방법 및 절차는 1단계: 선행연구 분석 → 2단계: 공간자료 분석 → 3단계: 권역별 지도화의 과정으로 수행함
- (1단계: 선행연구 분석) 전북자치도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를 조사함

- 김보국 외(2013)는 정부부처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제공한 생태관광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생태자원 약 234개,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업 약 126개소, 관광자원 약 271개를 도출하였고, 자원들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22개의 생태관광자원을 제시한 바 있음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북자치도 주요 생태관광자원

자원 유형	자원명
생태자원 (9)	고창해안사구지역, 문수사, 줄포만생태공원, 천호동굴, 대아수목원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일원, 신천습지, 뜬봉샘 일원,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월영습지
경관자원 (11)	군산저수지, 만경능제와 하소백련지 일원, 완주 화암사, 부안 마실길,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장안산 역사발, 금강옛길, 구담마을, 장군목 일원,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죽도
생태+경관자원 (2)	동진강갈대습지, 전주천상류유역

자료: 김보국 외(2013) 일부 수정 인용

- (2단계: 공간정보 분석)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부처별, 지역별로 공개된 각종 공간정보(GIS)를 적극 활용하여 생태관광과 관련 자원을 분석함
- 공간정보는 생태·환경자산, 역사·문화자산, 거점자산, 기반자산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간정보 이외의 자료(예: CSV, XLS 등)들은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함

[표 2-2] 생태·환경자산 자원분석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목록

항목		자료명	제작자	제작시기	자료유형
기존 자산	전북생태 관광지	전북생태관광지(12곳)	전북특별자치도	2022	SHP(점)
생태·환경 자산	생물종, 서식지	전국자연환경조사(4차)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저서 무척추동물, 지형)	환경부(국립생태원)	2014~2018(4차)	SHP 점, 선, 면
		철새도래지	전북연구원	2007	SHP(면)
		갯벌	전북연구원	2007	SHP(면)
	보호지역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환경부(한국보호지역통합 관리시스템)	2023	SHP(면)
		천연기념물	문화재청(한국보호지역통합 관리시스템)	2023	SHP(면)

		기타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환경부(한국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	2023	SHP(면)
	생태축	산림축 -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	2015	SHP(선)
		하천축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국토지리정보원(국가공간정보포털)	2022	SHP(면)
역사·문화 자산	명승	명승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2022	CSV
	전통사찰	전통사찰	전북자치도 공공데이터포털	2022	CSV
	문화 유적지	문화유적지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2022	CSV
	옛길	삼남대로, 통영대로	김보국 외(2022)	2022	SHP(선)
거점 자산	수목원/정원	수목원, 정원	산림청(산림공간정보서비스)	2022	SHP(점)
	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전북자치도 천리길 아름다운순례길, 부안 생태문화 탐방로	한국관광공사(두루누리)	2022	GPX (KML)
		임도	산림청(산림공간정보서비스)	2022	SHP(선)
	마을	생생마을	전북마을포털	2022	SHP(점)
기반 자산	도로	고속도로 IC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2022	SHP(선)
		지방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2022	SHP(선)
	철도	철도역	국가철도공단	2022	XLS

- (3단계: 종합분석) 생태·환경자산, 역사·문화자산, 거점자산, 기반자산 등 다양한 자산들의 분포와 기존의 천리길, 생태관광지 등 생태관광 사업지역 간의 중첩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

나. 자원별 분석결과

1) 기존자산

■ 전북생태관광지

- 2022년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총 12군데의 생태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주시와 부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마다 1곳씩 지정됨. 또한 각 지역마다 깃대종이 존재함
- 2024년도 익산시 동산동 438 일원에 위치한 13,900㎡ 규모의 저수지 '다래못'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처를 새롭게 복원하는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여 생태습지공원을 추가 조성하였음

[표 2-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현황

연번	시군	생태관광지명	주소	깃대종
1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	가시연
2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3-2	원앙
3	정읍시	솔티 달빛 생태숲	정읍시 송죽길 25	비단벌레
4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수달
5	김제시	벽골제 생태농경원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09-8	참붕어
6	완주군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377	복수초
7	진안군	지오파크	진안군 진안읍 은천2길 6	줄사철나무
8	무주군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금강모치
9	장수군	뜯봉샘 생태관광지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39-3	삿꾹나리
10	임실군	성수산 자연휴양림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107	청실배나무
11	순창군	장군목 생태관광지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686-1	요강바위
12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221-7	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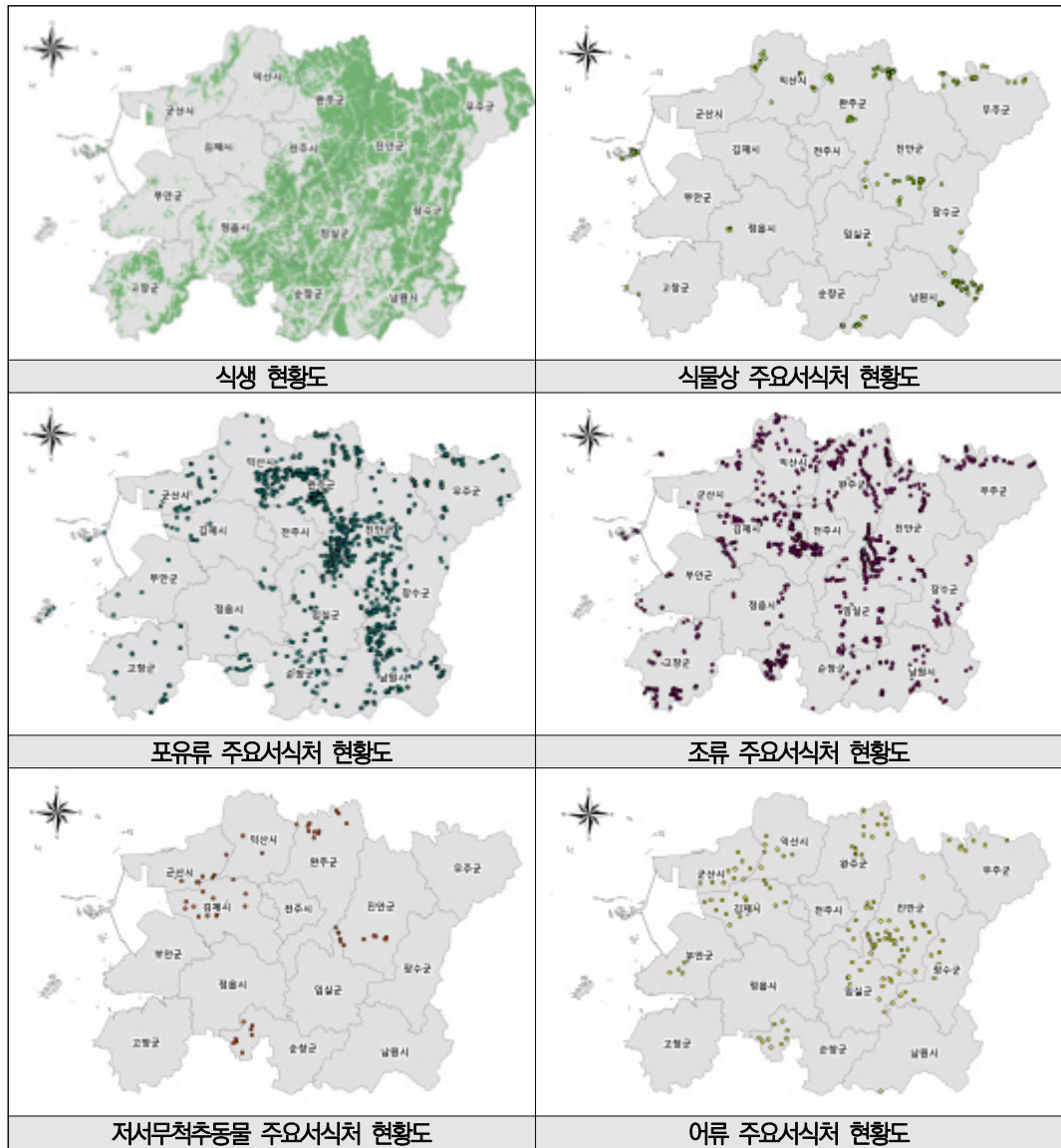
2) 생태·환경자산

■ 생물종서식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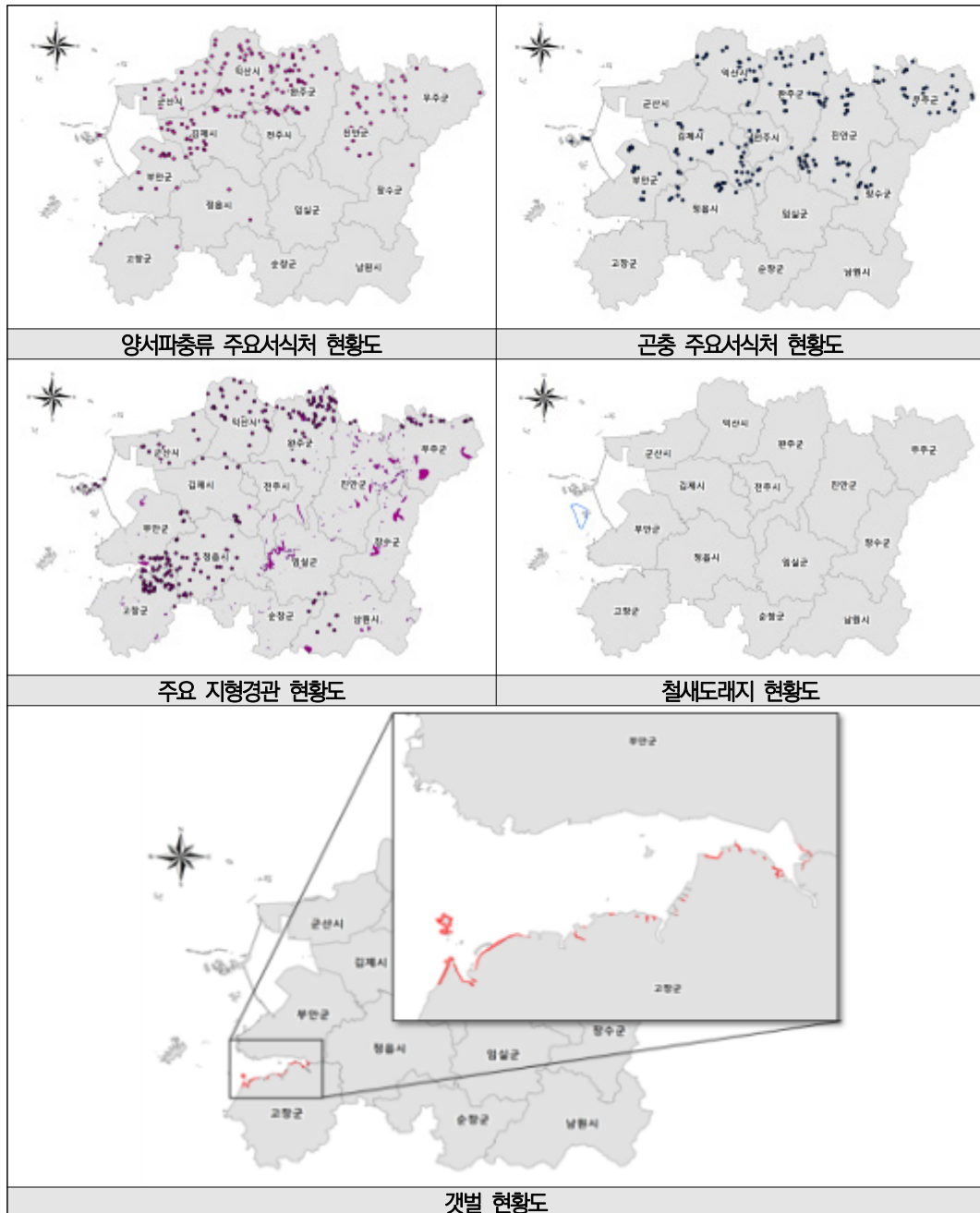
- 전국자연환경조사(4차) 자료는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저서무척추동물, 지형경관 등을 조사한 자료임
- 지형경관 중 주요한 자원으로 철새도래지와 갯벌이 있음. 철새도래지는 군산시 비안도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24.4km²로 오리 및 기러기류가 대다수이며, 갯벌은 부안 줄포만 갯벌(3.6km²)과 고창갯벌(64.6km²)이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있음

[표 2-4] 전북자치도 전국자연환경조사(4차) 현황

구 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식 생(km ²)	52.18	57.46	69.43	209.49	298.88	58.10	541.59
식물상(개소)	-	853	1811	232	594	-	1379
포유류(개소)	5	69	158	116	267	39	624
조류(개소)	97	67	132	39	145	295	431
양서파충류(개소)	9	58	85	23	-	69	67
어류(개소)	-	140	210	-	18	269	211
곤충(개소)	277	270	1111	840	-	1321	1892
저서무척추동물(개소)	-	179	157	-	-	355	414
지형경관(개소)	-	17	37	39	5	11	61
지형경관(km ²)	0.31	1.67	0.07	0.88	7.44	0.89	8.58
구 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식 생(km ²)	557.23	322.70	338.14	334.70	265.98	178.70	26.26
식물상(개소)	748	411	293	563	61	114	-
포유류(개소)	495	242	96	154	139	45	17
조류(개소)	642	76	30	343	133	124	27
양서파충류(개소)	101	45	6	-	-	20	45
어류(개소)	343	159	115	297	111	-	53
곤충(개소)	2304	2440	614	374	-	-	1109
저서무척추동물(개소)	364	-	-	111	189	-	-
지형경관(개소)	2	16	-	2	3	47	17
지형경관(km ²)	19.86	19.10	22.66	16.20	0.88	1.77	5.13



[그림 2-1] 전국 자연환경조사 항목별 분포 현황



[그림 2-1] 전국 자연환경조사 항목별 분포 현황(계속)

■ 보호지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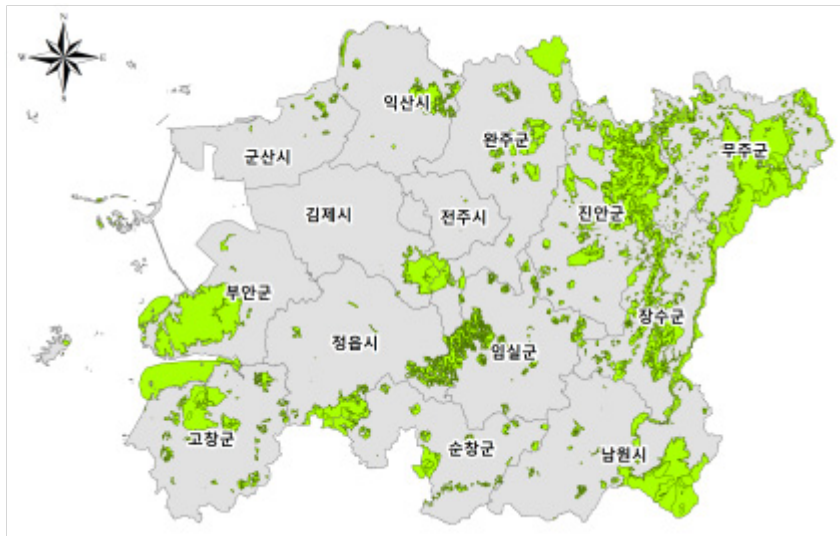
- 보호지역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문화재청·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16개의 법률에 의해 지정된 총 30개 유형의 현황이 구축된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음 (<http://kdpa.kr/>).
- 전북자치도 보호지역은 총 2,394.9km²로 무주군이 508.5km²로 가장 면적이 크며, 부안군(333.8km²), 장수군(257.3km²)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표 2-5]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천m²)

구 분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관보호구역	36,386.6	-	-	4,452.6	4.3	2,081.9	2,104.6
국립공원	499,339.8	-	-	-	36,907.0	111,298.6	-
군립공원	22,134.3	-	-	-	-	-	-
도립공원	141,668.6	6,278.3	-	-	-	-	28,425.6
도시자연공원구역	1,083.3	-	-	-	-	-	-
명승	3,006.7	-	166.3	-	33.0	78.6	-
백두대간보호지역	181,549.5	-	-	-	-	72,743.7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446.8	-	940.0	-	80.0	1,256.9	-
상수원보호구역	25,840.8	-	-	303.7	3,842.2	415.0	-
생태경관보전지역	18.6	-	-	-	-	18.6	-
수변구역	160,648.5	-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20,545.1	-	-	-	4,615.8	-	-
수원함양보호구역	353,019.9	-	4,124.4	11,490.3	16,049.9	5,699.4	2,214.0
습지보호지역	3,101.5	-	-	-	379.8	103.8	-
습지보호지역-갯벌	69,097.2	-	-	-	-	-	-
야생생물보호구역	135,686.6	296.1	886.8	7,132.5	12,467.1	35,453.7	6,538.3
자연환경보전지역	688,767.2	200.8	2,326.6	21,953.9	43,960.9	111,999.5	28,354.4
재해방지보호구역	7,943.9	-	1,568.7	-	-	-	-
천연기념물	1,010.7	5.3	20.3	95.1	535.4	1.2	5.8
특정도서	583.9	-	432.1	-	-	-	-
하천구역 (특별보전구역)	38,044.2	-	68.4	804.1	-	-	-

[표 2-6]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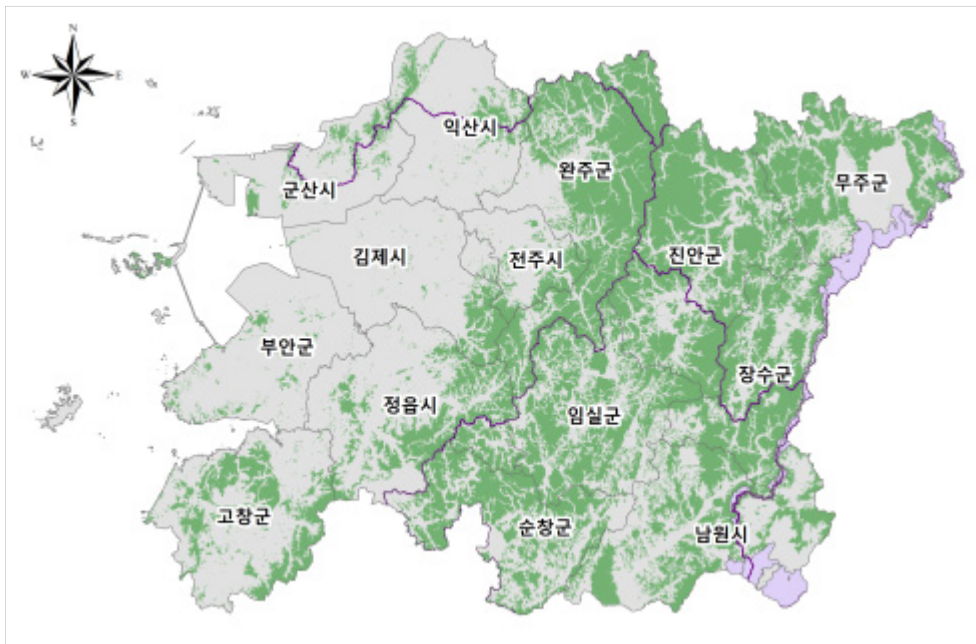
구 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관보호구역	1,320.8	3,418.3	-	17,883.7	396.4	4,724.0	-	-
국립공원	-	-	175,338.1	10,955.3	-	9,403.8	-	138,726.7
군립공원	-	-	-	6,249.2	-	15,885.1	-	-
도립공원	46,018.6	17,225.8	-	-	-	-	43,720.3	-
도시자연공원구역	-	-	-	107.2	-	-	976.1	-
명승	110.6	205.0	104.8	-	-	-	1,095.1	1,213.2
백두대간보호지역	-	-	71,704.5	37,101.3	-	-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33.8	2,675.0	-	39.9	74.3	-	346.8
상수원보호구역	-	-	484.1	3,485.4	277.8	-	-	17,032.6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
수변구역	-	111,412.8	21,272.9	27,962.7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15,929.3	-	-	-
수원함양보호구역	39,135.0	69,398.8	53,059.5	51,301.1	56,239.5	15,920.6	23,972.3	4,415.3
습지보호지역	-	-	-	-	-	-	2,617.8	-
습지보호지역-갯벌	-	-	-	-	-	-	891.7	112.0
야생생물보호구역	19,534.3	5,858.0	7,789.0	14,723.4	110.5	3,446.8	8,316.6	13,133.3
자연환경보전지역	46,018.5	17,223.4	175,979.1	17,111.4	16,321.8	25,103.7	43,720.3	138,492.8
재해방지보호구역	-	-	-	5,799.2	-	422.7	153.3	-
천연기념물	-	4.1	133.9	2.4	13.2	-	172.6	21.4
특정도서	-	-	-	-	-	-	-	151.9
하천구역(특별보전구역)	-	37,135.4	-	36.4	-	-	-	-



[그림 2-2] 전북자치도 보호지역 현황도

■ 생태축

- 산림축은 환경부(한국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 현황과 공간 정보오픈플랫폼(V-WORLD)에서 제공하는 연속주제도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을 구축하였음
- 전북은 무주군·장수군·남원시를 지나는 백두대간(328.12km)과 금강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이 지나고 있음



[그림 2-3] 전북자치도 산림축 현황도

- 하천축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에서 제공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현황을 구축하였음
- 전북은 동부 산지에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있으며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며, 동서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름

- 전북 내 하천은 총 480개소, 연장 3,330.0km로 국가하천 353.8km(11개소), 지방하천 2,976.3km(469개소)가 흐름

[표 2-7] 전북자치도 하천 현황

(단위 : 개, km, %)

구분		연장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수립률
합 계		480	3,330.02	470	3,109.86	93.4
국가하천	소 계	11	353.76	11	353.76	100.0
	금강	1	97.31	1	97.31	100.0
	강경천	1	2.66	1	2.66	100.0
	만경강	1	54.52	1	54.52	100.0
	소양천	1	6.83	1	6.83	100.0
	전주천	1	7.00	1	7.00	100.0
	동진강	1	19.20	1	19.20	100.0
	정읍천	1	18.02	1	18.02	100.0
	고부천	1	16.20	1	16.20	100.0
	원평천	1	17.78	1	17.78	100.0
	섬진강	1	96.41	1	96.41	100.0
	요천	1	17.83	1	17.83	100.0
지방하천	소 계	469	2,976.26	459	2,756.1	92.6

자료: 하천일람정보(2021), 환경부



[그림 2-4] 전북자치도 하천축 현황도

3) 역사·문화자산

■ 명승

- 명승은 문화재청에서 구축한 국가유산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국가유산정보시스템(Heritag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국가유산 정보와 지도 정보가 결합한 공간 정보 활용체계로 국가유산 위치정보, 속성정보에 대한 공간 데이터베이스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임
- 전북자치도의 명승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3.1㎢로, 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고창군에는 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으며, 무주군 무주구천동에는 2개소, 부안군에는 3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표 2-8] 전북자치도 명승 현황

시군구	문화재명	면적(천㎡)
전북자치도	총 10개소	3,084.5
군산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152.2
남원시	광한루원	70.4
완주군	완주 위봉폭포 일원	109.3
진안군	진안 마이산	205.0
무주군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51.6
무주군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53.3
고창군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954.0
부안군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340.5
부안군	부안 직소폭포 일원	240.7
부안군	부안 우금바위 일원	9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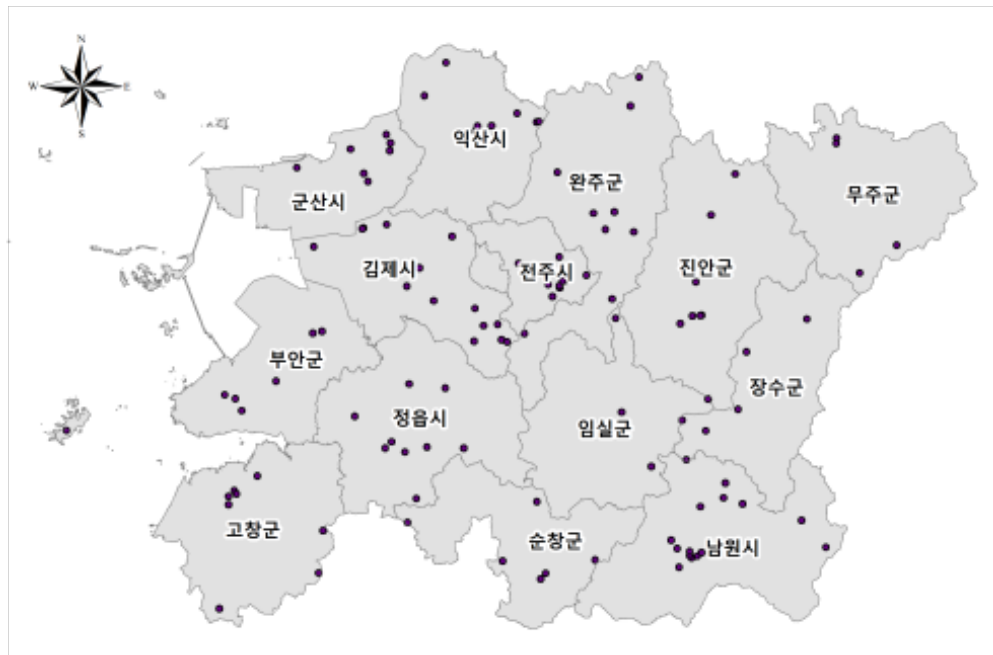
[그림 2-5] 전북자치도 명승 분포도

■ 전통사찰

- 전북자치도의 전통사찰은 전북자치도 공공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18개의 사찰이 존재함
- 남원시에 15개소로 사찰이 가장 많으며, 김제시(14), 전주시(11), 정읍시(10)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불교종단별로는 조계종이 76개소로 가장 많으며, 태고종(36), 기타종단(6)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2-9] 전북자치도 전통사찰 현황

시군구	관음종	보문종	심우회	조계종	태고종	화엄종	진목대사 유적진흥회	계
전북자치도	1	1	1	76	36	2	1	118
전주시		1		3	7			11
군산시				4	3			7
익산시				7	1	1		9
정읍시			1	4	5			10
남원시	1			9	5			15
김제시				7	6		1	14
완주군				8	1			9
진안군				4	3			7
무주군				5				5
장수군				4	2			6
임실군				4				4
순창군				5	1			6
고창군				6	2			8
부안군				6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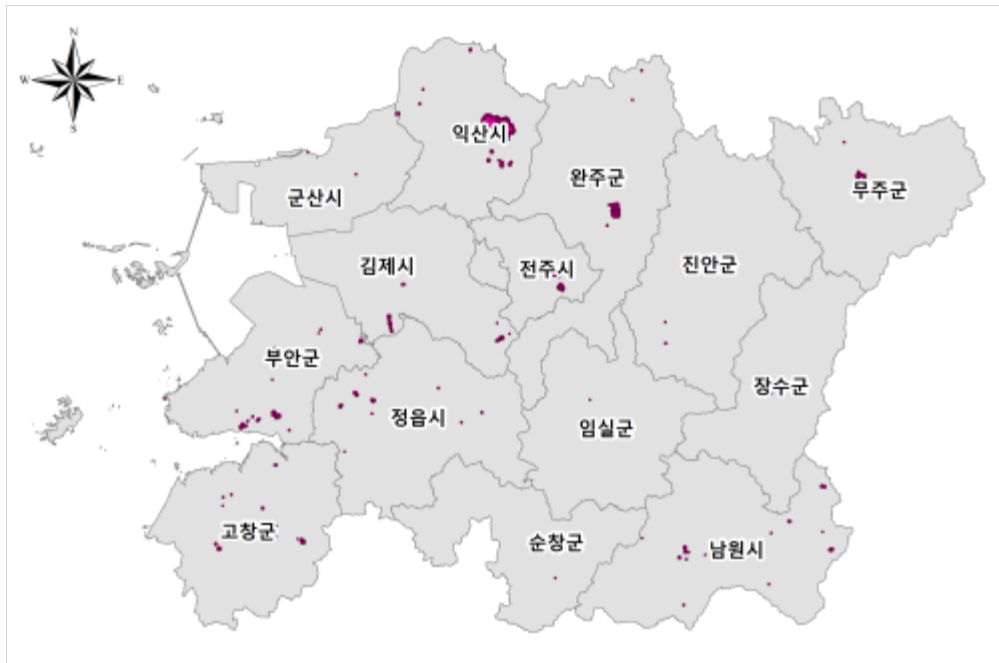
[그림 2-6] 전북자치도 전통사찰 분포도

■ 문화유적지

- 문화유적지는 문화재청에서 구축한 국가유산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의 문화유적지는 총 114개소로 면적은 18.4km²임. 남원시가 2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의외로 그 면적은 0.3km²로 적은 편이며, 익산시가 13.7km²로 분포 면적이 가장 크며 14개소가 분포함

[표 2-10] 전북자치도 문화유적지 현황

시군구	국가민속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전북 자치도	12	15.4	5	0.9	56	8.4	41	18,358.1	114	18,382.7
전주시					3	2.0	4	187.3	7	189.3
군산시					2	0.007	1	0.3	3	0.3
익산시	1	5.6	2	0.2	4	0.2	7	13,686.0	14	13,692.0
정읍시	1	5.1			4	0.2	5	323.7	10	329.0
남원시	3	2.4	1	0.003	16	0.8	6	331.0	26	334.2
김제시			1	0.5	11	0.2	3	526.9	15	529.4
완주군			1	0.2	5	0.1	1	1,742.4	7	1,743.6
진안군					1	0.03	1	3.7	2	3.7
무주군					1	0.2	1	216.3	2	216.4
장수군					1	0.2	1	213.2	2	213.4
임실군					1	0.008			1	0.008
순창군	2	0.0004							2	0.0004
고창군	2	1.1			5	1.1	6	628.9	13	631.2
부안군	3	1.2			2	0.6	5	498.5	10	500.3



[그림 2-7] 전북자치도 문화유적지 분포도

■ 옛길

- 전북자치도의 옛길은 삼남대로, 통영대로가 있으며 연장은 삼남대로 85.3km, 통영대로 100.4km임(김보국 외, 2022)
- 삼남대로는 익산시를 기점으로 전주시·완주시·김제시를 지나 정읍시가 종점인 옛길이며, 통영대로는 전주시를 기점으로 완주군·임실군을 지나 남원시가 종점인 옛길임

[표 2-11] 전북자치도 옛길 현황

구 분	기점	종점	연장(km)	비고
삼남대로	익산시	정읍시	85.3	
통영대로	전주시	남원시	100.4	



[그림 2-8] 전북자치도 옛길 현황도

4) 거점자산

■ 수목원/정원

- 수목원 및 정원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의 수목원 및 정원은 총 13개소로 면적은 312.5ha 이며, 지방정원은 4개소 100ha, 민간정원 4개소 3.7ha, 공립수목원 2개소 161.8ha, 사립수목원 36ha, 학교 수목원 1개소 11ha 임

■ 탐방로

- 탐방로는 한국관광공사의 두루누리 시스템(www.durunubi.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의 탐방로는 총 1,844km로 145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음. 가장 긴 탐방로는 연장이 186.2km인 군산시 구불길이며, 가장 짧은 탐방로는 연장이 1.2km인 남원시 남원요천생태습지둘레길임

[표 2-12] 전북자치도 탐방로 현황

유형	명칭	연장(km)	유형	명칭	연장(km)
전북자치도		1,844.1		덕음산솔바람건강길	8.5
전주시		99.1		이순신백의종군길	110.5
	성사대문안옛길	5.1		지리산둘레길	43.8
	이순신백의종군길	57.7	김제시		172.0
	전주건지산길	7.1		김제금구명품길	19.9
	전주도란도란시나브로길	10.1		김제모악산마실길	33.6
	천년전주마실길	12.4		김제새만금광역탐방로길	8.6
	한옥마을둘레길	6.7		김제새만금바람길	10.6
군산시		216.8		서해랑길	41.8
	구불길	186.2		아름다운순례길	57.5
	서해랑길	30.7	완주군		113.9
익산시		191.6		아름다운순례길	46.3
	아름다운순례길	94.0		완주경천애인징검다리길	6.8
	이순신백의종군길	30.9		완주고종마실길	9.9
	익산둘레무왕길	17.4		완주구이저수지둘레길	3.8
	익산미륵산둘레길	6.9		완주모악산마실길	37.4
	익산옹포곰개나루길	20.9		완주상관편백숲길	4.4
	익산함라산둘레길	21.5	진안군		158.5
정읍시		49.9		진안고원길	149.2
	정읍대장금마실길	31.6		진안용담댐 감동벼룻길	9.2
	정읍사오솔길	18.3	무주군		77.9
남원시		180.7		무주구천동어사길	12.8
	남원교룡산둘레길	7.0		예향천리금강변마실길	19.3
	남원요천생태습지둘레길	1.2		예향천리백두대간마실길	45.7
	남원흥부대박길	9.8			

유형	명칭	연장(km)	유형	명칭	연장(km)
장수군		110.8		순창선비의길	6.2
	백두대간마실길	44.7		순창장군목길	8.4
	장수뜰봉샘금강발지원길	3.5		예향천리마실길	13.1
	장수마실길	24.8	고창군		49.9
	장수방화동생태길	8.6		고창100리길	49.7
	장수승마실길	22.4		고창운곡습지생태길	41.6
	장수장안산마실길	6.9		서해랑길	68.2
임실군		66.7		예향천리마실길	63.8
	임실섬진강길	49.8	부안군		148.9
	임실옥정호마실길	5.1		변산마실길	52.4
	임실옥정호물안개길	11.8		서해랑길	79.6
순창군		33.9		해안누리길	17.0
	순창강천산길	6.2			



[그림 2-9] 전북자치도 탐방로 현황도

- 임도는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의 임도는 총 338.8km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개설되어 있으며 산림이 많은 무주군, 순창군 등 동부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음

[표 2-13] 전북자치도 임도 현황

구 분	전북자치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연장(km)	338.8	19.4	13.7	0.1	54.7	57.8

구 분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연장(km)	70.7	30.4	18.7	60.3	10.8	2.2



[그림 2-10] 전북자치도 임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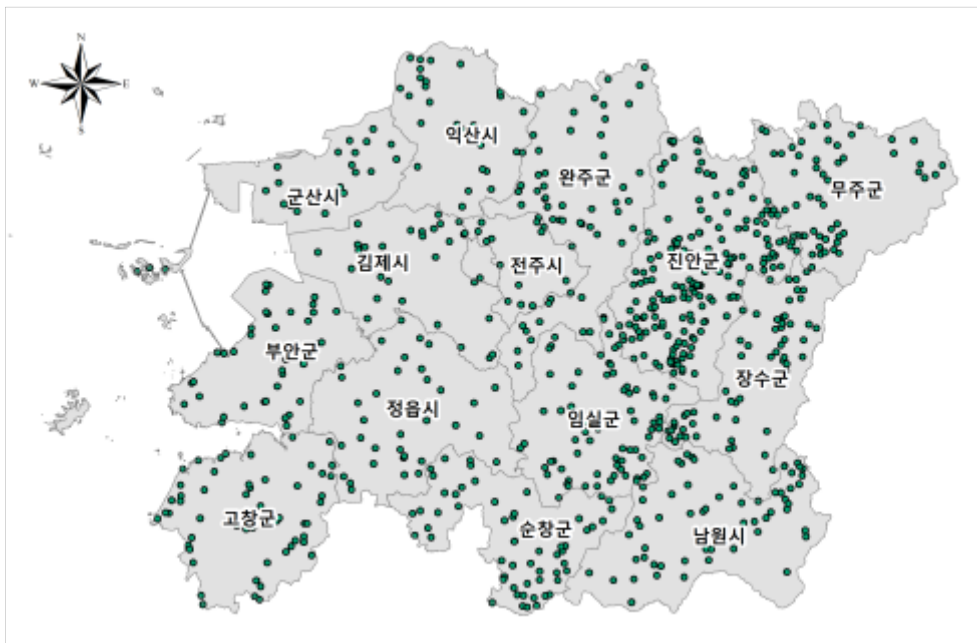
■ 생생마을(www.jbrun.co.kr)

- 생생마을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https://www.jbrun.co.kr/>)”에서 제공하는 생생마을 마을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 생생마을은 총 779 마을이 있으며, 임실군이 77개 마을로 가장 많고 전주시가 16개 마을로 가장 적음

[표 2-14]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현황

구 분	전북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마을수	779	16	22	28	35	59	30

구 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마을수	55	189	53	58	77	61	58	38



[그림 2-11]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위치도

5) 기반자산

■ 도로 및 철도

- 전북자치도를 연결하고 있는 도로의 연장은 8,531km이며,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이 4.7km로 전국 평균인 2.1km/천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전북자치도 도로보급률 현황(전국, 전북)

구 분	도로연장(km)	면적당 도로연장(km/km ²)	인구당 도로연장(km/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km/천대)
전국	111,314.0	1.1	2.1	4.7
전북	8,531.0	1.1	4.7	9.2

자료 : 도로현황(2019), 국토교통부

- 주요 도로망으로는 남북축의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있으며 동서축을 연결하는 익산포항, 광주대구, 고창담양 등 7개 노선이 있음



[그림 2-12] 전북자치도 주요 도로망도

- 주요 철도망으로는 남북축의 호남선과 익산에서 전남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충남에서 군산시를 거쳐 익산시가 종착역인 장항선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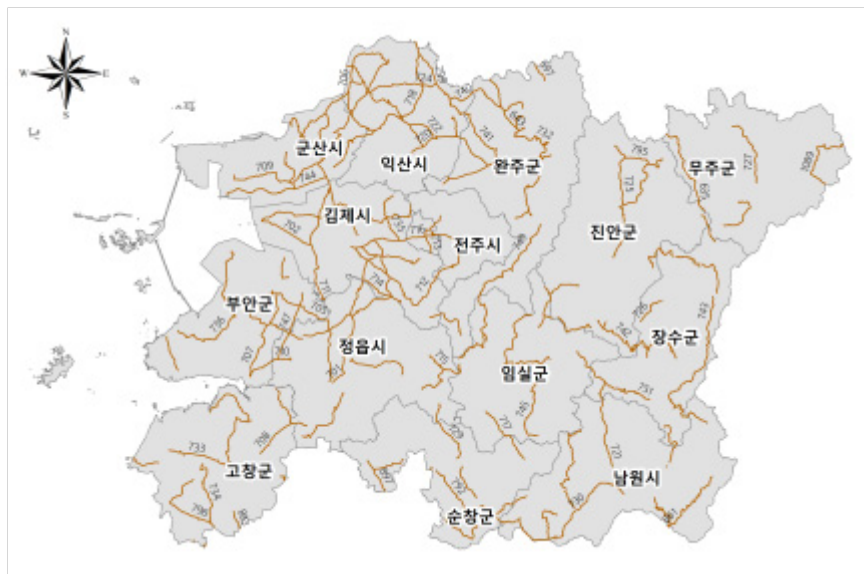


[그림 2-13] 전북자치도 주요 철도망도

- 항만과 공항은 군산항과 군산공항 1개가 구성되어있으며,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완공,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 예정임
- 전북은 53개의 지방도가 있고 연장은 총 1,492.8km이며, 745번 지방도가 91.16km로 가장 길고 816번 지방도가 0.61로 가장 짧은 구간임

[표 2-16] 전북자치도 지방도 현황

도로번호	연장(km)	도로번호	연장(km)	도로번호	연장(km)
전북	1,492.84	717	14.11	740	17.78
635	26.87	718	42.96	741	40
643	21.21	720	5.05	742	41.01
697	3.78	721	32.92	743	54.31
701	24.39	722	26.93	744	31.17
702	47.67	723	24.73	745	91.16
705	47.2	724	17	747	21.35
706	29.27	725	13.12	749	46.6
707	17.9	726	17.57	751	23.57
708	46.75	727	24.17	792	20.43
709	32.19	729	19.97	795	34.96
710	10.24	730	53.16	796	16.42
711	59.56	732	16.21	799	39.19
712	46.37	733	19.11	816	0.61
713	9.61	734	43.62	861	15.92
714	37.11	735	22.99	893	4.16
715	12.3	736	63.46	897	8.75
716	27.37	737	12.25	1089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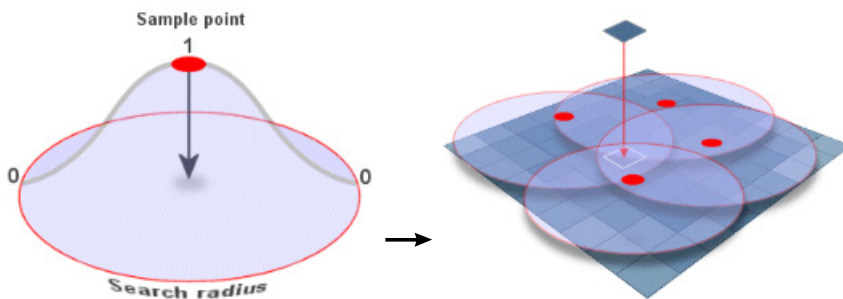
[그림 2-14] 전북자치도 지방도 현황도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종합분석

■ 생태·환경자산 집중 분포지역 분석

- 본 연구에서 생태·환경자산 발견지점을 대변하는 자료로 전국자연환경조사(제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생물종 발견지점은 점(Point) 형태의 자료임
-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기법과 같은 열지도(Heat map) 분석을 활용하면 어느 지점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 즉 생태·환경자산의 집중 분포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음
 - Kernel Density Estimation(KDE)이란 커널 함수(kernel function)를 이용한 밀도추정 방법으로 각 좌표(각 셀이 아님) 주위에 원형 이웃(circular neighborhood)을 그린 다음, 좌표 위치의 1에서 이웃 경계(neighborhood boundary)의 0으로 이동하는 수학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
 - 각 좌표에 맞춰 아래와 같이 매끄럽게 구부러진 표면을 생각해 보면 밀도 계산에서 커널의 크기는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검색 반경(search radius)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검색 반경이 클수록 커널은 보다 평평(flatter)해짐. 각 좌표에 커널함수를 적용하면, 각 셀의 밀도 값은 셀 중심과 중첩되는 모든 커널 표면의 값을 더하여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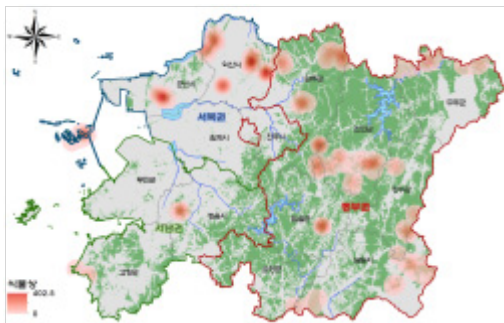


출처 : <http://www.geography.hunter.cuny.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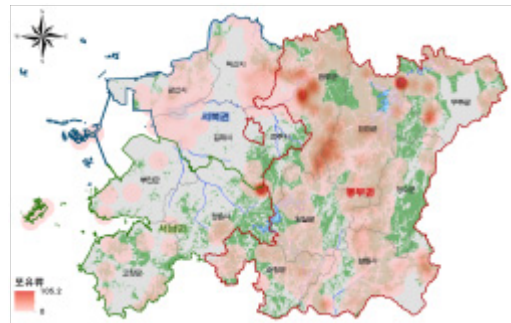
[그림 2-15] 커널밀도추정 기법을 활용한 열지도(heat map) 작성 방법 예시

○ 분석 결과 전북 내 분류군별 발견지점의 핫스팟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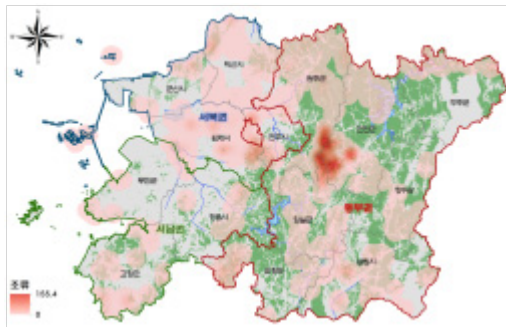
- (식물상) 익산시 서대산, 미륵산, 군산시 금성산 일원 등에 발견지점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포유류) 무주군 지소산, 정읍시 상두산, 완주군 서빙산, 위봉산성군립공원, 만덕산 일원 호남정맥 자락
- (조류) 만덕산 일원 호남정맥 자락과 마이산도립공원, 대둔산이 조류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양서파충류) 북부 및 서부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류)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일원,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일원의 섬진강 유역, 익산시 임상동 일원 탐천 유역,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백천 유역이 높게 나타남
- (곤충류)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내 벌한천 유역, 적상면 마향산 자락, 진안군 성수면 회초천 유역,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동산 일원 및 황산동 황산 일원,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시대산 일원, 부안군 계화면 계화산 일원,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일원에 높게 나타남
- (저서무척추동물류)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경계지인 회초천 유역,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일원, 김제시 북죽동 성산 일원과 만경읍 만경리 동산 일원 및 황산동 황산 일원,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일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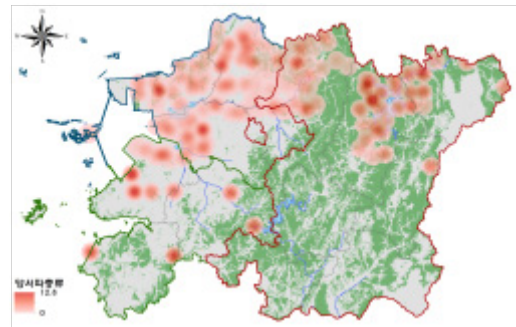
식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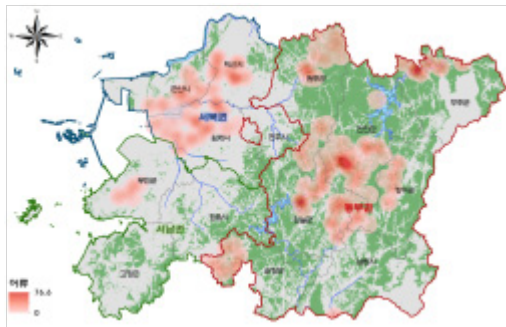
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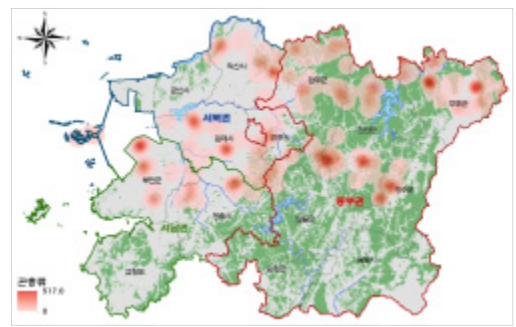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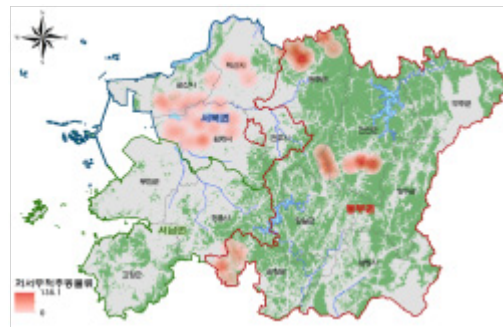
양서파충류



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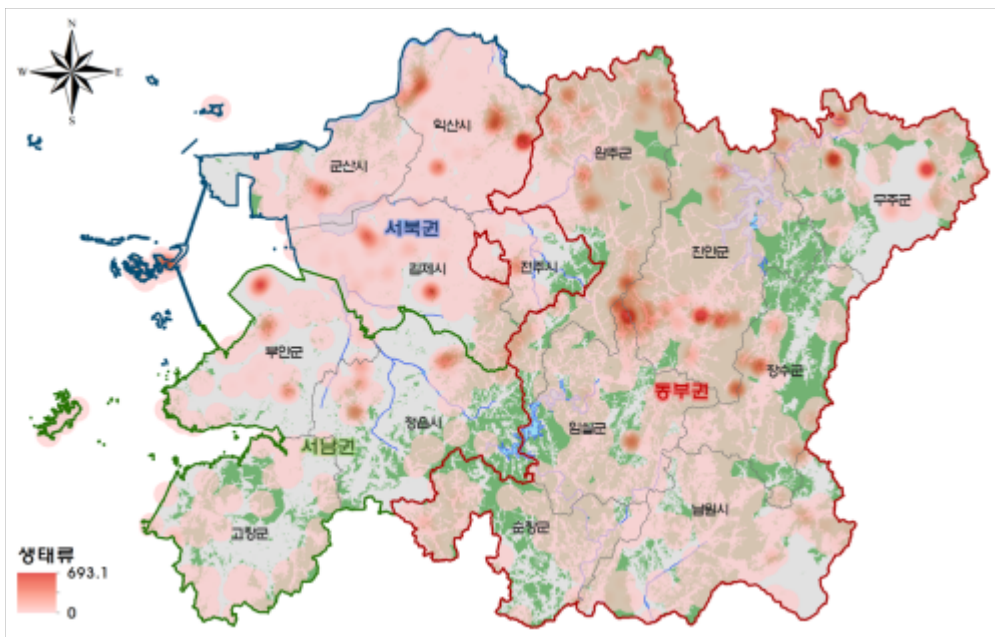
곤충류



저서무척추동물류

[그림 2-16] 전북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분류군별 핫스팟 분석 결과

- 종합적으로 보호대상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저서무척추동물류의 서식지를 모두 합친 생물종 발견지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아래 그림과 같음. 완주군·진안군·임실군이 만나는 만덕산 일원의 호남정맥 자락과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시대산 일원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동부권 내 생태류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은 완주군·진안군·임실군이 만나는 만덕산 일원의 호남정맥 자락과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일원으로 나타남
- 서북권은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시대산 일원과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미륵산 일원에 생태류가 다양하게 나타남
- 서남권은 부안군 계화면 계화산 일원과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일원에 생태류가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 2-17] 전북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종합 핫스팟 분석 결과

2) 시사점 도출

■ 기존 생태관광지와 생태관광 자원 중첩분석 결과

- 기존의 생태관광지 조성지역과 생태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생태·환경자산(7가지 자산 종합) 핫스팟 분포, 보호지역, 전통사찰, 명승, 문화유적지, 백두대간 및 정맥, 전북건기길 등 관련 자원 분포를 모두 중첩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완주군 경천 싱그랭이에코빌, 진안군 지오파크, 장수군 뜬봉샘 생태관광지,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관광벨트, 정읍시 솔티달빛생태숲,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생태관광지,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등 대부분의 생태관광지는 자원 분포와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반면에 순창군 장군목 생태관광지, 김제시 벽골제 생태관광지는 자원 분포지역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8] 기존 생태관광지와 생태관광 자원 중첩분석 결과

2. 생태관광 수요 변화

가. 관광 트렌드 변화

■ 자연 관광지, 지역 관광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집 근처에서 자연 공간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 기반의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일하면서 놀고, 놀고 일하는 새로운 개념인 워케이션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 관광지에서 일하면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등장함
-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산, 역사와 문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로컬관광, 지역 관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그림 2-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3~2025)

■ 개인 경험 중시 및 경험 공유

-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유형화된 관광보다는 나 자신의 관점에서 개인의 체험, 힐링, 치유 중심의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개인의 관광 경험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관광의 새로운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최근 매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서 개인방송 SNS로 옮겨 감에 따라 유명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특히 10대 ~ 20대 계층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경제용어사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단어가 등재될 정도로 공용화 됨
- 구독자 수가 50만명 이상 국내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전략적으로 지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과 경기도가 이를 특히 잘 활용하고 있음



[그림 2-20] 개인 여행 유튜버 현황

■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인과 소규모 그룹 관광 중심으로 전환

- 기존의 관광이 수학여행, 동호회, 산악회 중심의 대규모 관광, 버스 중심의 관광이었다면 최근에는 소규모 그룹, 가족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 KTX 등을 활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 이러한 관광 트렌트는 자신이 여행 코스를 설정하여 이동하기 보다는 SNS, 댓글 순위 등을 활용하여 그 루트를 그대로 습득하는 경향이 큼
- 이러한 경향은 ‘고속도로 맛집투어’가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특정 휴게소의 간식 거리가 큰 인기를 끌자 여행지가 아니라 휴게소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과 그 후기가 온라인에 급속도로 확산 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 탐방 역시 단체 수학여행에서 가족단위 현장학습으로 변화 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야놀자’ 등 숙박 예약 업체의 급성장과 ‘여행지 도장 깨기 어플’, ‘여행지 색칠 컬러링’ 등에서 확인됨

■ 장거리 걷기, 캠핑, 바이킹 수요 증가

- ‘장거리 걷기’는 건강 증진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 이후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지자체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약 500km 초광역 길을 조성하여 운영중이며 산림청의 백두대간 종주길, 환경부의 생태길 등 다양한 걷기길이 조성되고 있음
- 광역단위에서는 남해 바래길, 강원도 정선의 운탄고도, 경기도 둘레길, 충남 내포문화 숲길이 대표적이며 전북자치도가 ‘25년 총 길이 1,034km에 이르는 장기길 ‘삼천리길 (가칭)’을 출범시킬 예정임
- 이러한 장거리 걷기길은 코스 세분화, 재정비를 통해 수요자를 계속 불러들이고자 하며 코리아 둘레길은 걷기길 활성화를 위해 ‘삼성’, ‘카카오’ 등 민간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캠핑은 그 수요가 지난 5년간 42% 급증하였으며 '24년 캠핑객 600만 시대로 접어들. 캠크닉, 차박 등 캠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 유형은 더욱 세밀화 될 것으로 예측됨



출처 : 동아일보, 아주경제, 내손안의 서울, 연합뉴스

[그림 2-21] 개인 여행 취향에 맞춰 제작된 지도 및 출판물

■ 베이비부머, 외국인 방문객 증가

- 2차 베이비붐 은퇴자와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청년층 관광객이 새로운 생태 관광 수요로 급부상하고 있음
 - '24년부터 11년간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63~74년생) 은퇴할 예정임
- K-pop 등 한류문화의 확산과 직업 및 학업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자연 스텝게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외래 방문객 1,103만 명 중 35.6%인 393만 명이 30세 이하였다고 밝힘

-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외래 방문객 중 30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27.6%였으나 10년간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완주 아원고택과 같이 BTS 뮤직비디오가 촬영된 곳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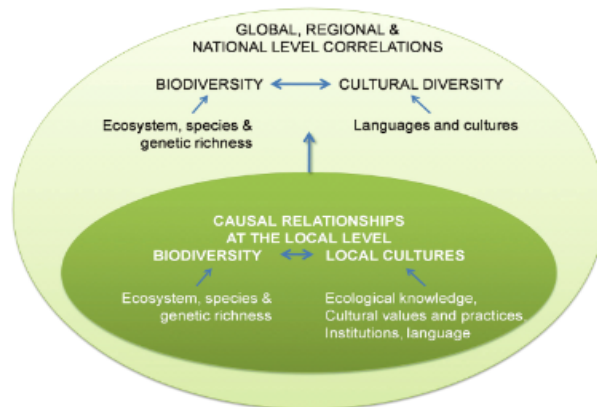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한겨레

[그림 2-22] 베이붐 세대 인구 분포, 외국인 방문객 비율 및 BTS 촬영지(아원고택)

나. 대응 사례

■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bio-cultural diversity 개념이 대두되고, 2001년에 「문화다양성선언」 이후 2007년에 생물문화다양성이 생태보전과 함께 지역의 생태와 융합된 문화다양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함
-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언어다양성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조건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 의존적·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육근형, 2010; 김억수·이재영, 2016)
- 생태관광은 지역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역사·문화자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생물문화다양성을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됨
- 따라서 기존의 자연생태자원 체험에 머무르던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고유의 관광 경험이 가능함
- 또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 체험과의 연계, 먹거리, 굿즈, 스토리텔링, 문화예술과 융합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가능함



출처 : Maffi and Woodlly, 2010; 김억수·이재영, 2016

[그림 2-23]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상호관련성 예시

■ 유럽연합 RURITAGE

- RURITAGE는 Rural(지역)과 Heritage(유산)이 합쳐진 용어로,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유산을 중심으로 농촌의 재생과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프로젝트임
- 2020년부터 UNESCO에서 주관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함
-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자산)을 통해 지역마을과 역사 및 문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외부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사회의 회복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순례(Pilgrimage), 로컬푸드(local food), 이주(migration, 귀농, 귀촌),
예술/축제(art & festival), 회복(resilience), 경관(landscape, 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생태관광)



출처: 루리티지 홈페이지 (<https://www.ruritage.eu/>)

[그림 2-24] RURITAGE의 6가지 요소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가. 국외 정책동향

1) UN Tourism(세계관광기구)¹⁾

■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

- 세계관광기구는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을 제시하고 있음
- 관광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원칙은 관광 개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을 강조함

1. 관광 개발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환경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필수 생태 과정(ecological processes)을 유지하며,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해야 함
2.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 문화적 진정성(authenticity)을 존중하고, 지역에서 건설하고 생활하는 문화 유산과 전통 가치를 보전하며, 문화간 이해와 관용에 기여할 것
3.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 창출 기회,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면서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실행 가능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운영을 보장할 것

- 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생물다양성, 기후 행동, 세계 관광 플라스틱 이니셔티브(Global Tourism Plastics Initiative), 호텔 에너지 솔루션(Hotel Energy Solutions), INSTO, 하나의 행성(One Planet), 관광에서의 자원 효율성(Resource Efficiency in Tourism)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2024년 1월, 舊 UN WTO가 UN Tourism으로 새로운 이름과 브랜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관광의 전환을 위해 유엔의 관광 전문 기관이자 관광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사람과 지구”가 항상 중심이 되도록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고자 함을 담고 있음(UN Tourism, 2024)

■ 생물다양성

- 생태관광과 관련이 높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2002년 세계 생태관광의 해를 통해 생태관광 관련 활동과 국제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보호지역과 생태관광(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을 통해 생태관광(ecotourism)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17] UNWTO가 제시한 생태관광(자연 기반 관광)의 특성

번호	내용
1	• 자연을 기반으로 한 모든 관광(nature-based forms of tourism; NbT)은 관광객의 주된 동기가 자연과 자연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전통 문화를 관찰하고 감상하는 것임
2	• 자연 기반 관광은 교육(education)과 해석(interpretation) 기능이 포함됨
3	• 자연 기반 관광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소규모 그룹을 위해 전문 여행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지 않음 • 관광지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파트너는 현지 소규모 기업인 경향이 있음
4	• 자연 기반 관광은 자연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
5	• 생태관광 명소로 사용되는 자연 지역의 유지 관리를 다음을 통해 지원함 - 보전 목적으로 자연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와 조직 및 관리기관에 경제적 이익 창출 - 지역사회에 대체 고용 및 소득 기회 제공 -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자연 및 문화 자산 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

출처 : UN Tourism

- 최근에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자연 포지티브 관광(Nature Positive Travel and Tourism)”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 CBD COP15, 2022)에서 제시한 바 있음
-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관광분야 3대 다자간 협력기구인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WTTC), UNTWO, Sustainable Hospitality Alliance(the Alliance)가 공동으로 제시함

2) CBD(생물다양성협약)

- 2022년 12월 발표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를 통해 기존의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에서 제시했던 아이치 타겟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생물 다양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실천목표 15에서는 생물다양성 부정적 영향 줄이고 긍정적 영향 증가, 비즈니스 및 재정 분야 생물다양성 위험 감소를 명시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태자원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수단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도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철새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먹이주기와 벼짚 존치 등 일부 지지서비스 증진에 국한되었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舊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22가지의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표적인 문화서비스 증진 활동인 생태관광 분야의 탐방로 조성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TNFD(자연자본관경공시)

-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ESG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 차원에서 최근 UNEP과 세계자연기금(WWF)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임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재무정보 공개시 생물다양성이나 생태·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
- 기존 정부(공공기관) 중심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환경자산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 기업의 생태관광 연관 사업 추진을 통해 TNFD 참여 가능(예: 생태관광 방문자 센터 조성 지원, 숙박시설 조성 지원, 숲 조성 지원,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출처 : 환경부(2024)

[그림 2-25] TNFD(자연자본관련 공시) 사례

나. 국내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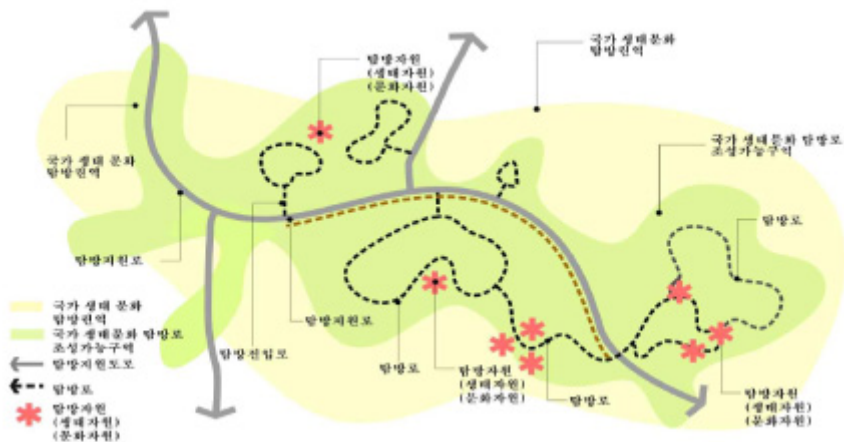
1) 환경부

■ 관련근거 및 사업

- 환경부는 생태관광과 관련된 근거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2조(정의) 및 제38조(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제55조의2(한국생태관광협회)을 토대로 생태관광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의 생태관광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거점시설 확충, 명품마을 조성,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탐방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 등), 한국생태관광협회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생태탐방로 지정

- 국가생태탐방로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 훼손·단절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면서 도보탐방을 통해 지역에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그림 2-26] 국가생태탐방로 구성요소(개념)

자료: 환경부(2023.10.18.)

- 환경부는 2023년 12월 현재 총 97곳의 국가생태탐방로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전북 지역에는 총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특히 전북에서는 최근에 고창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21), 완주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22), 진안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23), 임실 옥정호 물안갯길('23),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23)가 선정되었음

[표 2-18]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
사업기간	• '08년~계속
국비지원	• 국비 50% 매칭
추진현황	• '08~23년 기간 동안 총사업비 1,604억원(국비 802억원, 50%)을 투입하여 90개 사업 2,317km 탐방로 조성중
사업내용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도보탐방을 통한 생태복지서비스 제공

자료: 환경부(2023.10.18.)

■ 생태관광지역 지정

-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역을 의미
- 2011년부터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현재 35곳의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그리고 2024년에 신규로 지정된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의 3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19]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개요

구분	내용
추진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13.3 생태관광지정제 도입)
사업내용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생태보전 ※ 3년 단위로 자립 가능성, 환경관리 현황, 프로그램 우수성 등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매년 컨설팅 별도 실시)
사업기간	'11년~계속
선정기준	자연·생태적 가치, 시설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지자체 추진의지와 기반, 장단기 보전·관리 전략 우수지역
주요사업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관광기반시설 설치관리, 보전 활동,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주민 교육, 홍보
지원내용	주민협의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 생태탐방로, 에코촌,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등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전문가 맞춤 컨설팅, 대중매체 중점 홍보 등 지원

자료: 환경부(202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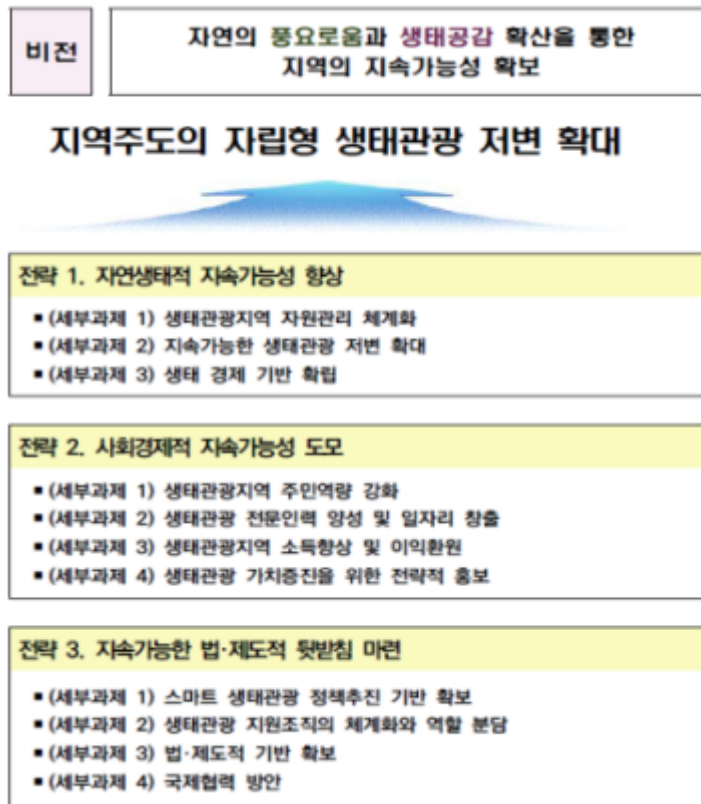


자료: 우먼타임즈(2023)

[그림 2-27] 2024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 전경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²⁾

- 환경부는 국가 생태관광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비법정 계획으로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을 수립한 바 있음
- 비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태공감 확산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자립형 생태관광 저변 확대”를 제안하고, 3대 추진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자료: 환경부(2019)

[그림 2-28]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의 비전, 전략, 목표

2) 환경부, 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

- 전략 1은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생태관광지역 자원관리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생태경제기반 확립을 과제로 제시함
 - 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공간적 구분과 조화를 위해 보호구역-영향권역-시설권역으로 구분되는 자원 관리구역 설정 방안을 제시함
 - 생태자원 관리 체계화를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을 활용하여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보전 총량의 설정 및 관리, 생태관광지역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생태관광지역의 탐방예약제 도입을 제시함
 - 생태관광 저변 확대에서는 자연보호지역 중심의 생태관광에서 수변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타 유형의 보호지역, 숲길, 둘레길, 생태마을, 철새도래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등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지역과 주변 마을의 연계 확대, 생태관광 브랜드 강화를 제시함

[표 2-20]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주요 자원

구분		주요 자원
보호지역	자연생태 보호지역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기타 보호지역	수변구역, 문화재(명승,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비보호지역	우수 생태·경관 보유 지역	DMZ, 생태마을, 우수 산촌생태마을, 숲길·둘레길, 철새도래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생태공원, 자연휴양림, 댐·호수, 수목원·식물원, 지방정원, 국가생태탐방로

자료: 환경부(2019) 일부 수정 인용

- 생태경제 기반 확립에서는 생태관광프로그램 등 탐방서비스의 유료화(이용료 징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빗물 중수 재이용 등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친환경 디자인 도입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 녹색제품 생산 및 유통을 제시함
- 전략 2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로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지역 소득 향상과 이익 환원, 홍보채널 확대와 지역 맞춤형 홍보체계를 제시함
 - 생태관광지역의 주민역량 강화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국가전문자격 종목 신설과 사업등록 제도 도입 등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개선, 생태관광 디렉터 교육과정 체계화, 생태관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교육 및 참여 확대, 생태관광지역 운영 체계화를 과제로 제시함

[표 2-21] 생태관광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및 세부사업

과제	세부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개선	①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기반 정비 ② 자연환경해설사 근로환경 개선 ③ 해설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개선 ④ 해설 콘텐츠 강화 및 해설 품질 개선
생태관광 디렉터 교육과정 체계화	① 생태관광 디렉터 방향 재정립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② 대상별·등급별 학급 편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별도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현장 친화적인 강사진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교육 이수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관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① 종합 컨설팅 지원 ② 상시 자문형 컨설팅 지원
지역주민 교육 및 참여 확대	① 지역주민 행복 컨설팅 교육 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
생태관광지역 운영 체계화	①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②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뉴얼 마련

자료: 환경부(2019) 일부 수정 인용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서는 초·중·고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관·학 협력 생태 관광 교육과정 개설, 생태관광 종사자 교육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생태관광인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제시함

- 생태관광지역 소득 향상 및 이익 환원에서는 ① 수익성 제고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³⁾, ② 지역 수익에 대한 이익환원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수익 창출 조직 모델화를 제시함

- 생태관광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에서는 ① 생태관광 인식 증진을 위한 타겟별 홍보, ② 기존 운영 중인 홍보 채널의 선진화(홈페이지 개편, SNS홍보 채널 및 이벤트와 프로모션 확대, 상업용 플랫폼 제휴), ③ 신규 홍보채널 확대 및 지역홍보 맞춤형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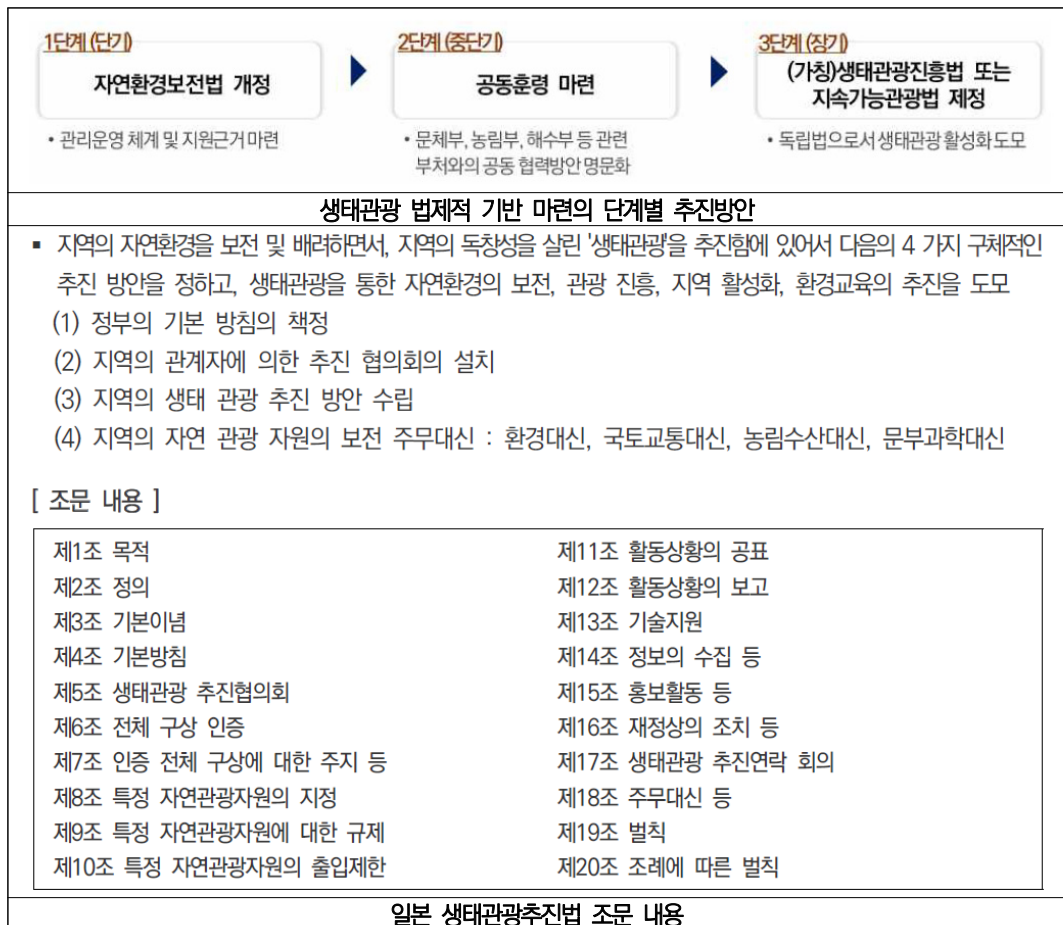
- 전략 3은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 마련”으로 스마트 생태관광 정책추진 기반 확보, 생태관광 지원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 법·제도적 기반확보를 제시함

-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설계 및 역할 분담에서는 중앙부처, 주민협의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

3) 생태관광 공동 브랜드 구축, 생태관광지역 여행 전문 플랫폼 개발, 친환경 에코촌 브랜드화 및 생태 모델화, 생태관광지역 마을 생태호텔), 브랜드형 상품 판매(깃대종 굿즈 제작, 먹거리 메뉴 특성화, 통합 여행상품 및 여행사, 생태관광지역 연계 생태체험루트 개발, 기업의 CSR, CSV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1사 1 생태관광지역 후원,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자연생태치유 상품화

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분담을 제안함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의 확대에서는 한국생태관광협회-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와 연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광역 지원조직을 구축,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생태관광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 법·제도적 기반확보에서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서 중장기로는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정과 (가칭)생태관광진흥법 또는 지속가능관광법 제정을 제시함



자료: 환경부(2019)

[그림 2-29] 생태관광 법제적 기반 마련(상) 및 일본 생태관광추진법 조문 내용(하)

■ 환경부 업무보고(2024)⁴⁾

- 환경부는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생태관광분야의 과제로 “권역별 생태관광 허브 지정”을 제시함
 - 일회성 관광에서 지역에서 체험·체류를 통해 다시 찾는 생태관광이 되도록 권역별 생태관광 허브를 '24년부터 '26년까지 10개소를 지정, 권역별 인프라와 운영관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24년 강원, 충청, 경상권 등 2개소 → '26년 권역별 확대, 인프라 우선 지원, 운영관리 예산 차등 지원 등
- 또한 국립공원과 주변 역사·문화자원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지역 관광소재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협업을 통해 도심형 생태관광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외에도 범부처 로드맵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환경자산을 국토의 30%까지 확보하기 위해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지정 확대를 과제로 제시함

< 다부처 협력사업 모범사례 >

◇ (보전 + 이용 사례 : **순천만** 생태관광지역(환경부) + 습지보호지역(환경부) + 국가정원(산림청)
- △[사유지매입] 총 250억원('16~'23, 130억 / '24, 120억), △[탐방시설] 에코촌 조성('13, 30억)

2)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근거 및 사업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지역의 특화관광명소 육성과 관광품질인증제 마련, 관광두레 조성사업, 글로벌관광지 육성 사업,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태테마관광(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지역 생태자원에 인문학적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입힌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이며,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및 예산을 지원함
 - 기존의 생태관광 10대 모델 육성사업에서 출발하였으며,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됨, 예산지원은 국비50%, 지방비 50%의 매칭 방식임

4) 환경부(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과 생태테마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구분되며, 2019년에는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등 15개 사업이 선정 선정되었으며, 2020년 10개 사업, 2021년 3곳이 지정됨

[표 2-2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사업 선정 내역

구분	시도	시군구	사업명(세부사업)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1	부산	금정	도시가 품은 섬,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도심속 인문·생태 여행, 생태교육 전문 해설가 양성 등)
2	대전	-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수 내 생태체험 프로그램, 생태테마코스 안전동선 조성 등)
3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갯골워킹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염전컬링장 조성 등)
4	경기	고양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행주나루 체험, 군 초소 리모델링 등으로 생태, 역사, 평화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5	경기	양평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인문학, 생태) 이야기 (두물머리 인생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등)
6	강원	양구	금강산 가는 길, 편지불 꽃길! (DMZ 해안 야생화단지 연계 체험프로그램, 테마존 조성 등)
7	전남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마법의 아침여행 (침실습지 연계 생태체험 프로그램, 그늘쉼터 등 생태놀이터 조성 등)
8	경북	성주	500년 왕버들숲으로 떠나는 생명여행 (성박 숲 탐방, 숲속음악회, 생태아카데미, 밤나무숲 조성 등)
9	경남	창원	편백숲浴(욕) 먹는 여행 (एको힐링센터 연계 스탬프 투어, 지역주민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등)
10	경남	함안	악양생태공원-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 피크닉 (악양생태공원 체험프로그램, 숲놀이학교 운영 등)
〈생태테마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	강원	횡성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횡성호수길 에코힐링 체험, 망향의 동산 시설 정비 등)
2	충북	괴산	연풍, 바람따라 신나는 숲 여행 (수옥정 숲체험, 모니터링 투어, 마을이야기 채록, 마방터 편의시설 정비 등)
3	전북	군산	햇빛 동네에서 뒹구는 근대 인문학 기행 (소셜'탁류' 체험프로그램, 해돋이공원 전망대 리모델링 등)
4	경남	김해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 여행 (별빛여행프로그램, 비비단해설사 운영, 청년 도슨트 양성 등)
5	경남	하동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반딧불이, 모래생태 체험프로그램, 과학관시설 보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3.12.)

-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상품 브랜드화의 선순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며 2023년에는 남원 운봉 서어나무숲 등 17곳이 선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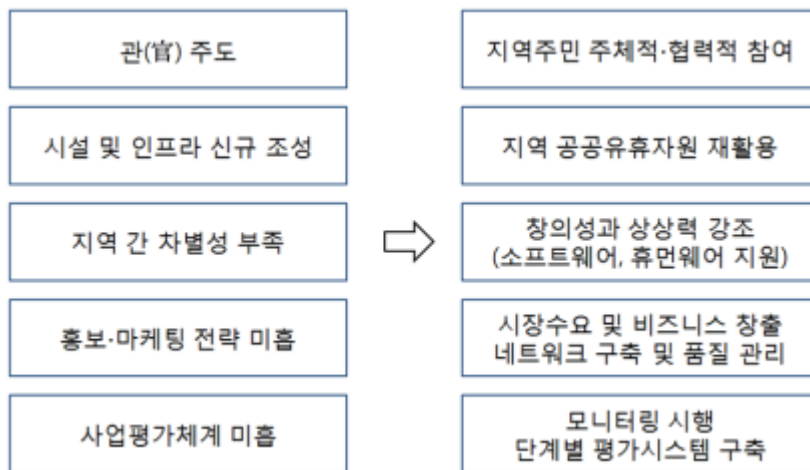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그림 2-30] 생태녹색관광지도

■ 관광두레 조성⁵⁾

-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 조성 중심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따른 운영실적 저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미흡을 극복하고, 주민 참여와 주민-관광객의 관계(Host-Guest) 형성과 지역문화 융성, 관광사업 창출과 경영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관광두레」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함
-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의 자산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활용, 공공의 유희자원을 재활용하고, 지역 관광사업 경영 공동체를 육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목적으로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그림 2-31] 관광두레 추진방향

- 관광두레 사업은 1단계: 지역진단 및 인식공유 → 2단계: 예비 관광두레 조직 → 3단계: 관광두레 창업 및 자립 → 4단계: 안정 성장 및 지속 발전을 통해 추진하며,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5) 문화체육관광부, 2013,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운영 공동체「관광두레」조성사업 기본계획(안).

[표 2-23] 관광두레사업 단계별 목표 및 사업내용

구 분	목 표	사 업 내 용
1단계	지역진단 및 인식공유	-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관광두레 잠재력 평가) - 두레프로듀서 선발 및 교육 - 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 실행계획 수립 - 지역주민 교육 및 워크숍
2단계	예비 관광두레 조직	- 교육, 훈련(전문인력 양성) - 관광사업 경영 공동체 조직(자치규약 제정 등) -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3단계	관광두레 창업 및 자립	- 맞춤형 교육, 훈련 - 관광상품 판매 - 홍보, 마케팅
↓ 평가 (자생력을 갖춘 관광두레 선정, 추가 지원)		
4단계	안정 성장 및 지속 발전	- 경영 다각화 및 수익 확대 - 관광두레 네트워크(가칭 '관광두레넷' 구성) - 홍보, 마케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 2013년부터 2023년(2월)까지 134개 지역, 1,062개의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북에서는 부안(2013년), 김제·남원·무주(2014년), 익산(2015년), 군산(2016년), 장수(2017년), 순창(2019년), 진안(2020년), 고창·임실(2021년), 전주·완주(2022년)에 선정된 바 있음⁶⁾

- 고창·임실·전주·완주는 현재 관광두레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

- 정부가 2016년,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한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 및 DMZ와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의 외곽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길임
-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길로 구성되는 해파랑길(동부연안), 남파랑길(남부연안), 서해랑길(서부연안)과 북쪽 경계의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광역자치체, 78개의 기초자치체를 통과하고 있음

6) 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두레 조성 현황('23.2현재)

- 노선 설정부터 한국의 대표 길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동호인, 역사·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음
- 또한 도보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관광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노선별 핵심거점 선정과 관광명소 연계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함
- 두루누미 앱(안드로이드 및 애플)을 통해 각 코스에 대한 정보(난이도, 위치, 교통편 등)와 여행 후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객을 위한 휴게공간과 짐 보관 서비스, 걷기 프로그램 및 이벤트,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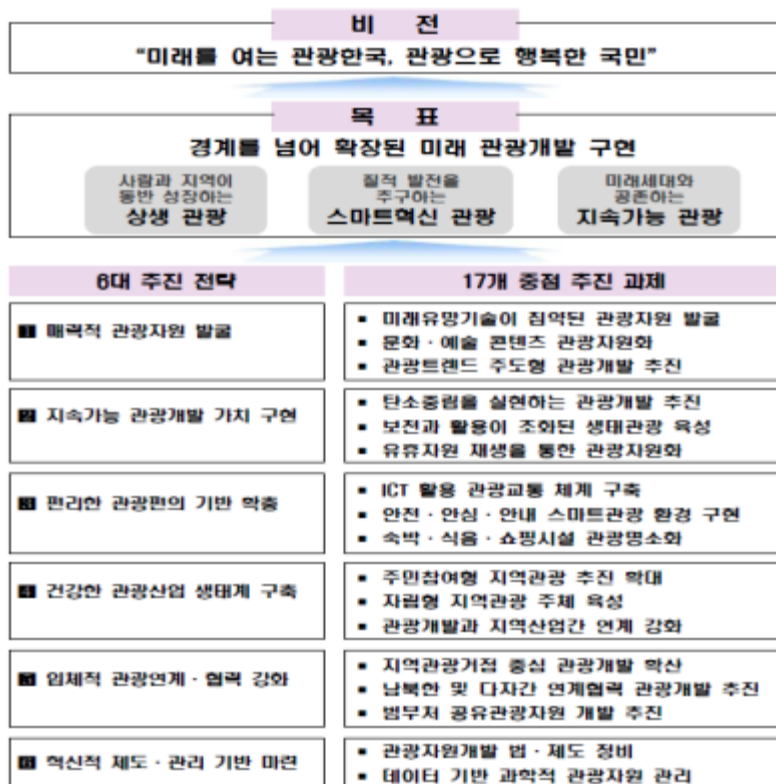
[그림 2-32] 코리아돌레길 개념 및 노선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마다 관광개발 미래상 실현을 위해 거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가 관광개발 전략과 지역관광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관광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하위계획인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의 거시적 방향성 제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등과 정합성 제고(국토계획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행)

- 관광개발 방향성을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석을 위해 지역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권역설정과 권역별 개발전략 수립을 제시함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그림 2-33]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생태관광과 관련한 과제는 전략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에서 1.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추진, 2.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3.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제시하였음
 - 준공 후 10년 경과한 관광지의 재생시 우수 재활용과 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통해 노후관광지 그 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소·전기버스, 드론, 전동카트 등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 갯벌 등의 습지 복원, 오염하천 정화 등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생태복원형 관광개발
 - 생태관광 광역루트로 동·서·남해안 및 DMZ와 접경지역 등을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사업
 -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세계지질공원, 국가정원 등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 또한 전략5,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에서 3.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통해 생태·산림·해양 치유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자원 육성을 제안함
 - 생태치유(환경부), 산림치유(산림청), 해양치유(해양수산부)
- 전라권 관광권역의 개발방향으로는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를 목표로 실감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갯벌과 랍사르 습지를 활용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제시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공동체, 복지, 환경, 귀촌인을 위한 점단위, 면단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관광농원

-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의미함
-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 관광농원의 규모는 100,000㎡ 미만이며 농어업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으나 농장, 사육장, 양어장 등 영농체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영농체험 시설 외 특산물판매시설, 체육, 휴양, 숙박시설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둘 수 있음

■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면단위 사업을 의미함
-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최소 30가구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생활안전, 기초인프라, 노후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안전 : 재해예방, 노후위험보수, CCTV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 상하수도, 재래식 개량
 - 주택정비 : 노후불량주택 개선 / 휴먼케어 : 청소년 상담
 - 소외계층 사업 홍보 등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사업 규모는 1만 5천㎡이상 100만㎡ 미만이며 농어업관련 전시관과 학습관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함. 그 외 판매시설과 체육 및 휴양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이 필수 시설임. 개발 면적은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업과 달리 시장·군수의 사업신고 절차만 필요하여 가장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표 2-24] 농림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비교

구 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자	· 제한없음 · 사업참여 자격규정 폐지	·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사업내용 (기본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60㎡이상) · 농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할 수 있음	·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조류·사육장·초·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 면적이 2,000㎡이상인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 이상일 것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규모	· 1만 5천㎡ 이상 100만㎡미만	· 100,000㎡미만	· 제한없음
지정절차	· 시장·군수 지정 · 시·군·구 농업·노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의 사업신고 확인
융자	· 별도 지원 없음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 이내 상환	

자료 : 농림부(2024). 각 사업 가이드 라인

4) 산림청

■ 관련근거 및 사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휴양법」 등에 따라 국가정원, 둘레길과 관련한 사업 추진

■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지정 사업

-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정원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 지방, 민간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가정원으로는 태화강과 순천만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정원은 전국에 총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이중 전북에 위치한 지방정원은 정읍구절초정원 1개소 임

■ 국가 숲길 지정 사업

- 국가 숲길이란 「산림휴양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길을 의미하며 총 7개의 국가 숲길이 지정되어 있음
 - DMZ편치불 : 강원 양구군
 - 내포문화숲길 : 서산, 당진, 홍성, 예산
 - 지리산 둘레길 :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 대관령 숲길 : 강원도 평창
 - 백두대간트레일 : 강원도 인제, 홍천
 - 웅진금강소나무숲길 : 경북 울진
 - 속리산 둘레길 : 충북 보은, 괴산, 문경, 상주
- 전북은 지리산둘레길과 연결성이 높음. 남원에 지리산둘레길이 연결되어있으며 인제 지리산 둘레길은 백두대간 트레일과 연결되어 있음

■ 백두대간 보호 사업

- 산림청은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백두대간보호 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백두대간 ~ 지리산에 이르는 1,400km 지역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고시함
- 각 구역에 대해 환경보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훼손지에 복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전북 지역은 1구간 : 천왕봉 ~ 지리산 ~ 여원재와 2구간 : 여원재 ~ 덕유산 ~ 덕산재가 지나가고 있음



출처 : 산림청

[그림 2-34]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5) 환경부 국가예산 변화

가) 환경부(자연보전국) 전체예산 추이('15 ~ '24)

- 생태관광과 관련한 환경부 사업은 자연보전국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 '15 ~ '24 년간 환경부 자연보전국이 확보한 국가예산은 평균 879억 원으로 나타남
-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이 예산은 습지보전관리와 도시생태축복원과 관련한 사업비를 전담함. 예산 출처에만 변화가 있을 뿐 자연보전국 1년 예산 총계는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과 R&D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모범은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기재부 중심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수립되어 있음. 다만 관련 부서가 기재부 외 환경부, 과기부, 국토부, 등 16개나 되고 추진사업이 152개에 달해 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임(ESG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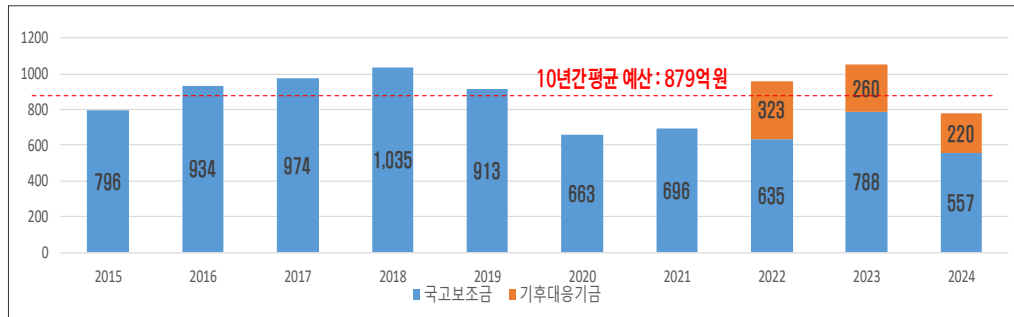
[표 2-25]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년도	국고보조금		기후대응기금	
	총 예산	사업명	총 예산	사업명
2015	796	· 습지보전관리, 국토생태네트워크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2016	934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관리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 자연생태공간조성 추가		
2017	974	· 생태휴식공간 확대 ·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추가		
2018	1,035	· 위 동		
2019	913	· 위 동		
2020	663	· 위 동		
2021	696	· 낙동강 생물자원관 관리사업 추가		
2022	635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국토생태네트워크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323	· 습지보전관리, 도시생태축복원사업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2023	788	· 위 동	260	· 위동
2024	557	· 위 동	220	· 위동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그림 2-35]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추이('15 ~ '24)

■ 사업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사용 현황('15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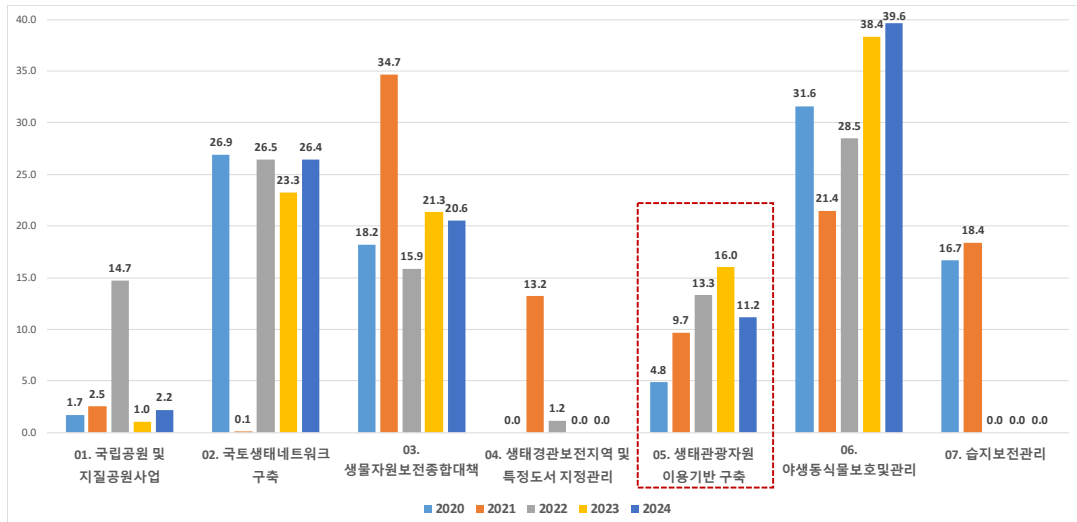
- 환경부 자연보전국 추진 사업은 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2. 국토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생물자원 보전종합대책, 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6.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7. 습지 보전관리 사업으로 구분됨
- 10년간 사업별 투입 예산 총액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896억, 32.1%)'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631억, 22.6%)' 순을 보임
- 생태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구축' 예산은 연간 100억 미만으로 10년간 사용 예산은 322억 전체의 11.5%으로 나타남. 생태관광과 관련한 사업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 외 자연보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6] 환경부(자연보전국) 사업별 국가예산 사용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0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02.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03. 생물자원 보전종합 대책	0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05. 생태관광 자원 이용기반 구축	06. 야생동식물보호및 관리	07. 습지보전관리	합
2020	억 원	7	111	75	-	20	131	69	413
	%	1.7	26.9	18.2	-	4.8	31.6	16.7	100.0
2021	억 원	15	1	210	80	59	130	111	605
	%	2.5	0.1	34.7	13.2	9.7	21.4	18.4	100.0
2022	억 원	77	139	83	6	70	149	-	525
	%	14.7	26.5	15.9	1.2	13.3	28.5	-	100.0
2023	억 원	7	162	149	-	112	268	-	698
	%	1.0	23.3	21.3	-	16.0	38.4	-	100.0
2024	억 원	12	146	114	-	62	219	-	552
	%	2.2	26.4	20.6	-	11.2	39.6	-	100.0
총	억 원	119	559	631	86	322	896	180	2,793
	%	4.3	20.0	22.6	3.1	11.5	32.1	6.5	100.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그림 2-36] 환경부(자연보전국) 사업별 국가예산 사용 현황

■ 사업별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15 ~ '24)

- 10년간 환경부(자연보전국)의 국가예산은 '경남 369억(13.2%) > 경북 364억(13.0%) > 강원 308억(11.0%) > 경기 307억(11.0%) 순을 보였으며 전북자치도는 280억(10.0%) 그 다음 5위를 기록 함
- '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광주(79억, 66.3%)에 '2.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충북(121억, 21.6%)에, '3.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은 경남(126억, 19.9%)에 집중되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0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은 경남(119억, 36.9%), 경북(65억, 20.1%), 두 지역의 합이 184억(57.0%)으로 경상도에 크게 집중된 모습을 보임
 -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비는 '0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총 사업비의 1.5%(5억) 밖에 되지 않음
- 전북자치도는 '0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이 집중 추진된 경향을 보임. '0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분야 총 사업비 86억원 중 18.7%(16억)을 교부받았으나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음

[표 2-27]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금액)

단위 : 억 원

구분	0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02. 국토생태네 트워크 구축	03. 생물자원 보전종합 대책	04. 생태경관보 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05. 생태관광 자원 이용기반 구축	06. 야생동식 물보호및 관리	07. 습지보전 관리	합
01. 서울	-	3	7	1	-	20	-	31
02. 인천	4	1	3	1	36	10	-	55
03. 대전	-	12	26	1	-	15	-	54
04. 광주	79	6	10	-	2	5	-	101
05. 부산	1	17	8	4	56	14	-	100
06. 울산	-	-	4	1	8	11	-	24
07. 대구	-	32	29	1	-	6	-	68
08. 경기	2	56	77	14	2	136	20	307
09. 충북	4	121	58	7	3	78	-	271

10. 충남	-	48	27	5	5	64	-	149
11. 전북	12	69	76	16	5	75	27	280
12. 전남	2	14	68	12	5	84	87	273
13. 경남	-	23	126	10	119	73	18	369
14. 경북	7	97	44	3	65	125	24	364
15. 강원	5	61	64	9	11	156	2	308
16. 세종	-	-	-	-	-	1	-	1
17. 제주	3	-	4	-	5	24	3	39
총합계	119	559	631	86	322	896	180	2,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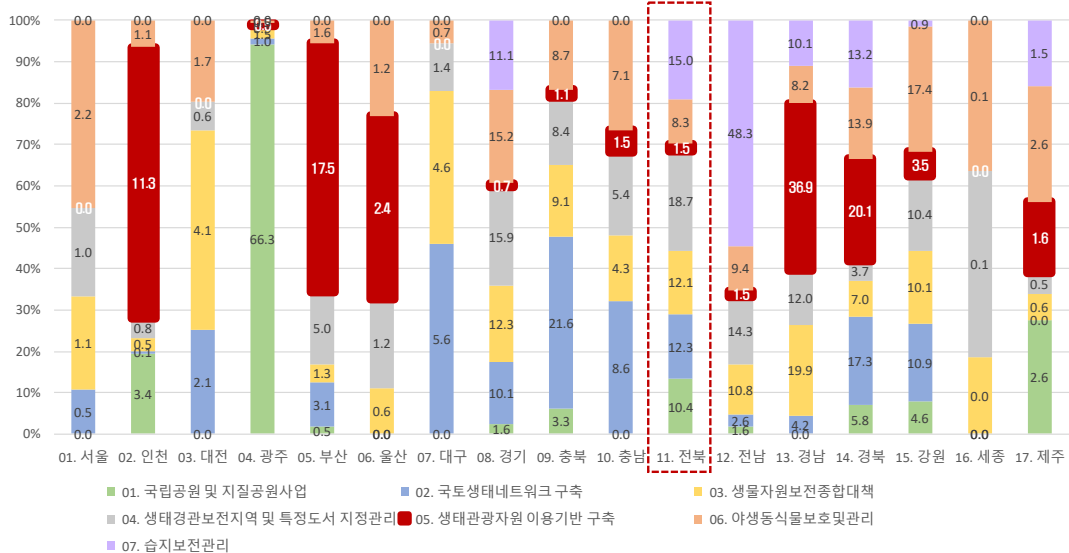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표 2-28]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

단위 : %

구분	0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02. 국토생태네 트워크 구축	03. 생물자원 보전종합 대책	04. 생태경관보 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05. 생태관광 자원 이용기반 구축	06. 야생동식 물보호및 관리	07. 습지보전 관리	합
01. 서울	-	0.5	1.1	1.0	-	2.2	-	1.1
02. 인천	3.4	0.1	0.5	0.8	11.3	1.1	-	2.0
03. 대전	-	2.1	4.1	0.6	-	1.7	-	1.9
04. 광주	66.3	1.0	1.5	0.5	0.5	0.5	-	3.6
05. 부산	0.5	3.1	1.3	5.0	17.5	1.6	-	3.6
06. 울산	-	-	0.6	1.2	2.4	1.2	-	0.8
07. 대구	-	5.6	4.6	1.4	0.0	0.7	-	2.4
08. 경기	1.6	10.1	12.3	15.9	0.7	15.2	11.1	11.0
09. 충북	3.3	21.6	9.1	8.4	1.1	8.7	0.0	9.7
10. 충남	-	8.6	4.3	5.4	1.5	7.1	0.0	5.3
11. 전북	10.4	12.3	12.1	18.7	1.5	8.3	15.0	10.0
12. 전남	1.6	2.6	10.8	14.3	1.5	9.4	48.3	9.8
13. 경남	-	4.2	19.9	12.0	36.9	8.2	10.1	13.2
14. 경북	5.8	17.3	7.0	3.7	20.1	13.9	13.2	13.0
15. 강원	4.6	10.9	10.1	10.4	3.5	17.4	0.9	11.0
16. 세종	-0	-	0.0	0.1	-	0.1	-	-
17. 제주	2.6	-	0.6	0.5	1.6	2.6	1.5	1.4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그림 2-37] 지자체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현황(%)

■ 전북자치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고보조금 교부액('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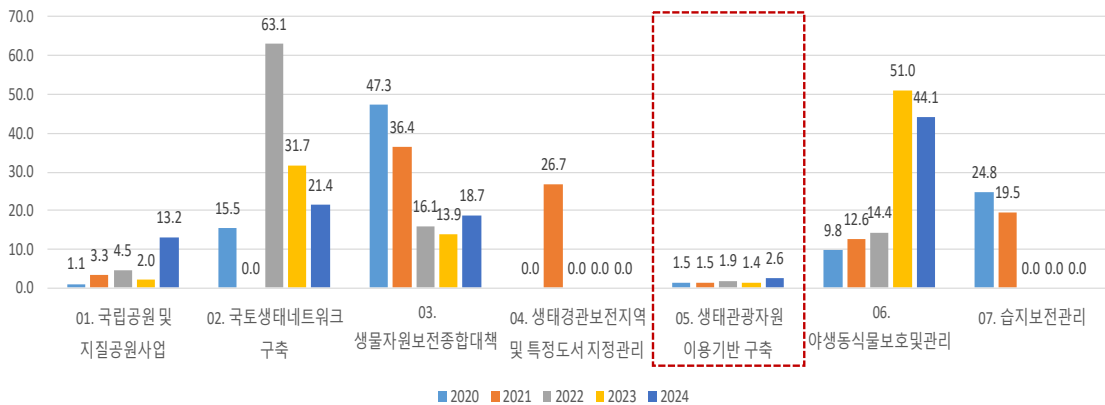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의 5년간 교부액은 279.8억으로 이는 전국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별로 교부받은 국비액이 큰 편차를 보임
- 생태관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구축' 사업 비중은 2020년 1.5%에서 '24년 2.6%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0% 미만의 낮은 비중을 나타냄
-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 총 교부액 74.7억원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음
- '3. 생물자원보정종합대책' 국비 교부액은 '20년 29.0억(47.3%)에서 '24년 9.1억(18.7%)까지 하락함

[표 2-29] 전북자치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액('20~'24)

단위 : 억 원, %

구분		01.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02. 국토 생태네트 워크 구축	03. 생물자원 보전종합 대책	04. 생태경관보 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05. 생태관광 자원 이용기반 구축	06. 야생동식 물보호및 관리	07. 습지 보전관 리	합
2020	억 원	0.7	9.5	29.0	-	0.9	6.0	15.3	61.4
	%	1.1	15.5	47.3	-	1.5	9.8	24.8	100.0
2021	억 원	2.0	-	21.9	16.1	0.9	7.6	11.8	60.2
	%	3.3	-	36.4	26.7	1.5	12.6	19.5	100.0
2022	억 원	2.0	28.0	7.1	-	0.9	6.4	-	44.4
	%	4.5	63.1	16.1	-	1.9	14.4	-	100.0
2023	억 원	1.3	20.8	9.1	-	0.9	33.4	-	65.4
	%	2.0	31.7	13.9	-	1.4	51.0	-	100.0
2024	억 원	6.4	10.4	9.1	-	1.3	21.4	-	48.4
	%	13.2	21.4	18.7	-	2.6	44.1	-	100.0
총	억 원	12.4	68.6	76.2	16.1	4.8	74.7	27.0	279.8
	%	4.4	24.5	27.2	5.8	1.7	26.7	9.6	100.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2024)

[그림 2-38] 전북자치도 환경부(자연보전국) 국가예산 교부액('20~'24)

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생태관광

■ 특별자치도 개념

-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책임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의 경제활동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에게 새로움과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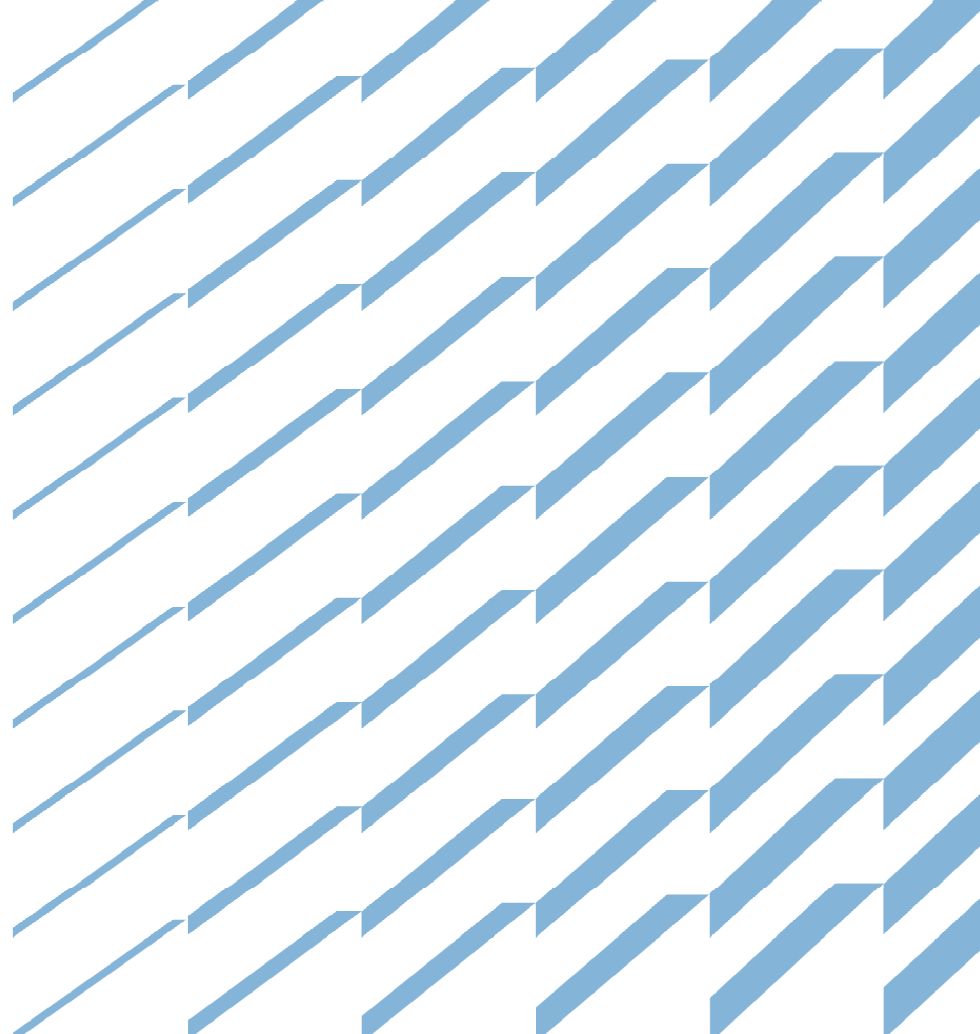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2024)

[그림 2-39]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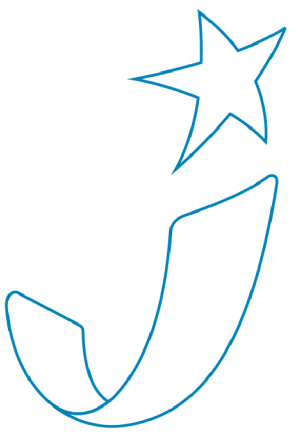
■ 생태관광 관련 특례

- 2024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효되면 생태관광 분야와 관련된 특례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이 시행되게 됨
-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는 전북지역, 특별히 산림자원이 많은 동부산악권의 특성을 잘 반영한 특례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역특화 산지관리 및 자연휴양림 등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인허가 의제,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적용 완화 특례)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산림복지지구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실시계획 도지사 권한 이양
-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 부문 특례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의 특례를 포함함
 - 도립공원 지정·관리 권한, 해제·축소 권한 이양



제3장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평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15~'24) 평가
 2.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운영
 3.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평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15~'24) 평가

가. 생태관광 사업 개요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부는 '15년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5호에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국가생태관광지'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기존 명칭: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민선6기('15년) 공약사업에서 출발했으며, 국가 정책에 맞추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도에서 주도한 생태관광 조성사업으로 의미가 있음
- 전북자치도는 '15년에 '1사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대상, 프로그램 및 경영방식, 수익모델, 마케팅 등에 대한 방법을 마련함

■ 추진 목적

- 전북자치도는 생태관광지를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염두에 두고 책임있는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라고 정의하고 생태관광지 시설의 5대 원칙을 마련함(전라북도, 2015)
 - 원칙 1. 기존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고 증진시켜야 함
 - 원칙 2. 주변의 자연문화 및 문화자원과 어울리도록 배치되고 디자인되며 관리되어야 함
 - 원칙 3. 관광객에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함

- 원칙 4. 대중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되,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 원칙 5. 소규모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함

■ 추진 내용 및 방법

- 생태관광지의 하드웨어 시설을 환경보전시설, 탐방시설, 지역사회 관련시설로 구분하고 탐방프로그램은 보존지역과 탐방객 출입구역을 분리하는 공간구상 기조를 수립함
- 생태관광지를 경영하는 방식은 마을협의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광두레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숙박, 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함
- 마케팅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해외 시장으로의 확대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체험, 숙박, 놀거리, 먹거리에서 상품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국내 생태관광 수요자는 인근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1차 대상으로 하였음
- 깃대종 연구, 생태체험, 교육, 전시, 편의기능을 결합한 '생태관광체험센터' 설립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위해 '16년 '전북특별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개소함

[표 3-1]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구상

생태 관광지 시설	기본 원칙	· 시설이 자연의 가치를 보여주고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 시설이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도록 배치되고 디자인되며 관리되어야 함 · 시설이 관광객에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생태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함 · 시설이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보장
	구성요소	· 환경보전시설 : 생태자원 보전과 관련된 시설 · 탐방시설(체험·교육시설 포함) : 탐방센터, 탐방로, 탐방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 지역사회 관련시설 : 마을센터, 숙박시설
프로 그램	기본 방향	· 환경보전지역(절대보존지역) : 탐방객 접근 금지 · 복원필요지역(제한출입지역) : 수용력 내에서 탐방객 허용 · 환경이용지역(전이지역) : 탐방활동, 공중이용, 마을시설 이용 허용
	가이드	지속가능성 확보,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책임있는 관광행동 유도, 지역참여 편익
경영방식	마을 협의회 / 마을 기업 / 협동조합 / 관광두레 방식	
수익모델	1. 숙박형 수익 : 농어촌 민박 활용 2. 먹거리형 수익 : 생태관광 식음문화 육성, 농가맛집 육성 3. 체험프로그램형 수익 : 오라체험, 교육체험, 치유 체험, 미적 체험	

출처 : 전북연구원(2023)

-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군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집행한 뒤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생태관광지의 유형은 생물자원의 특성, 경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함
 - 생물군락지형(장수, 고창) : 식물, 동물, 곤충 등 우수한 생물자원이 군락형성 지역
 - 지질공원형(진안) : 지질자원이 우수하여 국가지질공원(세계) 추진 가능지역
 - 경관자원형(군산, 김제, 완주, 순창)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 생태관광기반형(익산, 정읍, 남원, 무주, 임실) : 생태힐링, 생태교육, 공원 등 생태관광기반시설형
- 계획시점에서 주요하게 구상한 것은 ‘생태마을과 연계 지역주민 소득 창출’로, 주민공동체 결성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계획된 특성을 보임

■ 예산 계획 및 배분

- 생태관광지 예산은 초기 1개 시군이 한 해 8억씩, 9년 동안 총 72억 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비는 총 1,008억 원에 이르고 있음
 - 5:5로 매칭되는 시·군비를 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규모는 2,016억 원으로 추정됨(사업기간 ‘16~’23)
- 2017년부터 사업 평가가 시작되면서 한 해 8억 균등 지원에서 등급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군이 집행한 예산의 합과 사용내역 등급 결과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게 됨
 - S등급 : 12.7억, A등급 : 8.5억, B등급 : 4.4억, C등급 : 0.2억

2) 전북자치도 천리길 조성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북자치도 천리길 조성사업은 '17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위해 「전북 대표 천(1000)리길」 사업이 발굴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함
- '16년 이전 시점까지 시·군별 걷기길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길'에 대한 이미지는 미약한 실정이었음
- 천리길 조성사업은 전북자치도에 조성되어 있는 길 중 시·군별로 경관이 우수하고 스토리가 있는 대표길을 선정하여 '찾아오고 싶은 전북'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생태트레일'을 구축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음
- 새로운 길을 조성하기보다는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길 중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파급력이 큰 길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단순히 물리적 지정 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 디자인', '홍보', '마케팅' 방안 수립까지 주된 목적으로 삼음

■ 추진 내용 및 방법

- 천리길 조성뿐만 아니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첫 번째로 걷기행사를 추진함
 - 전북 대표 천리길 추진계획 자문, 전북의 우수한 대표길 추천 등, 대표길 추진을 위한 홍보, 디자인, 마케팅방안 자문을 위한 '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 14개 시군의 선정된 전북 대표 천리길 중심으로 걷기 좋고, 스토리가 살아있으며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함
 - 노선 정비 : 위험구간 정비, 편의시설 설치·정비, 회귀코스 개발 등
 - 안내체계 구축 : 안내판·이정표 설치 및 정비, 코스 및 교통편 안내 등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홍보물 제작 활용, 홈페이지 구축 및 SNS를 통한 홍보, 언론 및 방송과 협력한 집중 기획보도 및 기행기 연재를 계획함

- 민간단체(길 동호회 중심) 와 연계한 걷기행사를 추진하고 전북 대표 천리길 중심 주요 여행상품 개발을 계획 함. 인접 시군 방문 걷기행사 개최, 이달의 아름다운 길 선정 등으로 방문 촉진을 도모함

■ 예산 계획 및 배분

- 천리길 조성사업의 예산은 초기 7.5억 원(도비 2.6억 원, 시군비 4.9억 원)으로 계획되어 길 정비 및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이를 도맡게 되면서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위탁비용으로 일부 이전됨
- 천리길 하드웨어 사업은 ‘천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었음. 천리길 생태숲 조성은 노선변 식재 관리와 휴게시설(정자) 설치가 주를 이룸
- 천리길의 소프트웨어 사업 ‘천리길 해설사 육성’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연간 2천만원 이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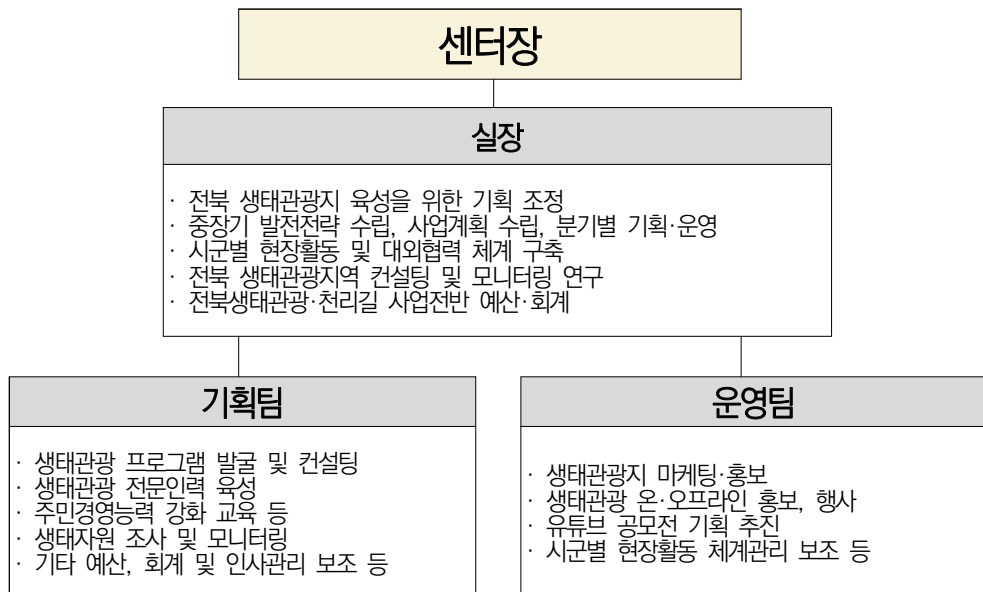
[표 3-2] 천리길 조성사업 예산 투입 내역

시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치	예산	위치	예산	위치	예산	위치	예산
	합계	28	합계	28	합계	4	합계	4
전주	천년전주마실길	2	건지산길	2				
군산	구불4길(구슬뒹), 구불5길(물빛길)	2	구불8길(고군산)	2				
익산	웅포곰개나루길	2	웅포곰개나루길	2				
정읍	정읍사오솔길 1코스	2	정읍사오솔길 2코스	2				
남원	지리산둘레길 1코스	2	교룡산둘레길	2				
김제	금구명품길	2	새만금바람길	2				
완주	고종시 마실길	2	운문골 마실길	2				
진안	용담댐 감동벼룻길 운일암반일암 숲길	2	용담댐 감동벼룻길 운일암반일암 숲길	2				
무주	금강변마실길 2코스	2	금강변마실길 2코스	2				
장수	방화동생태길	2	장수(장안산)마실길	2				
임실	옥정호 물안개길	2	옥정호 물안개길	2				
순창	선비의 길	2	강천산길	2				
고창	고창읍성길	2	고창읍성길	2	고창읍성길	2	고창읍성길	2
부안	적벽강노을길	2	적벽강노을길	2	변산마실길	2	변산마실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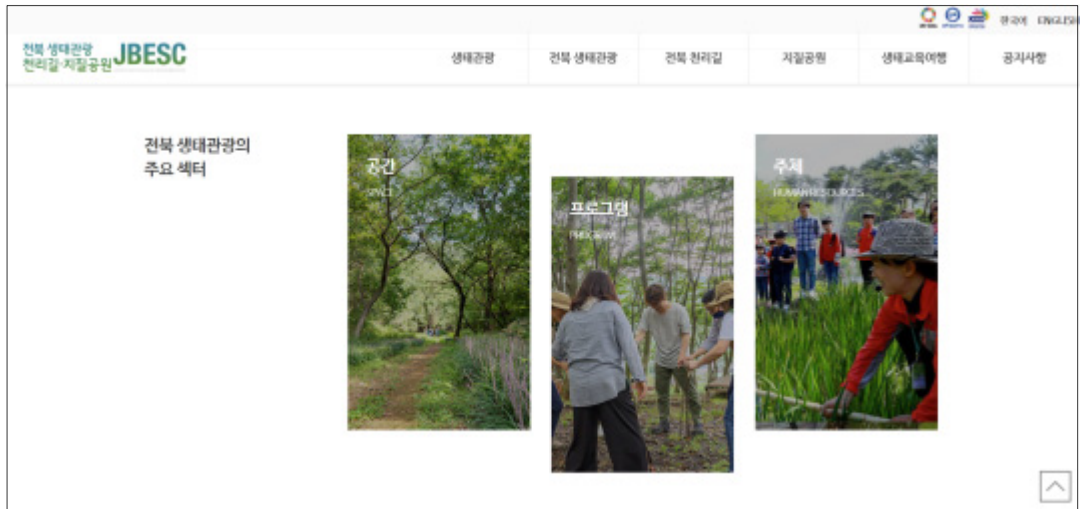
출처 : 전북자치도(2024)

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주체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전북자치도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천리길 조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함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탁사무 기관으로 2개팀(기획팀, 운영팀) 총 4명(상근 센터장 포함)이 근무하고 있음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첫 번째는 기획 업무로 생태관광지 육성에 대한 조정과 생태관광지 운영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음
 - 두 번째는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종합 마케팅 홍보로,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행사 및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 세 번째는 전문인력 및 교육 업무로 천리길 해설사와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 운영의 실 주체인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3-1]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업무 분장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그림 3-2]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생태관광 사업 추진경과 및 평가방법

1) 사업 추진경과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생태관광지 사업은 2016년 14개 시군이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1차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면서 부안군과 전주시가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2017년 이후 매년 1회 자체적인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평가 등급에 따라 S등급 12억, A등급 10억, B 등급 8억, C 등급 6억을 차등 배분하고 있음
- 2024년 6월 9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2025년에 최종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생태관광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전문인력 ‘에코매니저’를 육성하였으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천리길 조성사업

- 천리길은 2019년 14개 시군에 총 44개 노선이 선정되어 있으며 2019년에 천리길 해설사가 육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실제 천리길 해설사의 현장 활동은 2023년부터 이루어 짐
- 2020년 천리길 변 녹지를 정비하고 쉼터를 정비하는 ‘생태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생태 숲 조성사업은 시군별 약 2억 규모로 추진됨
- 천리길은 완주 인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태관광지원센터가 통합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와 같은 자체 평가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표 3-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및 '천리길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년도	전북	시군
2015	· 생태관광지 - 민선6기 공약"1시군 1생태관광지(도 MP)	
2016	· 생태관광지 -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 라인 용역 - '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가이드라인 확정 - 14개 생태관광지 선정 완료 -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개소	· 생태관광지 - 시·군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군 MP)
2017	· 생태관광지 - 1차평가(사업 이해도 및 추진력 점검) - 전문가 컨설팅(마스터플랜 검토) - 2차평가(성장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결정)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정 · 천리길 -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전북 대표 1000리길」 사업 착수(예산 확보)	· 생태관광지 - 부안, 전주 사업 제외
2018	· 생태관광지 - 3차 평가 (2017년도 사업) · 천리길 - 14개 시군 44개 노선 선정 완료	· 생태관광지 - S 12억, A 10억, B 8억, C 6억 차등 배분, 집행
2019	· 생태관광지 - 4차 평가 (2018년도 사업) - 에코매니저(생태관광 해설사) 육성 · 천리길 - 천리길 해설사 지원 근거 마련	· 생태관광지 - S 12억, A 8억, B 4억, C 미지급 차등 배분, 집행
2020	· 생태관광지 - 5차 평가 (2019년도 사업)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전북연구원) · 천리길 - 생태숲 조성사업 1차	· 생태관광지(이후 계속) - S 12억, A 8억, B 4억, C 미지급 차등 배분, 집행 · 천리길 - 시군별 천리길 해설사 활동 시작
2021	· 생태관광지 - 6차 평가(2020년도 사업) - 완주, 김제 인프라사업지원 종료	
2022	· 생태관광지 - 7차 평가(2021년도 사업)	
2023	· 생태관광지 - 8차 평가 (2022년도 사업)	· 천리길 - 시군별 천리길 해설사 활동 시작
2024	· 생태관광지 - 9차 평가예정(10개년 사업 종합 평가) - 1단계 생태관광육성지원사업 종료	

출처 : 전북연구원(2023),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일부 수정 인용

2) 사업 평가방법

- 생태관광지 평가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여 매년 하반기에 진행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함
- 평가 내용은 해당연도 생태관광 추진 사업 결과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정 평가하고 평가 방법은 지자체가 작성한 평가자료와 현장 검증을 병행하고 있음
- '19년 이전에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다 '20년 이후에는 공동지표 11개를 발굴하여 매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음

[표 3-4]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자체 평가 항목

시기	평가 배점 항목
2018 (8항목)	1. 사업의 계획성 1-1 사업계획의 충실성, 1-2 경쟁력있는 콘텐츠 확보, 1-3 추진의지
	2. 추진 적극성 2-1 예산집행 실적, 2-2 예산집행 효율성
	3. 운영 가능성 3-1 홍보실적, 3-2 지역주민 참여도, 3-3 파급효과
2019 (10항목)	1. 사업의 계획성 1-1 경쟁력있는 생태자원, 1-2 기존추진사업의 효율성, 1-3 사업실행계획의 충실성
	2. 집행 효율성 2-1 예산집행 실적, 2-2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2-3 지자체 추진의지
	3. 운영 가능성 3-1 홍보, 3-2 지역주민역량 강화, 3-3 주민참여 가능성, 3-4 방문객 유치 및 소득
2020 이후 (11항목)	1. 공동지표 1-1 기존 추진사업의 효율성, 1-2 사업실행계획의 충실성, 1-3 예산 집행 실적, 1-4 홍보
	2. 자원 우수성 2-1 경쟁력 있는 생태자원, 2-2 자원과 기반시설의 조화
	3. 시장성 3-1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3-2 방문객 유치 및 소득
	4. 주체성 4-1 지자체 추진 의지, 4-2 에코매니저 운영 4-3 주민과 소통 및 협업

출처 : 전북연구원(2023)

다. 생태관광 사업 평가(2015~2024)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가) 예산 및 집행액

- 2016년부터 2024년(추정)까지 8년간 투입 예산의 총합은 65,982백만 원으로 나타남. 시군별로는 고창군(105억) > 장수군(99억) > 정읍시(80억) > 남원시(76억) > 임실군(71억) > 익산시(63억) > 진안군(53억) > 군산시(46억) > 무주군(41억) > 완주군(39억) > 순창군(33억) > 김제시(19억) 순을 보임
-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고창군(105억) 대비 가장 낮은 사업비가 투입된 김제시(19억)예산은 약 5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2017년부터 S-A-B-C-D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결과에 원인이 있음
- 투입 예산 대비 집행액은 고창군, 장수군,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익산시, 순창군 7개 시군이 100.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 반면 군산시의 집행률이 45.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군산시 외 진안군, 무주군, 완주군, 김제시의 집행률은 80% 미만으로 시군별 큰 편차를 보임

나) 사업내역

- 12개 시군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내역은 마스터플랜수립, 지중화 및 기반공사, 탐방문센터 신축, 탐방로 및 걷기 길 정비, 생태체험공간(시설) 정비 등으로 분류됨
- 남원시가 올해 계획한 '백두대간 생태관광 홍보간판 및 운영프로그램 정비', 임실군의 '상이암 마을 정비' 외 모두 유사한 내용의 하드웨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 군산시는 2019년 '생태체험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최종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78백만 원을 반납함. 사업취소의 원인은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내부 갈등에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남(전북자치도, 2024)

[표 3-5]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투입 및 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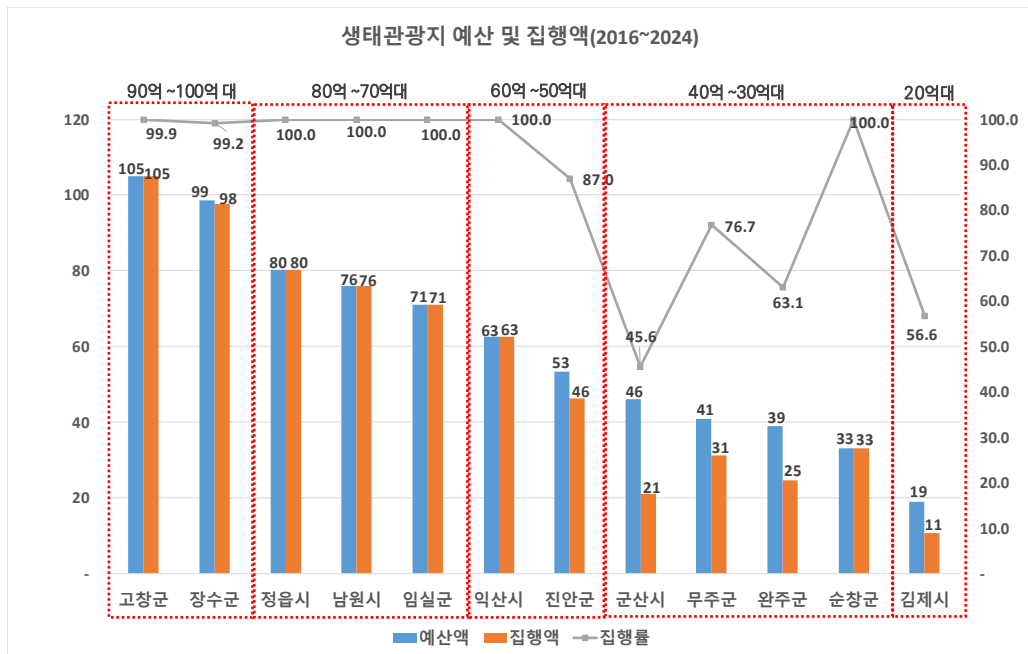
시군	사업명	규모	사업기간	사용 예산(백만원)
총 계			2015 ~ 2024	65,982
고창	운곡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22km	2015 ~ 2024	1,388
	운곡습지 생태공원 조성	15ha	2016 ~ 2024	5,310
	운곡습지 생태개울 복원	1.2km	2017 ~ 2019	1,400
	운곡습지 생태마을 조성	5,500㎡	2018 ~ 2020	1,096
	계절화군락지 조성	8,500㎡	2020 ~ 2021	1,300
	합계			10,494
장수	트레킹 노선정비 및 생태온실 기반공사	1식	2016	800
	야생화단지 탐방로 데크로드 및 생태온실 건축	1식	2017~2018	898
	탐방로 정비 및 쉼터 조성	1식	2018~2019	1,796
	탐방로 정비, 방문자센터 신축	1식	2019~2020	1,147
	자작나무숲 조성	1식	2020~2021	1,190
	숲체험원, 마을체험학습공간, 방문자센터 증축	1식	2021~2022	1,180
	남생이 서식지 조성, 체험관 전시물 제작 등	1식	2022~2024	1,600
	탐방로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등	1식	2024~	1,200
	합계			9,811
정읍	내장 생태마루길 조성사업	L=269m	2016 ~ 2018	1,698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 용역	용역 1식	2015 ~ 2016	59
	솔티숲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A=4000㎡	2019 ~ 2019	469
	솔티숲옛길 복원사업	L=1.1km	2018 ~ 2019	184
	월영습지 자연탐방로 개선사업	L=1km	2018 ~ 2019	479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건립사업	3,000㎡	2020 ~ 2023	3,603
	내장산조각공원 지중화공사	L=200m	2020 ~ 2020	132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다목적실 증축공사	A=54㎡	2023 ~ 2024	146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1식	2023 ~ 2024	226
	국가생태탐방로(성지길) 조성사업	L=1.9km	2022 ~ 2024	427
	월영습지~솔티숲 탐방로 조성사업	L=0.8km	2024 ~ 2025	180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일원 지중화공사	L=400m	2024 ~ 2024	413
	합계			8,016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1식	2015.~ 2016	53
	백두대간 생태관광 예코루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	용역1식	2016~ 2016	39

	백두대간 생태관광 예코루지 조성사업	4동 6실	2016 ~ 2017	792
	백두대간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1식	2017 ~ 2017	35
	백두대간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	L=3,655m	2017 ~ 2017	711
	백두대간 생물테마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1식	2018 ~ 2018	50
	백두대간 생물테마전시체험시설 조성공사	482.08㎡	2018 ~ 2021	1,754
	백두대간 휴게온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1식	2019 ~ 2019	19
	백두대간 휴게온실 조성공사	-	2020 ~ 2020	319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 실시설계용역	용역1식	2021 ~ 2021	79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실시설계용역	용역1식	2022 ~ 2022	81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	용역1식	2021 ~ 2022	915
	백두대간 에코큐브 지붕 설계용역	용역1식	2024 ~ 2024	18
	백두대간 에코큐브 우수관로 공사	공사1식	2024 ~ 2024	3
	백두대간 에코큐브 지붕공사	공사1식	2024 ~ 2024	150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공사1식	2023 ~ 2024	1,416
	백두대간 에코큐브 올빼미관 리모델링	공사1식	2024 ~ 2024	500
	백두대간 생태관광 홍보간판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1식	2024년 중	666
	합계			7,600
입실	조경식재	공작단풍 외	2017 ~ 2028	616
	데크로드 및 도로정비, 부대공사	8,100㎡	2016. ~ 2017	1,348
	아침맞이길	2.2km	2018. ~ 2018	1,286
	방문자센터	398㎡	2019 ~ 2021	2,020
	편백나무힐링공간	6,000㎡	2021. ~ 2021	745
	생태수목원	14,000㎡	2021 ~ 2024	1,072
	상이암 및 마을 정비	3개소 등	2021 ~ 2021	13
	합계			7,100
익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수립용역	계획수립	2015. ~ 2015	53
	생태탐방로 조성(수변데크)	L=370m	2016	1,578
	수변림 및 조류관찰대 조성사업	L=198m	2021 ~ 2022	330
	생태학습원 조성사업	A=493㎡	2019 ~ 2024	2,138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A=1,930㎡	2022 ~ 2023	1,168
	에코캠핑장 조성사업	A=1,253㎡	2022 ~ 2024	218
	생태숲 조성사업	A=5,800㎡	2024 ~ 2024	768
	합계			6,253
진안	자전거 탐방로 정비	L=7.5km	2016 ~ 2016	793
	사자골 지질탐방로 정비	L=1.5km	2016 ~ 2016	

	섬진강 생태습터(수선루) 조성	L=4,299m ²	2016 ~ 2016	
	화전교 지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L=860m	2017 ~ 2018	982
	진안군 지오파크(지오숲) 조성사업	L=9,800m ²	2019 ~ 2019	899
	은천생태마을 방문자센터 신축	A=288m ²	2020 ~ 2022	543
	은천생태마을 경관디자인 개선	L= 551m	2022 ~ 2022	921
	마이산옛길 복원	L=260m	2023 ~ 2024	501
	합계			4,639
군산	원양길 조성, 화장실, 놀이마당	1식	2016 ~ 2017	796
	생태주차장, 진입숲길정비	1식	2017 ~ 2017	794
	육회습지복원, 생태학습장 조성, 조류관찰대조성	1식	2018 ~ 2018	800
	생태체험센터 건립(취소)	1식	2019 ~ 2021	-578
	수변산책로 조성, 탐방로, 경관조성	1식	2021 ~ 2022	-108
	야생차밭조성, 식생안내판, 수목표찰 설치	1식	2022 ~ 2023	394
	합계			2,098
무주	종합마스터플랜 및 반디랜드 전시 수족관 설치사업	A=400m ²	2015 ~ 2019	1,621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자연관찰로 조성사업 등	6,340m	2019 ~ 2020	800
	2020년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A=5,535m ²	2020 ~ 2021	400
	2022년 생태관광지 조경공사	A=5,535m ²	2022 ~ 2023	309
	합계			3,130
완주	트레킹코스, 연화공주정원 조성	2.98km	2016 ~ 2017	74
	싱그래이 숲 조성	5,000m ²	2017 ~ 2018	566
	एको정원 조성	3,100m ²	2018 ~ 2019	1,252
	체험관	194m ²	2019 ~ 2019	568
	합계			2,460
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조성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2015 ~ 2016	51
	벌동산 및 장군목 생태로 조성공사	식재 1,012주	2016 ~ 2016	337
	섬진강 수변생태로 조성공사	식재 482주	2016 ~ 2016	288
	장군목마실길 및 생태탐방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2km	2016 ~ 2016	24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사업	1,156m ²	2017 ~ 2018	741
	구암정주변 생태자원관찰로 정비사업	27,920m ²	2018 ~ 2018	454
	섬진강 장군목 생태오두막쉼터 조성사업	1,700m ²	2018 ~ 2019	408
	섬진강 장군목 에코 전시공간 조성사업	2km, 617m ²	2020 ~ 2022	1,002

	합계			3,305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1차) : 데크로드, 야생화 군락지, 전망대, 방문자 센터, 생태 탐방로, 생태 광장	210,591㎡	2016 ~ 2018	1,318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2차) : 신탄미산 생태 탐방로, 데크로드	16,351㎡	2019 ~ 2019	-242
	합계			1,076

출처 : 전북연구원(2023)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2024)

[그림 3-3] 생태관광지별 예산 및 집행액

다) 탐방객수 및 소득 창출)

■ 탐방프로그램과 에코매니저 활동

- 12개 생태관광지 모두 지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을 목표로 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상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에 편차가 발생함.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고창군이 ‘고창운곡람사르습지탐방’ 외 노르딕워킹, 오디, 반딧불이 체험 등 가장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체험관이 없는 군산시는 호수와 탐방로에서 설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3-6] 생태해설 프로그램 현황

시군	프로그램	장소/코스
군산	청암산 생태파수꾼이야기	청암산 군산호수 / 수변탐방로
	청암산 습지탐험대	청암산 생태학습장
익산	신나라의 씨앗 순환여행	서동농촌테마공원
	금마저수지 풀밭 생태계 곤충의 세계	서동농촌테마공원
정읍	초록(식물) 원정대	조각공원-솔티숲 일대
	옛길 소리투어 (에코버딩)	조각공원-솔티숲 일대
	솔티모시떡만들기	체험센터
남원	나비 나비 날아든다	백두대간체험전시장 / 덕산제 전망대
	지리산 에코힐링 잔치에 초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김제	공존의 생명터 논과 둠벙 사대	김제 논습지
	논과 둠벙의 식물나라	김제 논습지
완주	비밀의 숲 “싱그랭이”	화암사
	석부작 만들기	싱그랭이 에코정원
진안	마을숲 생태학교 식물돋보기	은천마을 숲
	마을숲 생태학교 물속 생물 돋보기	은천마을 숲
무주	반디랜드 수족관 먹이주기	반디랜드 일원
	반디랜드 일원 수생생물 생태설명회	반디랜드 근처 하천

7) 본 평가는 매년 평가를 위해 해당시군이 제출하는 ‘생태관광지 평가자료’를 참고함

장수	뜬봉샘 금강첫물길	뜬봉샘생태공원 일원
	깊은산속 웅달샘에 요정이 살아요	뜬봉샘생태공원 일원
임실	왕의 숲 물길따라 여행	성수산 왕의 숲 탐방로
	물길따라 마음 쉽	정자, 탐방로 광장
고창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탐방	고창운곡습지 일원
	노르딕워킹	고창운곡습지 탐방로, 조류전망대
	용계마을 오디따기, 누에 먹이주기	운곡습지마을
	반딧불이 생태여행	운곡습지
	송암마을 솔잎 족욕체험	송암마을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에코매니저의 활동은 년도별, 시군별 큰 편차를 나타냄. 정읍시가 2023년 95회 가장 많이 활동한 반면, 남원, 김제, 임실, 무주 등에서는 에코매니저가 단 한번도 활동하지 않는 년도가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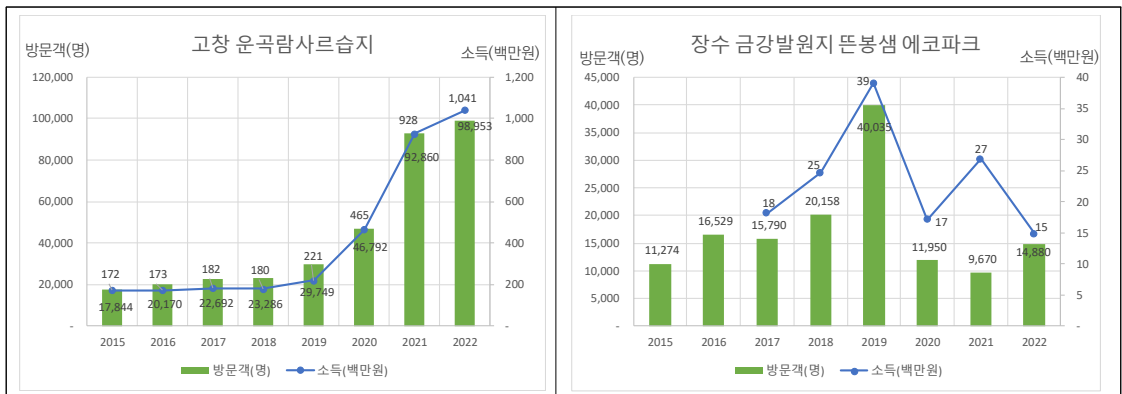
[표 3-7]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 활동 현황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군산	7	57	42	17	17	7
익산	24	34	4	19	6	22
정읍	25	8	25	19	11	95
남원	5	0	4	12	2	8
김제	5	0	17	10	0	3
완주	4	2	9	10	1	0
진안	3	16	16	23	3	44
무주	1	0	6	28	27	30
장수	25	51	29	51	6	22
임실	11	11	33	19	0	31
순창	7	11	5	3	3	1
고창	20	23	54	103	37	12
합계	137	213	244	314	113	275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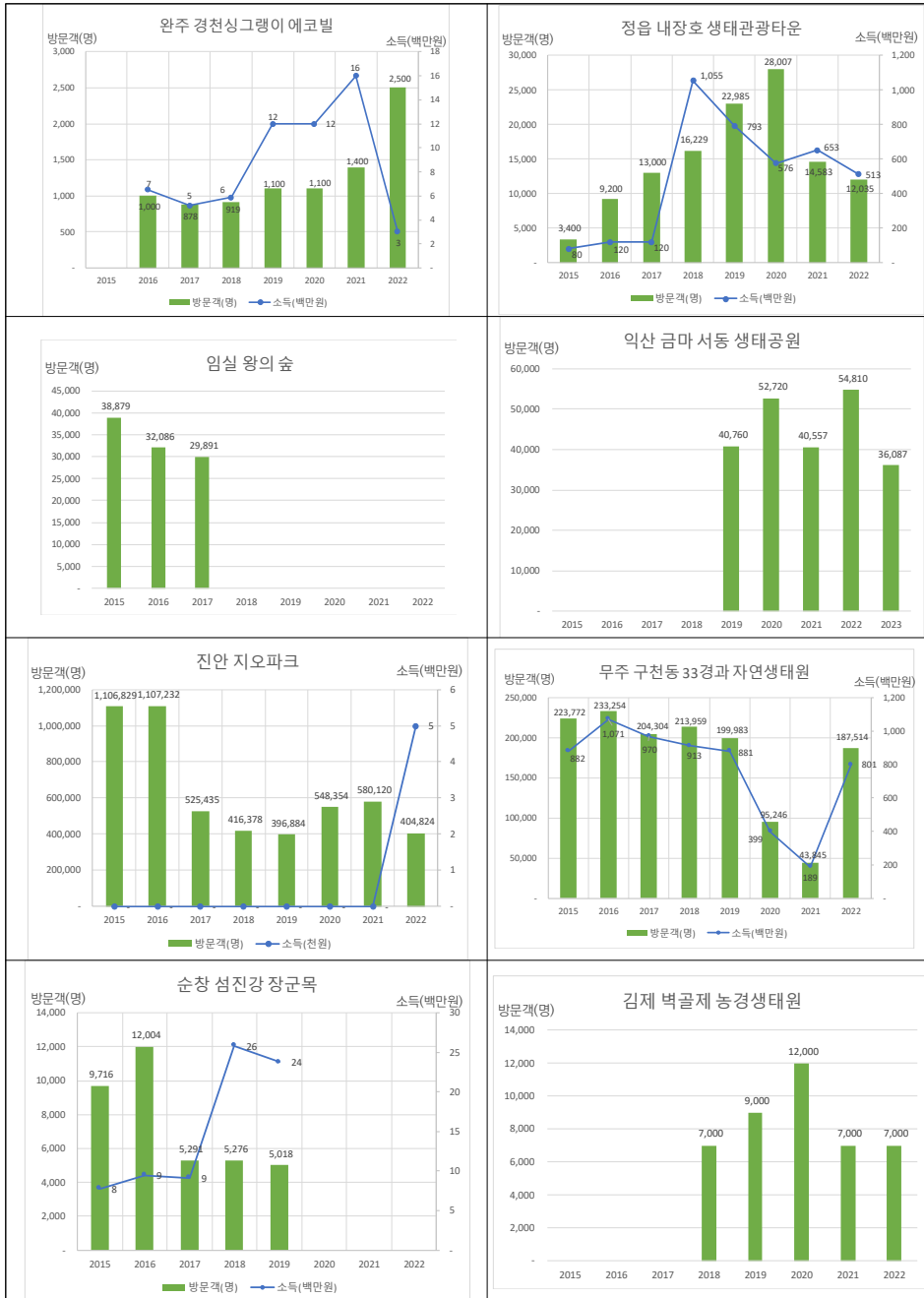
■ 탐방객수, 소득

- 탐방객 수와 소득 창출 모두가 상승한 지역은 고창이 유일하며⁸⁾ 임실, 익산, 김제는 주어진 평가자료를 토대로 소득 창출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임실은 현재 타부처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 숙박,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분야 소득이 발생 될 예정이며 익산과 진안은 숙박시설이 부재하고 먹거리를 판매할 주민조직이 육성되지 못함
- 장수군은 2019년, 정읍시는 2020년 방문객 수와 소득이 최저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섬. 그러나 해마다 방문객 수와 소득수를 측정한 방법이 차이를 보여 실제 방문자와 소득이 하락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군산시는 타 사례와 달리 2015년 최초 조성시점에 방문객 수가 20만명대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10만대로 하락함. 소득은 큰 편차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8) 방문객 및 소득 파악 방법

- 방문객은 무인계측기, 교육관 입장객, 숙박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4개의 항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읍, 김제, 진안, 장수 군은 활동일지 등을 통한 추정치임
- 소득은 로컬푸드 판매장, 생태밥상, 체험프로그램, 축제 항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소득 포함, 생태관광지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고창, 장수, 완주, 정읍 4개 지역만이 생태밥상으로 인한 먹거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군산은 생태밥상은 없으나 특산물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 전북연구원(2023)

[그림 3-4] 12개 생태관광지 '16~'23년 방문객 수 및 소득 현황

■ 경영 및 수익모델 창출 현황

- 고창군이 마을협의회 외 국가생태관광지와 관련한 협의회, 협동조합, 지역관리 위원회가 출범되어 있으며 완주군은 영농조합법인이, 정읍시는 생태관광협동조합이 출범함
- 나머지 시군은 출범한 공동체가 없거나 초기협의회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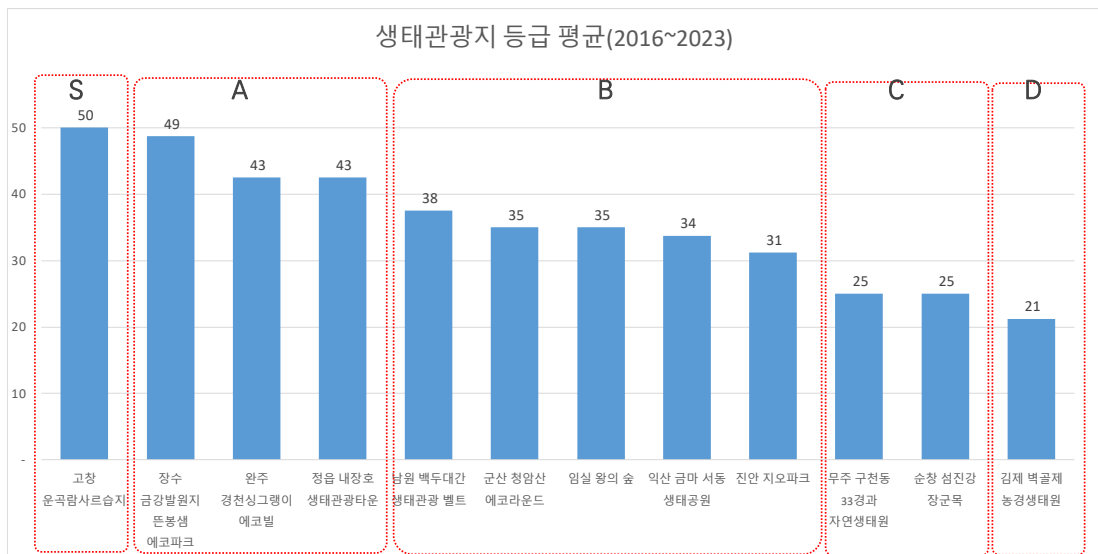
[표 3-8] 생태관광지 경영 및 수익모델 창출 현황

시군명	경영방식	수익모델		
		숙박형	먹거리형	체험프로그램형
고창군	· 마을협의회 ·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 · 고창운곡람사르습지습지도시추진 지역관리위원회	·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 생태밥상(용계, 부귀), 생태음식만들기, 토요장터, 우리동네 텃밭요리, 봄 풀꽃전 요리, 오디 수제비 만들기, 오디 빙수만들기	· 습지생태학교 외 20개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 마을협의회	-	· 생태밥상	· 뜰봉샘에서 놀자 외 17개 프로그램
완주군	· 싱그래이 영농조합법인	-	· 두부체험	· 숲체험, 약화 양초체험
정읍시	· 솔티 주민협의회 · 생태관광협동조합	-	· 솔티애떡 떡체험 · 솔티 시골밥상	· 마을역사체험 습지탐방 등
군산시	· 마을협의회	-	· 옥산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 에코메니저육성, 체험프로그램, 생태관광 축제 부스운영
남원시	· 마을협의회	· 생태관광 에코로터지	-	· 곤충교실 특별전 외 14개
임실군	· 마을협의회	-	· 생태밥상	· 천연 염색 외 3개 프로그램
익산시	· 마을협의회	-	-	· 에코메니저 육성
진안군	-	-	-	· 숲속 지질놀이 외 1개
순창군	· 주민협의회	-	-	· 마을탐험대 외 1개
무주군	-	-	-	· 수족관 학습체험
김제시	-	-	-	-

출처 : 전북생태관광광육성지원센터

라) 종합 평가등급

- 종합 평가등급은 S-50점, A-40점, B-30점, C-20점, D-10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으로 평균 등급을 산정함
- 그 결과 고창군이 6년 연속 평균 S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A 등급을 받은 지역은 장수, 완주, 정읍 3개, 평균 B 등급을 받은 지역은 남원, 군산, 임실, 익산, 진안으로 나타남
- 순창과 무주는 평균 C 등급을, 김제는 평균 D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2023)

[그림 3-5] 생태관광지 평가등급 평균('16~'23)

2) 천리길 조성사업

가) 천리길 해설사

-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리길 해설사는 총 51명으로 시·군 당 약 1~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의 해설사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정읍시와 순창군은 해설사가 각 1명으로 적게 나타남

[표 3-9] 천리길 해설사 활동 현황

시군명	천리길해설사(명)	시군명	천리길해설사(명)	시군명	천리길해설사(명)
전주시	6	김제시	3	임실군	2
군산시	4	완주군	4	순창군	1
익산시	5	진안군	3	고창군	5
정읍시	1	무주군	6	부안군	2
남원시	3	장수군	6	총계	51명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천리길 해설사들의 활동 실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37건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군 132건, 전주가 129건의 순을 보이고 있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활동 실적이 162건 기록
- 반면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의 3개년도 활동 실적은 총 10건을 넘지 못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천리길 해설사 활동 실적

년도	군산	장수	전주	김제	완주	진안	무주	남원	고창	익산	임실	부안	순창	정읍	합계
2020	42	58	18	28	40	5	16	5	11	5	0	1	2	0	231
2021	162	40	53	29	36	19	19	19	11	6	3	5	3	2	407
2022	75	34	58	41	10	27	14	11	6	10	9	1	0	3	299
합계	279	132	129	98	86	51	49	35	28	21	12	7	5	5	937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나) 천리길 완주 현황

- 천리길 완주는 2021년 5명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2023년 완주자가 전체 100명도 넘지 않음
- 시군별 천리길 완주자는 2023년 기준 평균 13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완주자에게 경품지급 외 참여경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지 않아 완주자 통계 외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3-11] 천리길 완주자 현황

연도별	완주 인원(명)	거주지	
		도내(명)	도외(명)
2021	5	3	2
2022	29	9	20
2023	62	32	30
총계	96	44	52

출처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3) 종합평가

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초기 계획 및 구상 준수 미흡

- 사업 초기 계획인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마스터플랜(MP),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과 별개로 사업이 추진 됨
- 마스터플랜에 따라 년도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별 큰 편차가 발생함
- 종합 마케팅, 상품화를 계획하였으나 추진주체가 시군으로 넘어가면서 적극성이 저하된 지역이 발생함

■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조성

- 시·군별로 생태관광 사업 아이템이 초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사업에 비해 일부는 미 추진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초기 방향을 상실함
- 12개 지역 대부분 사업 내용은 길 정비, 경관 식생 정비, 탐방로 신설, 생태체험관 신축에 초점을 둠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부족

- 생태밥상 등 소득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소득에 큰 편차를 보임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에코매니저활동에 시군별 큰 편차를 보임

■ 제한적인 평가/환류, 수요자 입장 반영 미흡

- 등급 평가가 예산 차등 배분에 대한 근거로만 제시될 뿐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전문가, 서면 및 공급자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수요자 입장의 평가인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은 실시되지 않음
- 전북자치도 차원의 총괄 평가가 부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 한계를 보임

나) 천리길 조성사업

■ 평가/환류 체계 미구축

- 천리길 조성사업은 별도의 주기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체계가 미구축 되어 있어 운영 현황 파악과 미흡 사항에 대한 환류에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함

■ 총괄적 관리 부족, 시·군별 개별적 운영

- 각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천리길 운영, 투입되는 예산은 시설 조성(HW, 길 주변 조경 공사, 안내판 보수 등) 중심으로 집행됨
- 도 차원에서 방문객수 현황 파악, 수요자 만족도 파악,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천리길 해설사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관여 하고 있는 부분이 적음

■ 천리길 안내/홍보체계 운영 부족

- 당초 계획했던 ‘천리길 패키지’, ‘천리길 APP’은 운영되지 않아 길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구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천리길 조성사업
주요성과	• 도 차원의 체계적 예산지원/평가에 기반한 자체 생태관광지 조성 • 광역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설립 • 지역주민의 협력기반 조성(시·군 협의체 구성) • 국가생태관광지 지정(3곳), 세계 지속가능관광지 지정(고창)	• 도-시·군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천리길 사업 출범 및 브랜드 개발 •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 등 운영기반 확립 • 완주자 증가 등 도내 걷기 저변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
한계	• 일부 시군은 초기 마스터플랜과 다른 사업 추진 • HW, 시설 조성에 집중 • 시·군별 격차 발생 •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부족(수요자의 견반영 부족) • 타 분야(관광, 산림, 문화 등)와의 연계, 협력 부족 • 생태계 보전활동 참여 부족 • 개별 생태관광지 평가에 제한 → 전북 생태관광 발전방향 도출 부족	• 체계적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미흡 • HW, 시설 조성에 집중 • 시군의 적극적 운영 부족 • 걷기 길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부족 • 통합 홍보, 안내체계(APP) 운영 부족

[그림 3-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및 천리길 조성사업의 주요성과와 한계

2.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운영

가. 포럼 개요

■ 추진배경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생태관광 사업('25~'34)의 추진과 지역 특화형 생태관광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을 운영함

■ 개요

- 목적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사업 평가 및 고도화 전략 도출
- 도(행정), 중간지원조직, 연구기관,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
- 추진 : 총 3회 개최(4~6월)

■ 추진일정

[표 3-1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추진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시	주제
1차	'24. 04. 29(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전략 연구'('24.2~6월) 과제 개요 설명 1단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23) 성과와 시사점 발표
2차	'24. 05. 17(금)	전북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관광 분야의 발전방향
3차	'24. 06. 12(수)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나. 포럼 개최결과

■ 1차 포럼

- 일시/장소 : '24. 5. 17.(금) 15:00 ~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내외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4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김상욱 교수(원광대/산림생태),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조영호 본부장(남해문화관광재단/걷기길)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연구」과제 개요 설명,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23, 1단계) 종합평가 발표

■ 2차 포럼

- 일시/장소 : '24. 5. 17.(금) 15:00 ~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관광산업과 민동규 전문위원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2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김상욱 교수(원광대/산림생태),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조영호 본부장(남해문화관광재단/걷기길)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관광분야 발전방향

■ 3차 포럼

- 일시/장소 : '24. 6. 12.(수) 10:00 ~ / 전북연구원 컨퍼런스룸
- 참 석 자 : 10명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2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관광분야 발전방향



[그림 3-7]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개최 사진

3.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가. 설문 개요

1) 목적

- 생태관광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의 일선 공무원과 생태관광 에코매니저(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해설사(천리길)들의 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에 의해 매년 평가되는 항목에는 반영되지 않는 실제 운영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고, 에로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함

2) 설문 개요

- 기간: 2024년 5월 10일 ~ 5월 24일(2주)
- 대상 : 공무원(천리길 및 생태관광지 담당자), 해설사 (에코매니저, 천리길 해설사)
- 방법 : 공문발송 및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협조 후 구글 폼, 이메일 회신
- 회수 : 총 39부(공무원 16부 / 해설사 23부)

3) 설문 문항

- 설문 문항은 관광지 조성 및 운영, 예산 및 평가, 중간지원조직 및 생태관광지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구분되며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3] 시군 생태관광지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항목

대구분	소구분	문항
응답자특성		· 소속, 경력, 활동분야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 천리길 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	· 생태관광지의 가치 / 마스터플랜의 체계성 및 실효성 · 생태관광지 조성 정책의 일관성 / 생태관광지 주민공동체의 역량 · 도-시군-센터 협력정도
	예산 및 평가	· 사업비 차등방식의 합리성 / 등급별 예산액의 합리성 · 현 평가 방식의 합리성 / 평가항목의 적절성 ·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추진 경향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의 체계성 / 프로그램 만족도 · 해설사의 역량 / 방문객 만족도 · 소득증진 프로그램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		· 센터 컨설팅, 모니터링 도움 정도 / 센터 프로그램 개발 적극정도 · 센터 주민역량강화 지원 적극정도 / 센터 마케팅 홍보 효과 · 센터 인력과 예산의 적절성
생태관광지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		·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 / 생태관광지 고도화 및 중단의 필요성 · 신규생태관광지 지정 필요성 / 타 분야 사업 협력 필요성 · 경제효과 창출 시급성 / 자문기구 필요성 · 센터 확장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나. 설문 결과

1) 응답자 특성

- 설문은 총 39부가 회수됨. 에코매니저가 13부(3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응답자의 해당 현 업무 근무 년수는 공무원 그룹이 15개월(1년 3개월)을 나타낸 반면, 해설사 그룹은 58개월(4년 10개월)을 나타냄. 특히 생태관광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년 수가 모두 평균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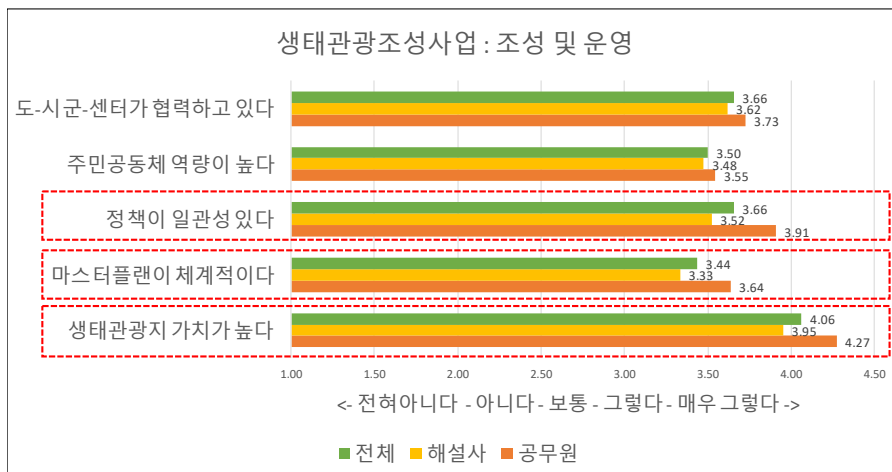
[표 3-14] 시군 생태관광지 담당자 의견수렴 설문지 응답률

구분		응답부수	비율(%)	평균 근무 기간(개월)
공무원	생태관광지 담당	10	25.6	9개월(0년 9개월)
	천리길 담당	5	12.8	22개월(1년 10개월)
	소계	15	38.5	15개월(1년 3개월)
해설사	에코매니저	13	33.3	56개월(4년 8개월)
	천리길 해설사	11	28.2	61개월(5년 1개월)
	소계	24	61.5	58개월(4년 10개월)
합		39	100.0	37개월(3년 1개월)

2)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설문 결과

■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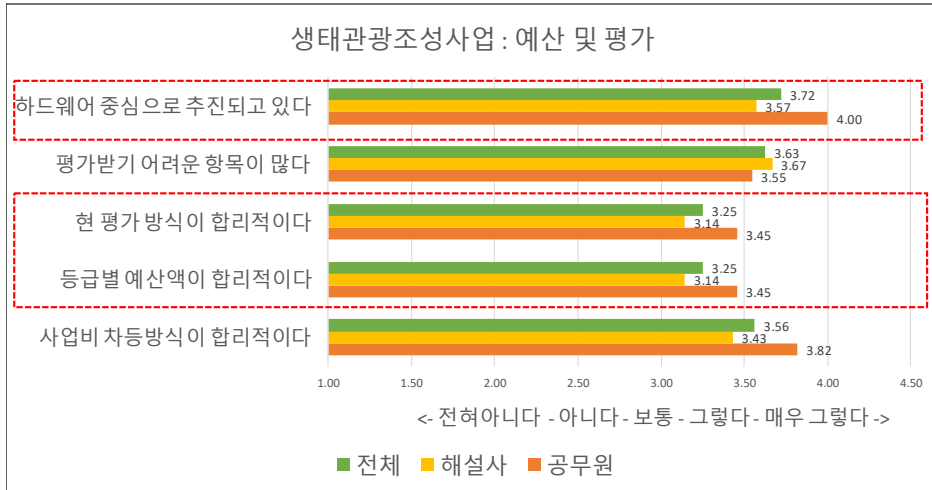
- 공무원 및 해설사 그룹 모두 생태관광지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체 평균 4.06점)
- 반면 마스터플랜의 체계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44점을 나타내었으며 해설사 그룹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해설사 평균 3.33점)
- ‘생태관광지 조성 정책이 일관적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설사 그룹 3.52점, 공무원 그룹 3.91점을 나타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냄



[그림 3-8]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평가

■ 예산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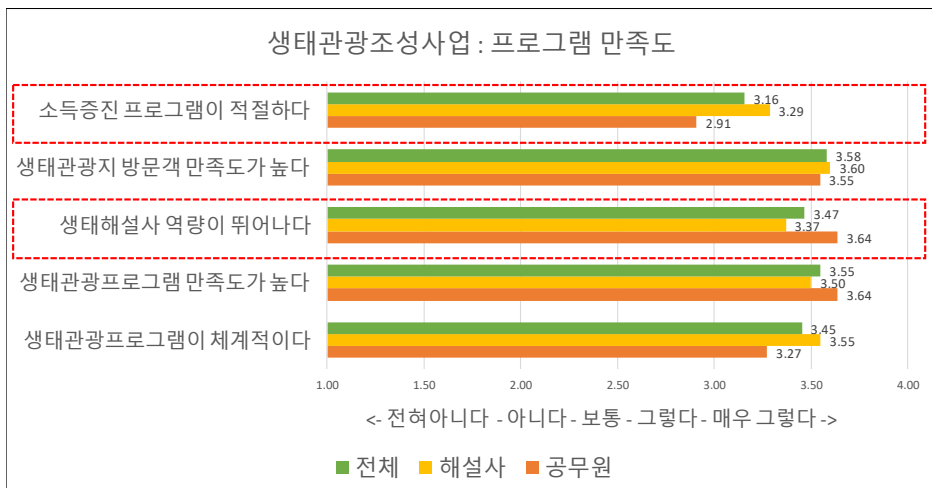
- ‘생태관광지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무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4.00점)
- 현 평가 방식, 등급별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25점을 나타냄. 특히 두 문항 모두 공무원보다 해설사 그룹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14점)



[그림 3-9]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예산 및 평가

■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무원 그룹이 소득증진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함(2.9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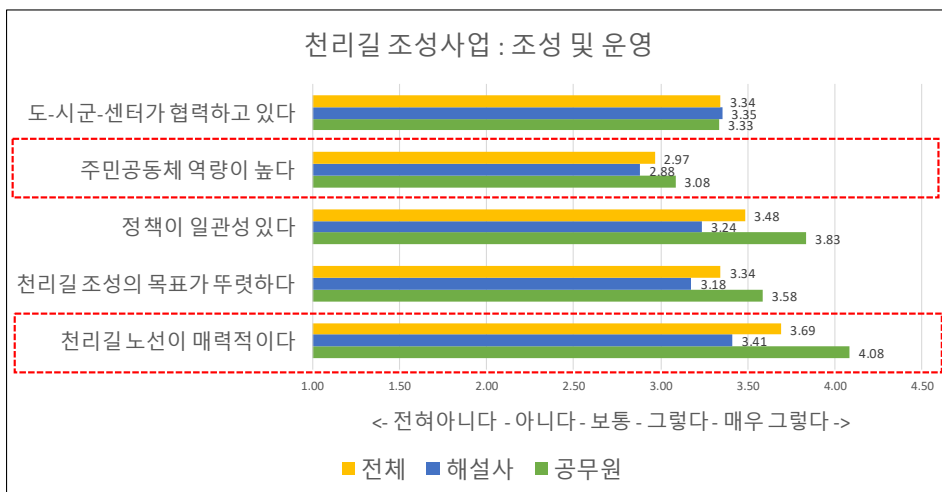


[그림 3-10]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 생태관광조성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3) 천리길 조성사업 설문 결과

■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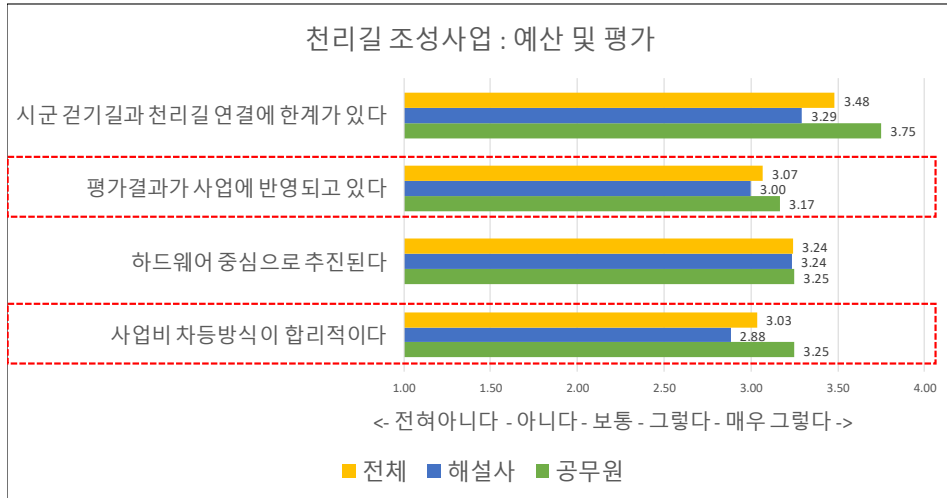
- 주민공동체의 역량에 대한 질문에 해설사 그룹이 2.88점으로 매우 낮게 응답함. 공무원 그룹역시 3.08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천리길 노선에 대한 매력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룹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08점)
- 천리길 조성의 목표가 뚜렷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설사 그룹이 3.18점을 보인 반면 공무원 그룹은 3.58점을 나타내 해설사 그룹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3-11]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결과 : 천리길 조성사업 조성 및 운영

■ 예산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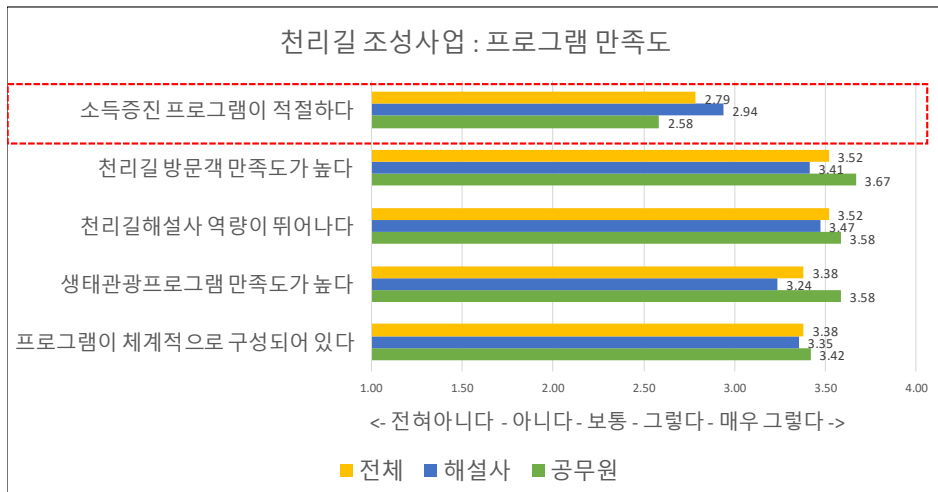
- ‘평가 결과가 사업비에 반영되는가’, ‘사업비를 차등하는 현 배분 방식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설사 그룹이 평균 3.00점, 평균 2.88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천리길 조성사업 예산 및 평가

■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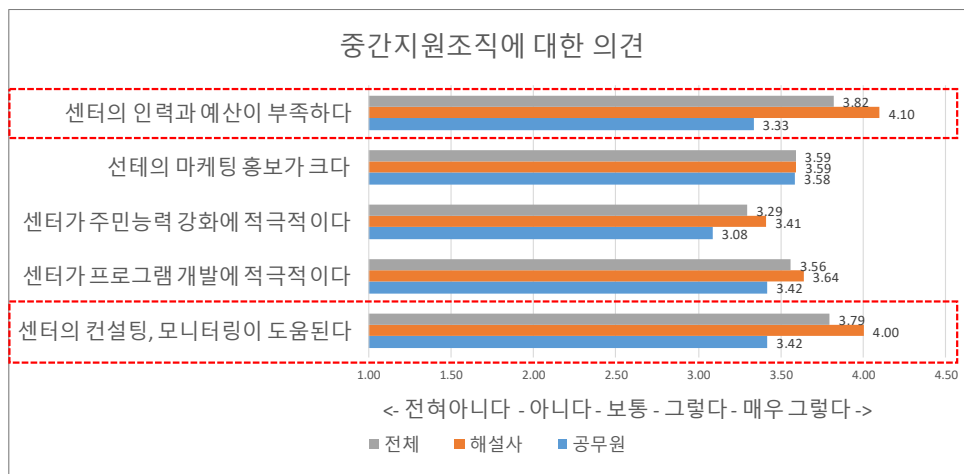
- 소득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해설사 그룹(2.94점) 공무원 그룹(2.58점)으로 나타나 천리길의 경제효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천리길 조성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다) 중간지원(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

- 중간지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과 모니터링 기능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설사 그룹 4.00점, 공무원 그룹 3.42점으로 해설사 그룹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간지원조직의 인력과 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설사 그룹 4.10점, 공무원 그룹 3.33점으로 해설사 그룹의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주민능력 강화를 위해 적극 개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해설사 3.41점, 공무원 그룹 3.08점으로 나타나 공무원 그룹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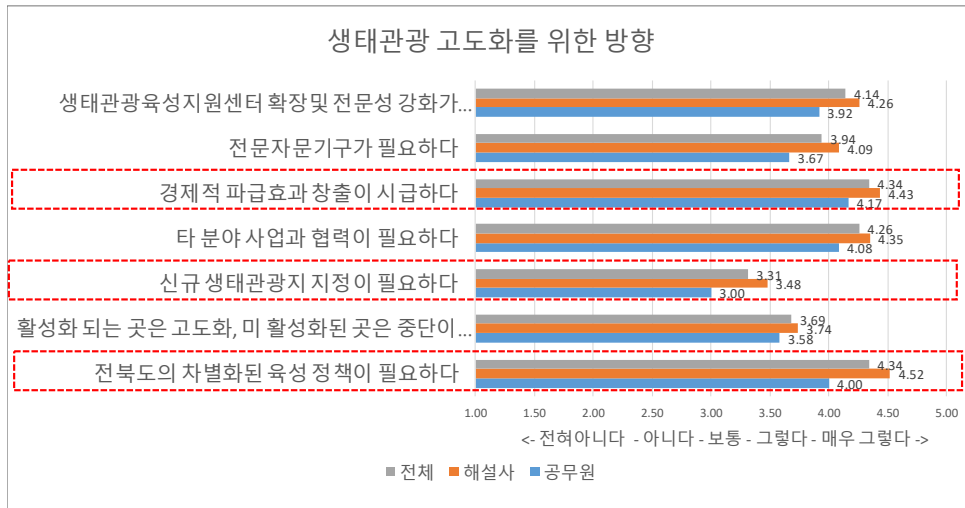


[그림 3-14]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중간지원조직의 평가

라) 생태관광지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

- 생태관광지 고도화를 위한 개선에 대해서는 ‘전북도만 차별화된 육성 정책의 필요’와 ‘경제적파급효과 창출 시급’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 분야와의 협력필요(4.26점), 중간지원조직 전문성강화(4.14점) 순을 보임
- 특히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해설사 그룹의 평균이 4.5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해설사 그룹 3.48점, 공무원 그룹 3.00점, 전체 평균 3.31점으로 나타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생태관광 운영 담당자 의견수렴 :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방향

4) 소결

■ 근무 년수

- 생태관광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 년수는 채 1년이 되지 않은 반면 천리길 해설사의 근무 년수는 5년 1개월에 이른다. 지자체의 연속적인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 그룹보다 해설사 그룹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두 그룹 모두 생태관광지 가치를 높게 평가함
- 생태관광지 예산 및 평가에 있어서는 공무원 그룹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4.00점) 평가 방식과 등급별 예산 차등 배분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됨(전체 평균 3.25점)

-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는 소득증진에 대한 만족도가 두 그룹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전체 3.16점) 평균 특히 공무원 그룹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2.91점)

■ 천리길조성 사업

- 천리길의 조성 및 운영 측면에서는 천리길과 관련한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낮게 평가했으며(전체 평균 2.97점) 특히 해설사 그룹이 더 낮게 평가함(2.88점)
- 천리길 노선 자체의 매력성에 대해서는 해설사 그룹은 3.41점을 나타낸 반면 공무원 그룹은 4.08점을 나타내 공무원 그룹이 노선 자체의 매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득증진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전체 평균 2.79점), 특히 공무원 그룹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2.58점)

■ 중간지원조직의 개선 방향

- 중간지원 조직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룹(3.42점) 보다 해설사 그룹(4.00)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는 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룹(3.33점) 보다, 해설사 그룹(4.10점)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태관광지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육성 정책의 필요’와 ‘경제적파급효과 창출 시급’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 분야와의 협력필요(4.26점), 중간지원조직 전문성강화(4.14점) 순을 보임
 - 특히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해설사 그룹의 평균이 4.5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성과

■ 전북중심 생태관광 추진기반 마련

-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 사업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12개소)’와 ‘전북 천리길(44코스, 405km)’이 조성됨
- 10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 인프라(방문자센터, 생태체험관, 탐방로, 주차장 등)를 확보함
 - 2015~2024년간 전북 생태관광지 659.4억, 전북 천리길 28억 투자
- 생태관광지별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및 활동가(에코매니저, 해설사)가 양성됨
- 통합브랜드(초록원정대) 개발 및 홈페이지, 가이드북, 팸플렛, 팸투어 등을 통한 홍보가 추진됨
- 도, 시·군과 민간의 중간에서 생태관광 교육, 평가, 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생태관광 제도(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가 수립되고 시군 주민공동체(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가 형성됨

■ 전북 생태관광 인지도 확립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생태관광 관련 인증으로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향상됨
 - 국가생태관광지 3곳 지정(고창 운곡습지, 정읍 솔티숲, 남원 정령치 습지), 국가지질공원 3곳 인증
- 고창 운곡습지는 세계관광기구 선정 ‘최우수 관광마을’,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관광지’에 선정되어 우수성을 특히 인정받음

-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증진되고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
- 시군별 편차가 있으나 일부 마을은 생태밥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함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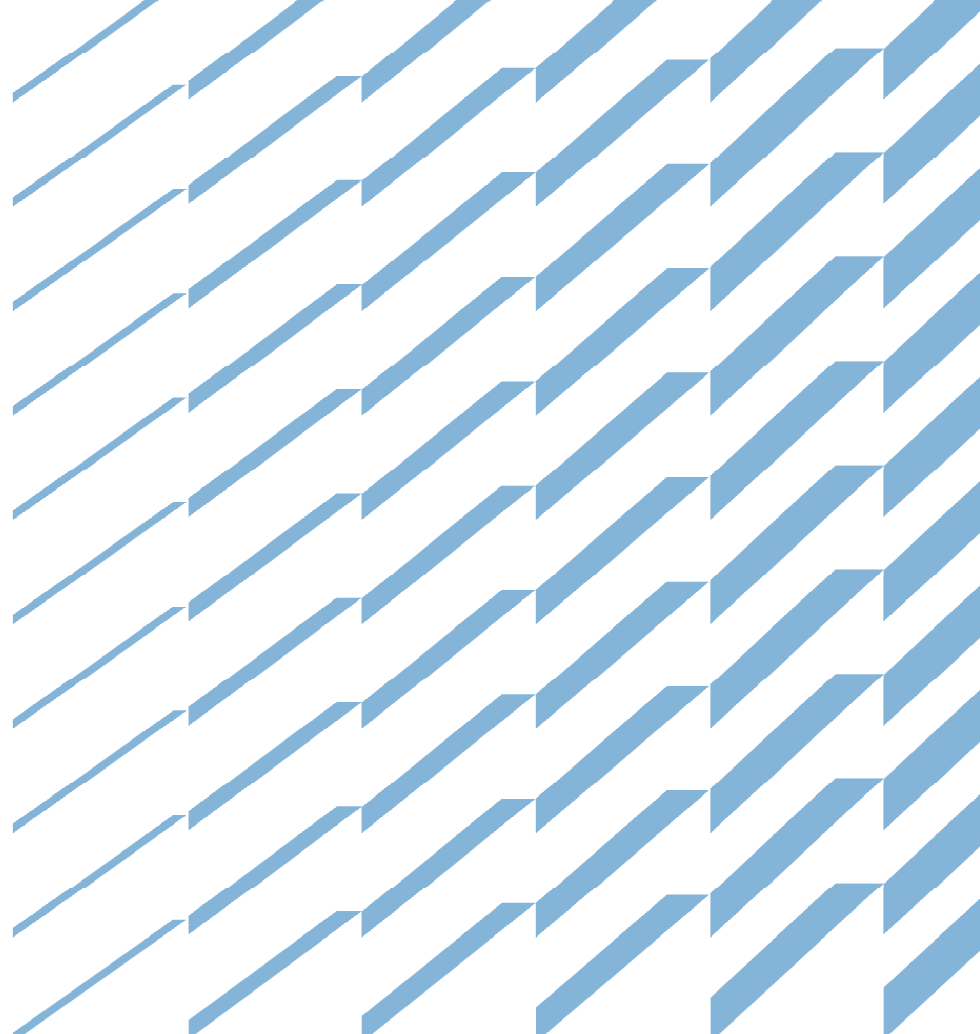
2) 한계점

■ 시·군간 격차 발생, 사업 방향성 제시 부족

- 시·군 정책 추진의지(시장군수), 주변 여건(연계 관광지 여부 등), 지역주민 참여도에 따라 시·군간 큰 격차가 발생함
 - 생태관광 예산 투입액 차이(고창 105억 ~ 김제 11억), 생태관광 사업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시군은 계속 높은 등급을 받음
- 신규 발굴, 신규 재원투입 없이 10년간 동일 대상지에 동일 유형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한계를 보임
 - 생태관광지 예산지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국비 50%, 지방비 50%)
- 초기 비전·목표를 상실한 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초기 마스터플랜(MP)에서 제시한 목표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천리길 조성사업은 초기 마스터플랜 자체가 부재하였음
- 생태관광지 사업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를 수행한 반면 평가 결과의 사업 반영은 부족하였음. 결과적으로 사업의 총괄조정 및 개선효과 창출은 부족했음
 - 생태관광지 평가는 12개 시군 모두 동일항목으로 평가, 일부 항목은 시군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평가
- 도, 시·군,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민간(협의체 등) 등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지와 협력 부족, 거버넌스 부족

■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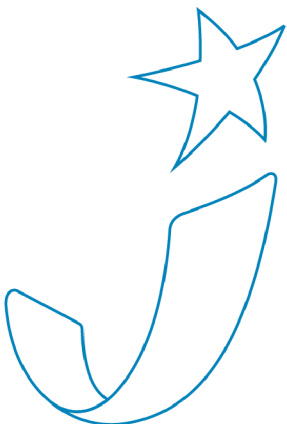
- 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한 반면에 인적자원 증진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증진에는 한계가 발생함
- 개별적 사업 추진으로 타 분야(지질공원, 대표관광지 등)와의 연계효과는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발생함
-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방문객은 학생과 일부 마니아층 중심이었으며, 신규 생태관광 수요층의 유입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임
- 먹거리, 굿즈 등 연계 비즈니스사업 창출이 부족하였고, 지역주민 소득 증진 효과 창출 역시 부족했음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및 추진과제 도출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과 전략
2. 추진과제
3. 추진체계 및 투입예산



제 4 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및 추진과제 도출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과 전략

가. 종합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

1) SWOT 분석

■ 강점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 등 고유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 차원의 독자적인 생태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 동부산악권에는 산림·생태·수자원이, 서부도서연안권에는 섬·갯벌·연안·지질자원이, 중부평야권에는 농경·종교·근대역사 등 생태와 역사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함
- 그간 생태관광 사업의 추진으로 시·군별 생태관광협의체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생태관광 분야에서도 생태관광 에코메니저와 천리길 해설사가 육성되어 마을 단위의 추진기반이 마련됨
- 생태관광의 홍보와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16~)

■ 약점

- 초기의 생태관광 마스터플랜(MP)에서 제시된 개념과 유형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일부 지역은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도입이 주를 이루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었고 연관 사업(지질공원 등)과 동떨어진 추진으로 인해 연계 효과와 자체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발생함

- 시·군 행정력에 의존한 추진방식과 사업자의 이해와 참여도 차이로 지역 간의 사업추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획일적인 생태 체험과 일회성 걷기 행사 중심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근 다양한 생태관광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엔 한계 발생

■ 기회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도정), 다양한 생태공간 확충(국정) 등 생태자원을 활용할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함
- 외국관광객 증가, 걷기, 바이킹, 캠핑문화 확산, 가족단위 관광 확대, 건강·치유·지질 체험 활성화, 산악관광 등 자연생태기반 관광문화가 확산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 숲유치원, 야외체험교육 등 지질, 갯벌, 강, 산악경관 등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의 확대가 가능함
-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집단 참여로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함

■ 위협

-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확대로 산림, 강, 경관, 갯벌 등 생태·환경자산의 양적 감소 및 부정적인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음
-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감소로 전북 마을지역의 지방소멸 위협이 확대되고 있음
- 탐방객 증가에 따른 차량·소음·답압·쓰레기 증가로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대도시권 접근성 부족과 사업지구의 분산적 배치, 타 지역 유사 생태관광 추진으로 효과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추진전략 도출

■ S-O 전략

- 풍부한 생태문화자원(공급)과 다양한 생태관광 증가(수요)로 자연자원 적극 활용한 생태관광 외연 확대
- 생물문화다양성,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 신규 수요 수렴을 위한 마을 단위의 체험 활동 및 비즈니스 창출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추진기반 강화

■ W-O 전략

-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생태관광의 고유성과 차별성 재확립 및 브랜드화
- 걷기, 캠핑, 가족, 외국인 등 신규 수요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점 → 선 → 면으로 연결, 시너지 창출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기능, 조직 확대와 마을협의체 중심 추진기반 강화
- 생물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북에 특화된 생태-문화 복합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S-T 전략

-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별 신규 생태관광지 창출로 지방소멸 및 고령화 대응
- 우수 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활성화
- 생태관광지와 주변 자원을 연계한 클러스터화 추진

■ W-T 전략

- 자원 특성을 고려한 시·군별 신규 생태관광지 지정으로 신규 수요 창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국가생태관광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지정을 통한 전북 생태관광의 탄소중립 기여 및 지속가능성 강화
- 국제페스티벌 개최, 스토리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비즈니스 창출로 생태 관광 소프트웨어 강화

S-O 전략

- 풍부한 생태문화자원(공급)과 다양한 생태관광 증가(수요)로 자연자원 적극 활용한 생태관광 외연 확대
- 생물문화다양성,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다변화 추진
- 신규 수요 수렴을 위한 마을 단위의 체험 활동 및 비즈니스 창출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추진기반 강화

S-T 전략

-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별 신규 생태관광지 창출로 지방소멸 및 고령화 대응
- 우수 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 활성화
- 생태관광지와 주변 자원을 연계한 클러스터화 추진

W-O 전략

-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생태관광의 고유성과 차별성 재확립 및 브랜드화
- 걷기, 캠핑, 가족, 외국인 등 신규 수요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점 → 선 → 면으로 연결, 시너지 창출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기능, 조직 확대와 마을협의체 중심 추진기반 강화
- 생물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북에 특화된 생태-문화 복합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W-T 전략

- 자원 특성을 고려한 시·군별 신규 생태관광지 지정으로 신규 수요 창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국가생태관광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지정을 통한 전북 생태관광의 탄소중립 기여 및 지속가능성 강화
- 국제페스티벌 개최, 스토리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비즈니스 창출로 생태관광 소프트웨어 강화

[그림 4-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나.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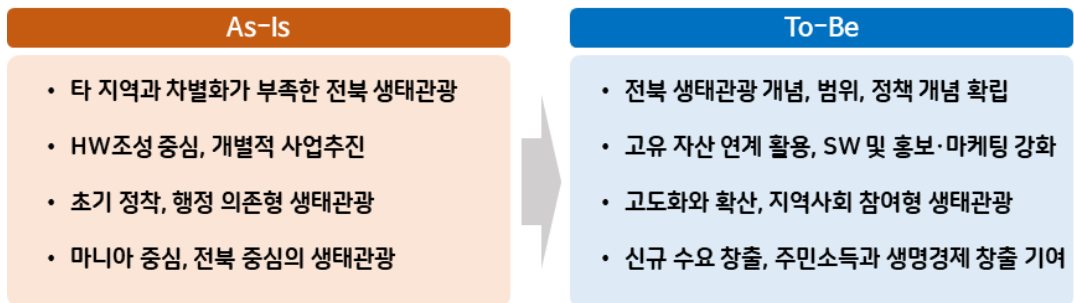
1) 목적과 개념

■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 특화형 생태관광 정책 개념 확립
-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전북의 생태관광 강점을 지속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 특화된 브랜드 육성

■ 개념

- 지역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Sustainable Eco-Tourism)을 구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지향점

2) 핵심 키워드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의 핵심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제시하고자 함

■ 연계와 통합, 권역화

- 생태관광을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확장하고 연계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가치창출 효과를 극대화함
- 생태자원과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을 도시권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지역(권역) 설정
- 생태관광 및 관련 부서와 연계하고 다부처 사업간에 연계에 기반한 협력사업 추진
- 규제 완화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함

■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관광을 통해서 전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인구를 유입
-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의 비즈니스 사업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굿즈, 먹거리, 체험활동을 개발
- 전북 생태관광의 외연 확대와 관심 증대, 새로운 수요 유입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

■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증진

- 생태·환경자산과 역사·문화자산을 연계하여 생물문화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전북 생태관광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화관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지역이 보유한 전통생태지식(Local Ecological Knowledge)을 보전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며, 이를 활용하여 생태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스토리 텔링 구현에 적극 활용함
- 예술, 인문학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

■ 지속가능, 탄소중립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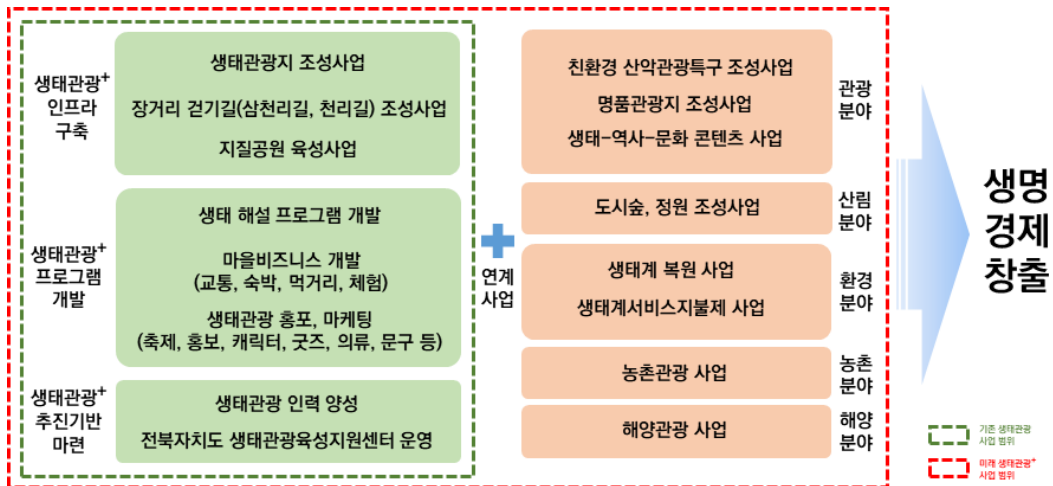
- 전북이 보유한 다양한 생태자원의 연속성을 증진하고 생태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고 자산이 가진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생태관광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 생태관광 인프라를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거나 관광 활동에 소요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등의 탄소중립 생태관광 구현
-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자산가치의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 사업을 연계 추진

연계와 통합, 권역화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관광을 점 → 선 → 면으로 확장, 연계 및 가치 창출 효과 증대 • 생태자원 + 관광자원 + 문화자원 + 도시권을 연계한 생태관광 지역 설정 • 부서간 연계, 부처간 연계에 기반한 협력사업 추진 • 규제 완화, 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특별구역화 추진	• 생태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 민간 참여 기반 마을비즈니스 창출, 소득증대 기여 • 자원기반의 굿즈, 먹거리, 체험활동 개발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증진	지속가능, 탄소중립 생태관광
• 생태·환경자산 + 역사·문화자산의 연계 활용 • 전북 생태관광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화관광 업그레이드 • 지역 전통생태지식 활용 강화 • 예술, 인문학과 연계한 복합 생태관광 상품 개발	• 생태자원의 연속성, 회복력 및 가치 증진 • 환경영향 저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의 탄소중립 기여 •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 연계 추진

[그림 4-3]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핵심 키워드

3)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범위

- 기존 생태관광 사업은 시군별 생태관광지, 천리길 등 기반 조성사업 중심으로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범위는 기존의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타 부처 및 타 부서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창출에 기여토록 함
-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환경녹지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타 분야 연계 사업은 해당 실·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그림 4-4]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범위

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비전

- 비전은 “자연, 문화, 지역 플러스, 글로컬 전북 생태관광⁺”으로 함

■ 목표

- (목표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 (목표 2) 자연, 문화, 지역을 더한 생태관광⁺ 브랜드 구축
- (목표 3)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확립

■ 추진전략

- (추진전략 1) 생태관광 자원을 점→선→면으로 연결·확대(광역화)
- (추진전략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창출(융복합)
- (추진전략 3)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지역참여)
- (추진전략 4) 민·관 협력의 생태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현(소통·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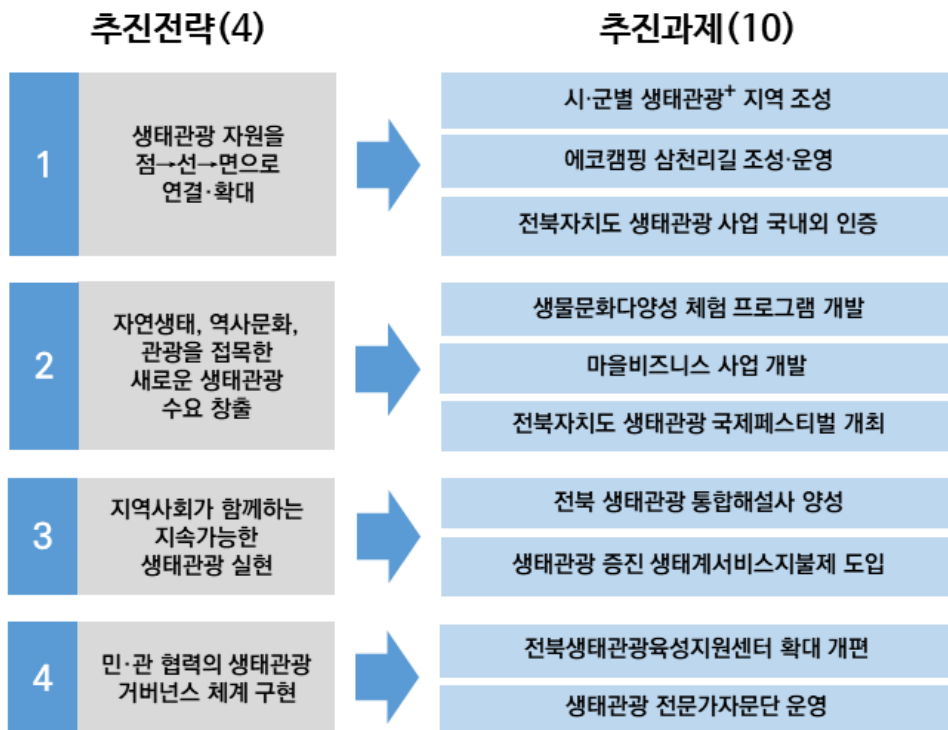


[그림 4-5]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목표, 추진전략

2)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으로부터 아래 그림과 같이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함
- (추진과제 1) 시·군별 생태관광⁺ 권역 조성
- (추진과제 2)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운영
- (추진과제 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 (추진과제 4)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추진과제 5) 마을비즈니스 사업 개발
- (추진과제 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 (추진과제 7)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 (추진과제 8)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추진과제 9)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 (추진과제 10)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 운영



[그림 4-6]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추진과제

2. 추진 과제

추진과제 1.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 개요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전북의 고유성, 특수성을 반영한 대표 브랜드로 생태관광⁺ 지역 조성
- 생태와 관광, 역사와 문화, 스포츠가 연계된 융·복합 시너지 창출형 지역 집중 육성
- 기존의 모든 시·군 일괄 보조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시·군 경쟁 방식으로 전환
- 예산지원 비율 현행 75%에서 50%로 하향, 시·군 적극적 참여 확대, 사업 질 제고

■ 조성 유형

- (기존사업 강화형) 기존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소득 연계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
- (신규사업 창출형) 새로운 생태관광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보유한 생태·환경 자산과 역사·문화자산,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수요 창출형 생태관광 지역 조성

기존사업 강화형 생태관광 ⁺ 지역 조성	신규사업 창출형 생태관광 ⁺ 지역 조성
목적: 전북형 글로벌 생태관광지구현 초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지역 소득 연계효과 창출 내용: - 기존 조성된 생태관광지 강화 - 홍보·마케팅, 브랜드 및 굿즈 개발 지원 - 글로벌 및 국내 인증(세계적 생태관광지,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탄소중립 그린도시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추진 - 관광, 문화, 교육 부문과 연계사업 추진	목적: 생태·환경자산 활용 융복합 생태관광 허브 조성 초점: 생태자산과 역사문화자원,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수요 창출형 생태관광 지역 조성 내용: - 공모방식으로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 - 민간투자 유도로 광역형 생태관광 허브 조성 - 보호지역 연계형(도시공원,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 생태복원사업 연계형(도시생태축,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 환경교육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목재친화도시 연계 - 숲/정원사업 연계(지방정원, 마을숲, 도시숲 등)

[그림 4-7]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유형

■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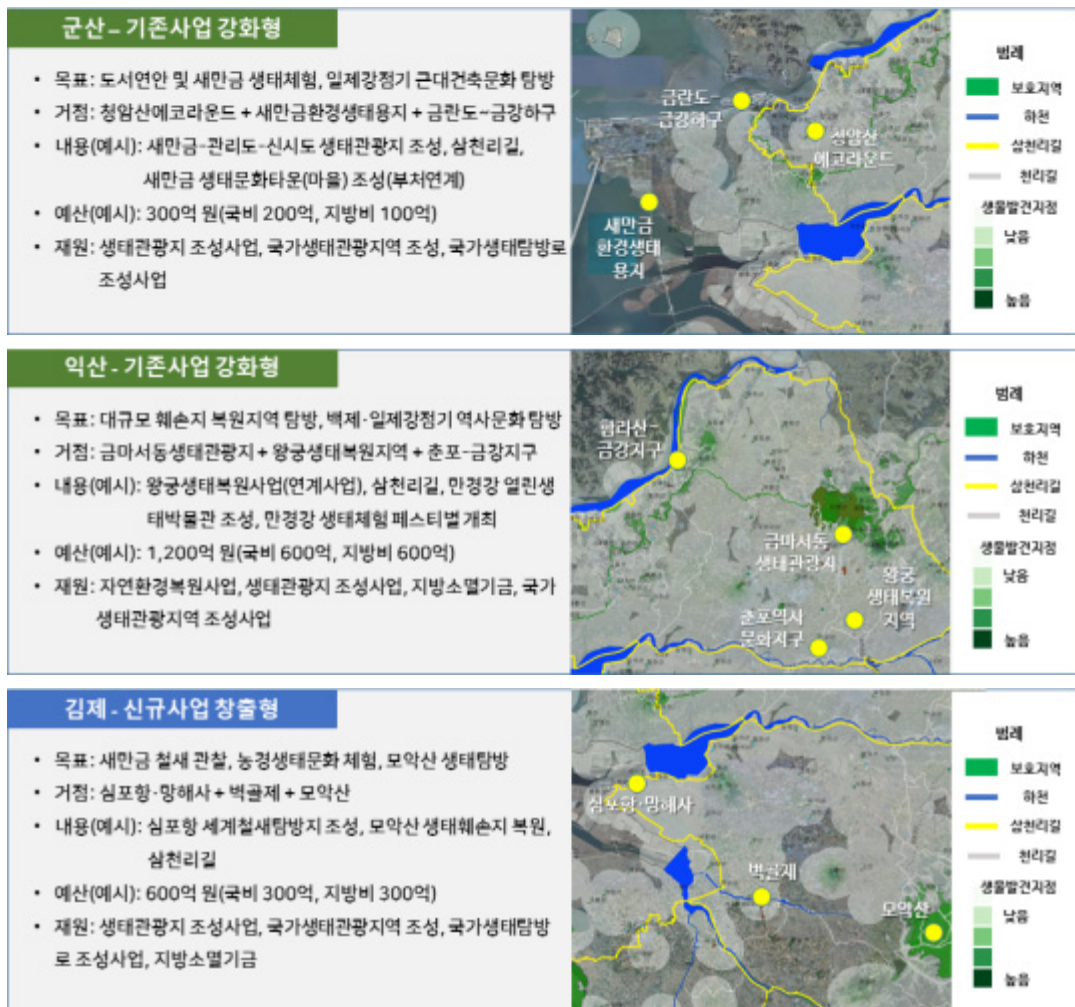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25~2034(10년간)
- (예산규모) 총 690억(도비 345억, 시·군비 345억)
- (지원방식) 사업 평가를 통하여 도비 차등 지원
 - 신규조성: 7개 사업, 1개소 90억 원(도비 45억, 시·군비 45억)
 - 기존운영: 12개 사업, 1개소 5억 원(도비 2.5억, 시·군비 2.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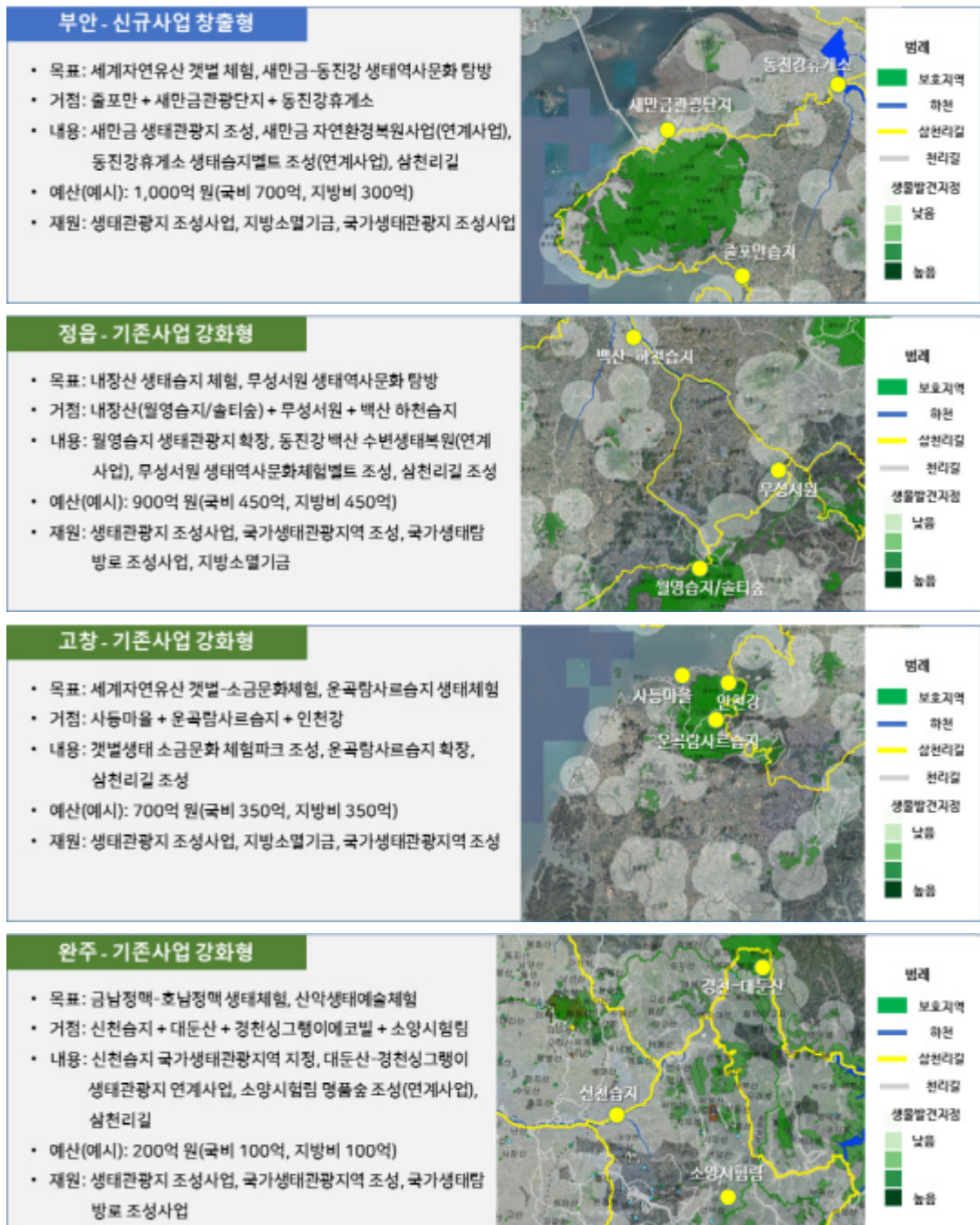
구분	연간 투입액(개소별)	도비 지원액	총 예산액	비고
신규조성	30억원(5:5 매칭)	315억원	630억원	* 3년 지원 * 예산 차등 지원
기존운영	0.5억원(5:5 매칭)	30억원	60억원	* 10년 지원 * 예산 차등 지원

■ 선정 방법

- (선정방식) 공공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추진과제 10 참조)을 통해 평가·선정
- (선정기준) 사업계획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운영관리 측면을 종합적 고려
 - 부지 확보, 토지이용 제약사항 등 사업추진 제한성(인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수요창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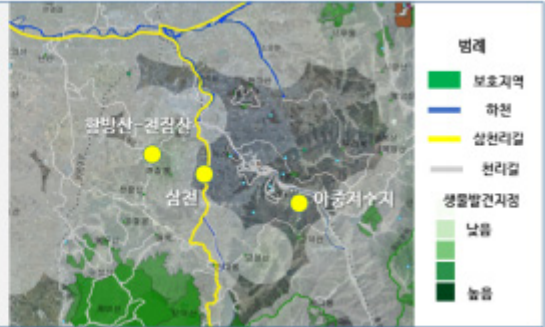
■ 참고 :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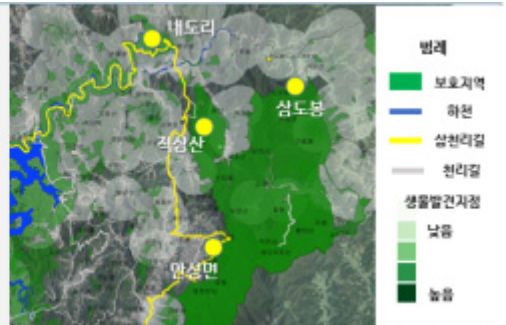
전주-신규사업 창출형

- 목표: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 구현
- 거점: 삼천-전주천, 건지산, 황방산-천잠산, 아중저수지 일원
- 내용: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 천잠산-황방산 생태예술 마을 조성(전주영화촬영소 연계), 삼천리길 조성
- 예산(예시): 500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 자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국가생태관광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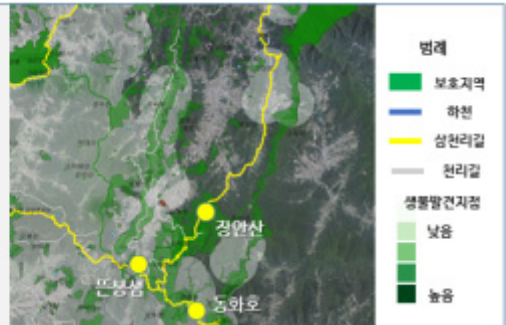
무주-신규사업 창출형

- 목표: 탄소중립생태마을 구현, 산악생태힐링체험
- 거점: 덕유산(적상산, 삼도봉, 무주구천동) + 안성면 + 내도리
- 내용: 내도리 금강-향로산 생태관광지 조성, 삼도봉 탄소중립생태마을 (목재친화도시 연계사업), 안성면 산악생태힐링파크 조성
- 예산: 500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 자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국가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소멸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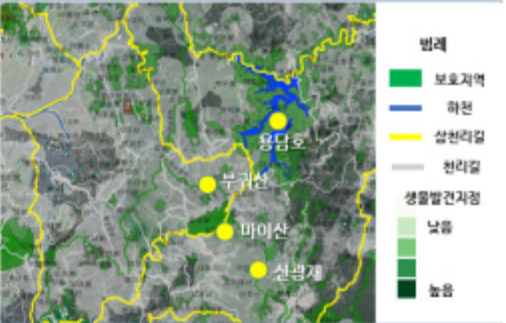
장수-기존사업 강화형

- 목표: 금강호남정맥 생태마을체험, 동화호-장안산
- 거점: 장안산 + 동화호 + 퐁봉생
- 내용: 퐁봉생 생태관광지 확장, 장안산 고산생태초화원, MTB산악레포츠 타운 조성(연계사업), 삼천리길
- 예산: 300억 원(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 자원: 국가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소멸기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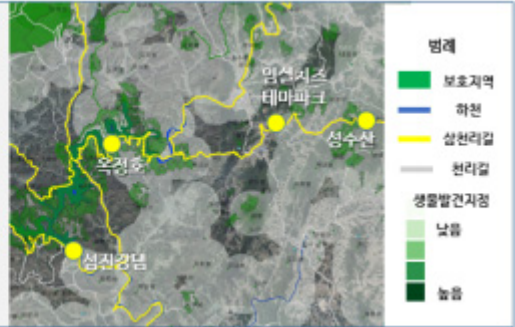
진안-기존사업 강화형

- 목표: 산악경관 전망, 산림약용작물 탐방, 마이산 생태역사문화탐방
- 거점: 부귀산 + 마이산·온천마을 + 신평재 + 용담호
- 내용: 목조건축 산악전망대 조성(연계사업), 신평재-지덕권 산림약용작물 체험 및 산림치유원(연계사업), 마이산-용담호 생태역사문화 체험(기존사업 확장), 생태탐방로(삼천리길), 용담댐 수변생태벨트 조성(연계사업)
- 예산: 300억 원(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 자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소멸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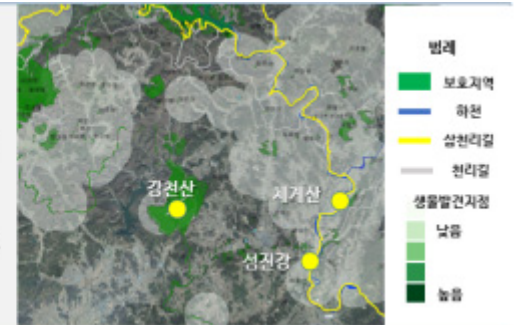
임실 - 기존사업 강화형

- 목표: 옥정호-섬진강 상류-호남정맥 수변생태문화체험
- 거점: 섬진강델타 + 옥정호 + 임실치즈테마파크 + 성수산자연휴양림
- 내용: 옥정호 생태습지/야생생태보호센터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삼천리길), 섬진강델타역사지구 조성
- 예산: 1,000억 원(국비 700억, 지방비 300억)
- 자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소멸 기금, 국가생태관광지역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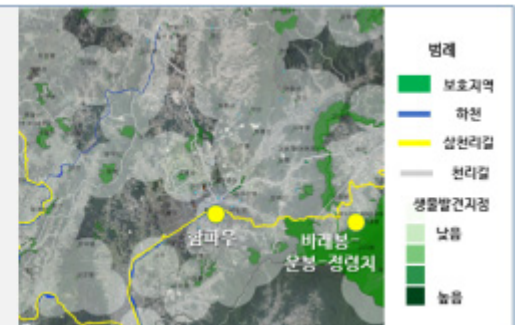
순창 - 신규사업 창출형

- 목표: 섬진강 생태경관 조항, 강천산 생태체험
- 거점: 강천산 + 섬진강 + 체계산
- 내용: 강천산 생태관광지 조성, 대동산-경천-양지천 생태공원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삼천리길)
- 예산: 1,000억 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 자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국가생태관광지역 조성,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지방소멸기금



남원 - 기존사업 강화형

- 목표: 백두대간-지리산 생태체험, 산악 생태문화예술 체험
- 거점: 정령치 + 바래봉 + 운봉 + 함파우
- 내용: 정령치 생태관광지 조성, 바래봉 철쭉생태복원, 함파우 산악 예술생태공원 조성(협곡사업), 지리산 산악열차(연계사업)
- 예산: 1,000억 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 자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소멸기금, 국가생태관광지역 조성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과제 2.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운영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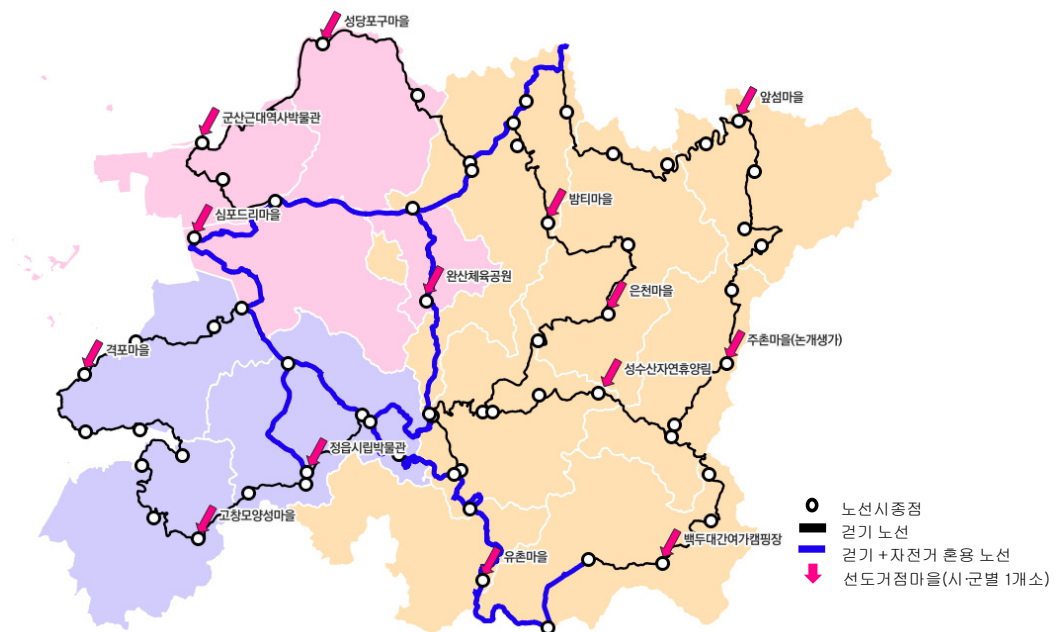
- ‘에코캠핑 삼천리길’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을 연결시키는 장거리 걷기 길로 체류형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삼천리길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1차 기간은 2022~2030년임. 사업비는 총 618억원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임
- 추진체계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담조직으로 구분됨
 - 전북특별자치도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총괄하는 주체로, 길·거점마을지침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함
 - 시·군은 도에서 수립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함
 - 전담조직은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이며 삼천리길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기존 해설사를 발전시킨 프로그램 구축, 통합 마케팅, 주민소득 등을 지원

■ 조성 방안

- (삼천리길) 탐방로 총 1,037.4km (걷기 680.5 + 자전거 326.9 + 황토길 30 포함)
- (대표사업)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삼천리길 연계 시군별 대표사업(14개 5,745억원)
- (거점마을) 거점마을은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로 구분되며 시군노선별로 거점마을을 조성(60개소)
 - 선도거점마을은 1시군 1개소에 조성되는 핵심기능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입지한 소도읍이 경쟁력이 높음. 시군의 거점마을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지원 기능이 집적됨
 - 일반거점마을은 노선 주변의 마을로 읍면소재지형·마을형·관광지형 거점마을로 구분되며 일반거점마을에는 이용자를 위한 정원 조성
- (전담조직)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 개편

[표 4-1] 에코캠핑 삼천리길 거점마을의 역할과 기능

구분	선도거점마을	일반거점마을
정 의	삼천리길 걷기 체험의 시작점으로서 마을 비즈니스의 중심지	노선간 중간경유지로서 숙식 및 정보 제공, 마을체험을 위한 거점
규 모	시군별 1개소	시군별 약 3~5개소
역할/기능	종합안내(전체 노선 등), 교통편의, 주차, 숙식, 탐방프로그램, 회의, 세탁, 비즈니스, 워크숍 등	정보안내(노선 및 거점마을), 휴식, 숙식, 마을 생태/문화 탐방 등
주요 시설	방문자센터, 운영센터, 주차장, 복합정류장, 캠핑장, 자전거거점 등	마을정원(거점마을 랜드마크), 화장실, 안내판, 간이침터, 캠핑장(소형) 등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그림 4-8] 에코캠핑 삼천리길 노선 및 선도거점마을

■ 기대 효과

- “회복·탄력의 시대”를 선도하는 「에코힐링1번지 전북」 실현, 관계인구유입으로 지방 소멸위기 대응

추진과제 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 개요

- 전북지역은 생태·환경자산이 풍부하나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생태관광 지역에 선정된 곳은 3곳에 불과함
 -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정읍 월영습지, 남원 정령치고산습지
- 국제적으로는 “자연공존지역(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이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임
- 환경부는 자연공존지역 지정을 통해 K-M GBF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국제 목표인 30% 달성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

■ 사업 내용

- (목적) 생태적, 지역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지정 확대
-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기존 전북지역 생태관광지 중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고 지역 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생태관광지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지역,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지역에 대해 국가생태관광지역과 자연공존지역 지정을 추진
 - (목표) 2027년까지 국가생태관광지역 5개소 지정, 2034년까지 7개소 지정
- (자연공존지역 지정) 지역주민이 생태보전에 참여하는 생태관광지, 생태복원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지역을 연계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
 - 2027년까지 자연공존지역 1개소 지정, 2034년까지 3개소 지정
- (이달의 생태관광지 지정) 환경부가 매달 지정하는 이달의 생태관광지에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지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의 생태관광지 홍보에 일조

추진과제 4.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개요

- (개념)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 문화다양성 선언(2001)에서 제시된 개념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연결된 개념임
- (자원) 전북지역은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고(寶庫)로 호남평야지대, 동부산악지대, 도서연안지대에 다양한 전통생태와 역사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생물문화다양성 풍부
- (내용) 생물문화다양성을 접목, 시·군별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삼천리길 자원에 특화된 차별화된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북자치도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개선과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비) 총 14억 원(도비 7억, 시·군비 7억, 시·군당 1억)
 - 시·군당 1억 원(도비 0.5억, 시·군비 0.5억)
- (효과)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과 생태문화 증진 기여



출처 : <https://www.thenatureofcities.com/>

[그림 4-9] 일본 Ishikawa-Kanazawa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 사례: 음식, 물환경, 공예

추진과제 5. 마을 비즈니스 사업 개발

■ 전북 생태관광 그린 결혼식

- (개념) 전북 생태관광지가 보유한 우수한 생태·환경자산과 경관자원을 배경으로 일반인들에게 생태관광 그린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전북 생태관광의 홍보효과 제고 및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
- (내용)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노년층) 외에 돌잔치, 가족모임 등 가족 중심 행사 지원
- (예산)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TNFD) 차원에서 민간기업 지원을 받아 운영
- (기대효과)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로 관계인구 증가와 지역 소득 증진,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에 기여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2021년 시작, 2023년까지 93회 진행, 2024년엔 65세 이상 노년 부부 대상으로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사업까지 확대, 국립공원의 생태문화공간인 전국 생태탐방원에서 진행



'그대가 그린 green 웨딩': 서울특별시, 서울그린트러스트, 유한킴벌 리가 함께 2021년 10월 2,3일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그린웨딩을 개최함

출처 : 한국조경신문, <https://www.latimes.kr>(위); 헬스경향, <http://www.k-health.com>(아래)

[그림 4-10]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사례

■ 교통 및 숙박지원 서비스

- (개념)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장거리 걷기, 캠핑 활성화를 위해 교통 및 숙박지원 서비스 개발
- (방법)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마을협의회-마을기업간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사업 개발
- (교통서비스) 삼천리길 거점마을간 교통수단 및 픽업서비스 지원
- (숙박지원 서비스) 세탁 지원, 마을 캠핑장 운영
- (예산)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TNFD) 차원에서 민간기업 지원을 받아 운영



뉴질랜드 Ultimate Hikes에서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 사례



제주올레 수화물 배송서비스 사례

출처 : 뉴질랜드 밀포드, 제주올레

[그림 4-11] 장거리 걷기길의 교통서비스 제공 사례

추진과제 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 사업 개요

- (목적) 지난 10년간 조성·운영한 전북 생태관광지를 홍보하고 걷기문화 활성화와 신규 수요 창출, 지역기업 참여를 위한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을 개최
 -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홍보하고 생태관광 관련 교육, 지역, 기업이 한데 모이는 교류의 장 마련
- (내용) 생태관광지 및 삼천리길 노선·거점마을과 연계한 생태관광 축제 개최, 마을·기업 홍보부스 운영, 지역별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및 정원가꾸기 행사, 생태밥상 및 간식, 굿즈 판매
- (사업비) 총 10억(회 당 5억, 총 2회, 도·시·군 5:5 매칭)
- (운영) 도·시·군 공동개최,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 조성 방안

- (홍보) 권역별 대표 생태관광지 선정, 삼천리길과 연결되는 서브 관광지 선정
 - 국제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생태관광지의 홍보에 있으므로 삼천리길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 삼천리길에 제시되어 있는 노선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지역 2차 이동 기대.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자원 노선의 홍보
- (체험 및 안내) 생태관광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생태해설, 체험프로그램 구축
 - 가족의 길, 치유자의 길, 바람 자연의 소리가 있는 길 등 다양한 삼천리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추가 길 체험 프로그램 구축
 - 완주자 인증 : 삼천리 길 및 대표 생태관광지 완주 방문객을 위한 퍼포먼스
- (지역 참여) 전북 생태관광을 통해 형성된 지역 주민 공동체의 소개. 생태밥상을 중심으로 한 음식 및 간식거리 판매

- 생태관광지에 발견하는 고유 자원을 공예품으로 제작하여 수익 창출

- (캠페인) 진정한 생태관광에 대한 의미를 찾는 교육 및 캠페인으로서 탄소 중립과 생물 보호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 (역사문화, 관광) 지역 문화 결합
- (기업참여) 기업홍보 부스 운영 : 생태관광 산업과 관련한 기업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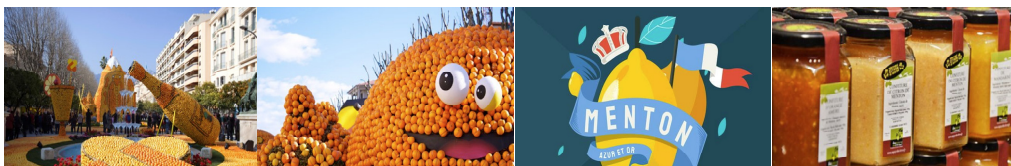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생태관광 홍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규모 참여의 장 마련
- 전북 생태관광지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승

국내외 · 사례

[해외 사례 : 프랑스 망통 레몬축제]

- (개요) KEI가 선정한 ‘자연자원 보전 및 이용관련 우수 사례’
 - 지역 특산물인 ‘레몬’을 활용하여 + 친환경 관광 결합
- (컨퍼런스) 레몬에 대한 다양한 컨퍼런스 진행
- (주요 행사) 어린이 카니발, 퍼레이드, 감귤패턴쇼
- (음식공예박람회) 레몬을 활용한 다양한 2차 상품판매
- (효과) 2월 2주동안 40만명 방문, 경제효과 50억 창출
- (평가) 레몬 = 망통 강력한 지역이미지 형성, 즐겁고 신나는 재미 위주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출처 : 망통 홈페이지

추진과제 7.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현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환경해설사 프로그램 이수율 제외하면 갯벌, 생태, 역사, 문화, 치유 등 타 연계 분야로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요자 측면에서 해설의 한계 발생
 - 보수교육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제41조 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 생태관광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수료가 필요함. 그 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갯벌생태해설사' 등 지역과 관련한 해설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역과 유네스코 지질 공원 지역에서는 생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등과의 결합이 필요함
- (통합의 필요성) 에코매니저의 활동 대상은 현재 지정된 생태관광지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설 대상을 시·군별 생태관광⁺에 맞춰 지역(면)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 천리길 해설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 천리길에서 → 삼천리길 전 구간으로 확장되어야 함
- (통합의 방향) 에코매니저, 천리길 해설사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 공동체 출범 필요

■ 추진방안

- (해설 내용 확장) 기존 생태관광지에 국한되었던 스토리를 넘어 마을이야기, 도시이야기 까지 확장이 필요함, 천리길 역시 생태적 측면 외 길 변 주요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역사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결합 되어야 함
- (공인 해설사 인증) 생태 및 역사문화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인증 해설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해수부 갯벌생태해설사, 산림청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 등
- (동행 프로그램) 구축된 탐방 루트에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자가 선정한 루트에 해설사가 설명·동행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필요함

■ 개요

- (대상) 매년 약 100명 교육
- (사업비) 총 20억(도비 연간 2억, 10년 지원)
- (사업내용) 생태관광 활동가 해설 대상 및 범위 확장,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추진체계) 도가 추진,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 기대 효과

- 전북 생태관광 해설에 대한 수준 제고, 현장 활동가의 전문성 함양



2024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모집

자연환경해설사란?
생태 관광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41조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교육기간	과정구분	모집일정	교육일정	평가일	모집인원
	기본과정	24.5.27(월)~ (산척순마감)	24.6.24(월)~7.12(금) (월~금 3주 과정) ※ 7.2~7.5 수업일름	• 평가: 7.12(금) • 참가: 7.23(화)	30명
	기본/간이과정	24.8.26(월)~ (산척순마감)	24.9.27(금)~11.9(토) (금.토 2주과정) ※ 7.1~7.5 수업일름	• 평가: 11.9(토) • 참가: 11.10(화)	30명 (기본20, 간이10)

※ 자세한 일정은 본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안내 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과정별 적정 인원 미만 시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기본과정: 자연환경해설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 간이과정: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에 해당되면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

-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상세 내용은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접수방법
e-mail 접수(eco9@dongguk.ac.kr)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②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3X4cm) 1매

교육비

- 기본과정 600,000원
- 간이과정 350,000원

출처 : 생태관광협회 홈페이지

[그림 4-12] 동국대학교 생태교육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사례

추진과제 8.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개요

- (개념) 생태계서비스 수혜자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 (정책) 환경부는 일부 사업에 국한되었던 PES를 생태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19년 생물다양성법 개정, '20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 사업 내용

- (개념) 생태관광 사업에서 생태계 보전, 생태자산 모니터링, 생태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활동비를 보전
- (운영방식) 생태관광 추진자(토지소유주, 관리인,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활동비 지원
 - 5개 시·군 선정, 총 9년 지원(1년간 시·군별 계획수립 및 주민설명)
- (예산) 총 45억(5개 시·군 지원, 시·군당 연간 1억, 5:5 매칭)
- (특례) 시민참여 생태관광지 보전, 관리, 모니터링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예: 전북특별자치도 시민참여 생태경제 촉진구역 지정)
- (국가지원)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생태경제지역 등 지정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정책

- 환경부는 전복이 지정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에 대해 「제5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2020 ~2040)」에서 제시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으로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실행에 필요한 국가예산 지원

*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을 현재 0건에서 2030년까지 20건까지, 2040년까지 50건을 지표로 제시함(환경부, 2020)

생태경제지역 및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부)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중심으로 생태관광 및 휴양, 치유인프라, 생태산업을 토대로 자연과 공생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생태경제지역' 및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 (지자체) 자발적 창의성을 토대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혜택 수여지인 서부 도시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공급지인 동부 산악지역에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동부산악권은 산림, 호수(용담호와 옥정호 등), 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자산이 많으므로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창출 가능

출처 : 천정운, 배진아(2023),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 290

[그림 4-13]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정책 개요

[표 4-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비 지급 단가 및 기준

서비스 유형	세부 활동내용	사 업 비		비고
		손실액	지급단가	
환경조절 서비스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지자체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하천 환경정화	활동비	인건비 및 경비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저류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나대지 녹화·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문화 서비스	경관숲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서비스 유형	세부 활동내용	사 업 비		비고
		손실액	지급단가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활동비	인건비 및 경비	
지지 서비스	친환경 경작	단위면적 당 손실액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벼 등 미수확	단위면적 당 손실액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텃터 조성 관리	단위면적 당 손실액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벗짚존치	단위면적 당 손실액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현지 벗짚 판매가격의 2배 이내	
	보라울무 등 재배	단위면적 당 손실액	계약면적 × 면적당 단가 × 피해량(최대25%)	
	숲(지역자생수종)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습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관목 덩불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초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활동비	인건비 및 경비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조성·관리비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출처 : 환경부(202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추진과제 9.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 사업개요

- (내용) 전북 생태관광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군·마을·기업의 중간 역할 및 이해관계 조정, 생태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삼천리길 운영 지원
- (사업비) 총 94억: 보전금:도비 5:5 매칭, 연간 7억(~'26), 연 10억('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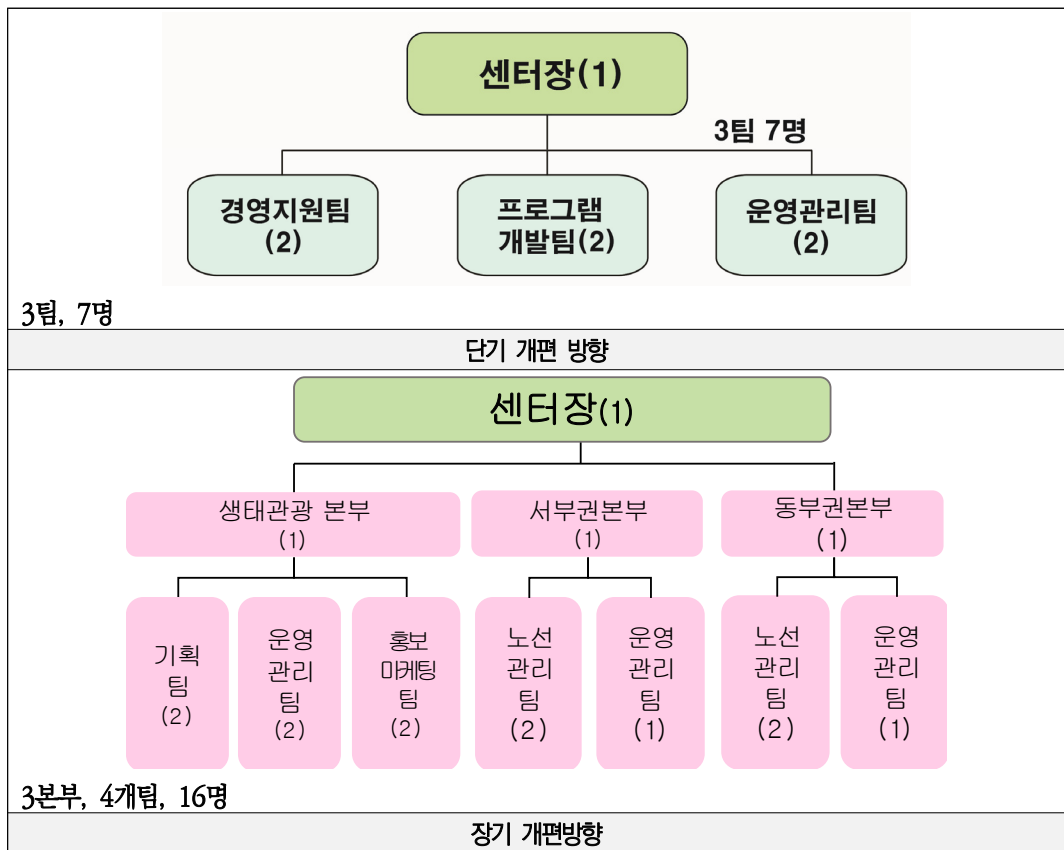
■ 확대 및 운영 방안

- (단기 시점) 3팀 7명
 - 현재 중간지원 조직은 업무에 따라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로 인력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 3팀 4명 체계에서 '25년까지 3팀 7명으로 확장 시킬 예정임
- (장기 시점) 3본부, 4개팀, 16명
 - 삼천리길이 전체 개통하는 2030년 이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노선 관리 인력과 방문객 민원 응대에 대한 영역 확장이 불가피 함
 - 특히 노선의 길이 1천 km에 이르고 있으므로 길 노선 관리와 운영 관리를 전담할 서부권 본부, 동부권 본부 신설이 필요함
 - 생태관광 본부의 홍보 마케팅 팀은 생태관광지, 걷기 길, 지질 공원에 대한 통합 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며 상시 변동하는 콘텐츠를 관리할 인력 1명이 필요함
- (중장기) (가칭)전북환경재단 산하기구화 검토
 - 현재 전북에는 환경관련 재단이 출범되어 있지 않으나 남해바래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매뉴얼 제작 필요) 센터 근무 인력이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특히 걷기길 수요자에 대한 민원 업무 대응 매뉴얼이 초기 제작될 필요성이 있음
- (갈등 조정 기능)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는 지원 역할 확대

- 현재 센터는 지원기관으로서 주민공동체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또 갈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할 인력과 여건이 충분치 않음
-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갈등 중재 및 해소가 중요하므로 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갈등 중재 및 협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함

■ 기대효과

- 생태관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



[그림 4-14]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 개편 방안

추진과제 10.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 운영

■ 개요

- (목적) 전북 생태관광 정책, 사업의 계획→시행→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생태관광의 목표와 시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시·군의 생태관광분야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자문단을 운영
- (사업비) 총 10억(연간 1억, 도비)
- (사업내용) 도 생태관광 사업계획 수립, 시군 사업 컨설팅, 생태관광 사업평가, 전문가 자문 컨설팅 결과의 시·군 사업 반영 지원

■ 운영 방안

- (구성) 도, 전북연, 전문가, 민간 약 15명 내외
 - 위원장 도 1, 민간 1
 - 간사: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운영) 정기 회의(연 2회), 수시 회의(안전 상정시)
- (결과) 매년 정기 자문단 운영보고서 작성
- (반영) 전문가자문단 활동 결과 도출된 내용의 시·군 사업 추진과정 반영 여부 검토

■ 기대효과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정책목표 달성 기여
- 시군의 생태관광 사업 추진 의지 및 동력 확보 기여

3. 추진체계 및 투입예산

1) 추진체계

- (거버넌스) 도와 시·군,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 구분과 협력을 통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여
- (중간지원조직)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생태관광 정책의 실행력 강화

[표 4-3] 기능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추진체계

기능	전북자치도	시·군	전북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	마을주민	민간기업
정책, 제도	◎	○	지원		
사업 기획, 시행	○	◎	지원	○	○
사업 평가	◎	○	지원	○	
교육		○	◎		
홍보		○	◎		
브랜드/마케팅			◎	○	○
연구		○	◎		
행사	◎	◎	◎	◎	◎
홈페이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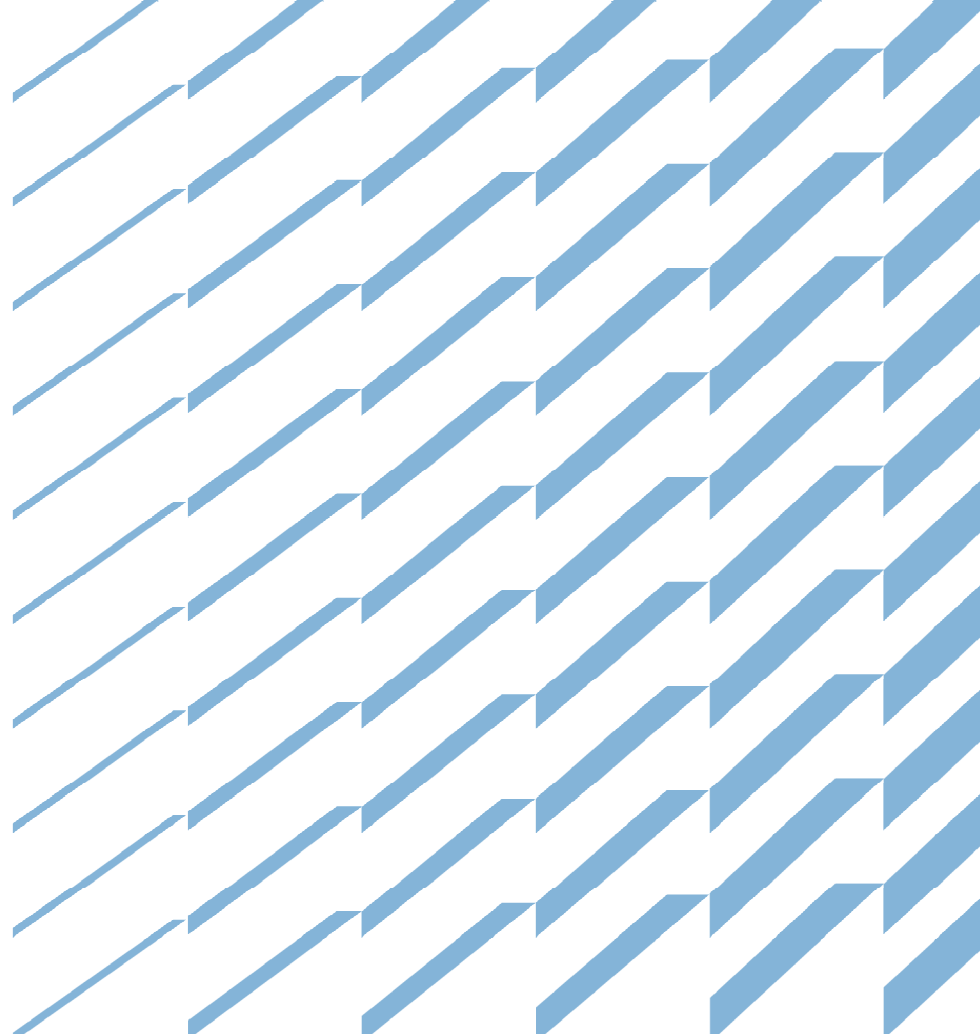
2) 투입예산(안)

- (총 예산) 총 1,501억(국비 331.5, 도비 455, 시군비 667.5) 투입
- (재원조달) 국비: 보전금, 지방소멸기금, 환경부 국비보조금(국가생태관광지 조성, 국가 생태탐방로 구축,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표 4-4]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투입예산

과제명	추진주체	예산 (억 원)	단기 (‘25~’27)	중기 (‘28~’30)	장기 (‘31~’34)
시·군별 생태관광+지역 조성	도, 시·군, 센터	690 (도345, 시군345)			
에코캠핑삼천리길 조성·운영	도, 시·군, 센터	618 (국309, 도21, 시군288)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환경부, 도, 시·군	비예산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군, 센터	14 (도7, 시군7)			
마을 비즈니스 사업 개발	시·군, 센터	민간투자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도, 시·군, 센터	10 (도5, 시군5)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시·군, 센터, 자문단	20 (도20)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시·군, 센터	45 (국22.5, 시군22.5)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도, 센터, 자문단	94 (도47)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전문가자문단 운영	도, 센터, 자문단	10 (도10)			
합계		1,501 (도4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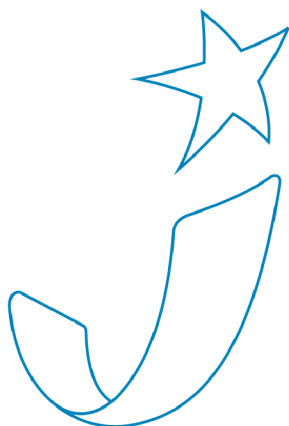
※ 상기 제시된 예산은 미확정이며, 추후 도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향후 10년간 도에서 추진할 생태관광 분야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의 차별화, 글로벌화 등 추진사업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 전북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생태관광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방문자센터, 생태체험관, 탐방로, 주차장, 표지판, 생태교육장 등)가 조성됨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생태관광 에코매니저와 천리길 해설사 양성,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통합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및 가이드북, 팸플렛, 팸투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함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정,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성 등 지역 중심 추진기반 마련,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운영의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갖추
- 국가생태관광지 3곳, 국가지질공원 3곳이 인증되고,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세계관광 기구가 선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관광지’에도 선정되었음
- 그러나 10년간 동일 대상지, 동일 유형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는 부족했으며, 시장·군수 의지와 지역주민 참여도에 따라 시·군간 격차 발생함
- 또한 초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상실한 채 독자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방향성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되고 있고, 생태관광지 사업에 국한된 평가 수행과 평가 결과의 반영이 부족하여 사업의 총괄조정 및 개선효과를 창출하는 데엔 부족함

- 시설 등 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한 반면 인적자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증진에 한계가 발생, 역사문화, 산림, 해양, 농촌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부족함
- 수요 측면에서도 학생과 어린이 및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되어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먹거리나 굿즈 등 수요자가 원하는 민간 비즈니스 사업 창출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이 부족했음

■ 생태관광 여건 변화

- (자연공간, 걷기, 캠핑) 코로나-19 이후 자연공간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치유, 힐링, 체험 중심의 경험을 중시하고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단체관광보다는 개인과 소규모 그룹 중심의 수요, 장거리 걷기, 바이킹, 캠핑 등의 수요가 증가함
- (가족, 외국인, 노약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방문객, 특별히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른 청년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음
- (생물문화다양성 접목) 지역이 가진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서 체험하는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 개념이 접목되어 복합적인 체험을 통해 지역과 마을,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지역회복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 (탄소중립, 지속가능관광, 자연자본공시) 관광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 측면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기여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ESG 기여 측면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을 공시하는 자연자본공시(TNFD)가 도입되고 있음
- (국가예산 변화) 환경부의 생태관광 분야 자체 예산은 적지만 생태복원 등 연관 분야의 예산과 연계해서 활용,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⁴ 비전, 전략, 추진과제

- (개념) 지역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구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

- (핵심키워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의 핵심키워드로 ① 연계와 통합, 권역화, ②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③ 생물문화다양성 증진, ④ 지속가능, 탄소중립 생태관광을 제시함
- (범위 확장) 기존 생태관광은 시·군별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조성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의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은 기존의 기반 조성사업에서 활성화 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비전/목표) ‘자연·문화·지역 플러스, 글로컬 전북 생태관광⁺’를 비전으로 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② 자연, 문화, 지역을 더한 생태관광⁺ 브랜드 구축, ③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제시함
- (추진전략) ① 생태관광 자원을 점→선→면으로 연결·확대, ②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창출, ③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관광 실현, ④ 민·관 협력의 생태관광 거버넌스 체계 구현
- (추진과제)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추진과제 1. 시·군별 생태관광+ 지역 조성
 - 추진과제 2.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운영
 - 추진과제 3.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국내외 인증
 - 추진과제 4. 생물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추진과제 5. 마을비즈니스 사업 개발
 - 추진과제 6.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
 - 추진과제 7. 전북 생태관광 통합해설사 양성
 - 추진과제 8. 생태관광 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추진과제 9.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확대 개편
 - 추진과제 10. 생태관광 전문가지원단 운영

2. 정책 제언

■ 전북자치도 생태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정책 추진 필요

-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출범에 발맞춰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추진한 전북 생태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생태관광의 외연 확대가 필요함
- 시·군에서 조성하는 생태관광지와 주변 자원 및 연계 사업을 묶은 지역화를 통해 연계효과와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며, 인접 시·군 간의 권역화를 통해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을 접목하여 전북자치도 생태해설 프로그램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이고, 고품질 생태해설과 소득 창출, 인력 양성 등 생태관광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개선 필요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생태관광 추진 동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 및 삼천리길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의 추진, 인적자원 개발과 생물문화다양성 기반의 생태해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의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 생태경제 특화구역 등 지원사항을 특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보국, 정명희, 정용훈. (2013). 생태환경자원을 생태관광명소로 개발이 필요.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vol.119.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72>
- 농림축산식품부.(202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농림축산식품부.(2024) 관광농업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농림축산식품부.(2024) 농어촌민박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운영 공동체「관광두레」조성사업 기본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6.6.17.).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 -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두레 조성 현황('23.2현재).
-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생태관광 2단계 사업 추진방향(안). 전북연구원 현안과제 최종보고서.
- 천정윤, 배진아. (2023).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 보호와 규제의 중심에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290.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60>
- 천정윤, 김보국, 장래익, 박서린, 조하진. (202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04>
- 환경부. (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0).
- 환경부(202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환경부. (2023.10.18.).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지정.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부.(2024).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포럼: 1차년도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자료.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https://www.vworld.kr/v4po_main.do
- 두루누리 시스템, www.durunubi.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04e193b5-079f-4fcf-9425-7a63322458e7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214&mn=AR03_05_06_01
 한국생태관광협회, <https://www.ecotourism.or.kr/>
 루리티지, <https://www.ruritage.eu/>
 망통 레몬축제, <https://www.france.fr/ko/event/fete-citron-menton-france>
 예스24, <https://cremaclub.yes24.com/UsedShopHub/Hub/90747399>
 전북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https://m.jb-ecotour.org/page/page6>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www.jbrun.co.kr
 지리학, 환경과학, <http://www.geography.hunter.cuny.edu/resources.html>
 한국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 <http://kdpa.kr/>
 TNOC, <https://www.thenatureofcities.com/>
 UN Tourism, <https://www.unwto.org/>

 내손안의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948>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411/124441701/1>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9094916156>
 여행신문, <https://www.traveltimes.co.kr>
 여행정보 전문
<https://traveldecoration.com/%EC%A0%84%EA%B5%AD-%ED%9C%B4%EA%B2%8C%EC%86%8C-%EB%A7%9B%EC%A7%91-%EC%B6%94%EC%B2%9C-%EC%97%84%EC%84%A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57600030>
<https://www.yna.co.kr/view/GYH20240311000300044>
 우먼타임즈,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9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3%BD%ED%8A%9C%EB%B8%8C
 제주올레, <https://www.jejuolle.org/trail#/>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7564.html>
 한국조경신문, <https://www.latimes.kr>
 헬스경향, <http://www.k-health.com>
 ESG 경제,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1>

SUMMARY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Ecotourism in Jeonbuk State

Joungyoon Chun · Boguk Kim · Jina Bae

1. Jeonbuk State's ecotourism project performance and limitations

■ Performance

- Continuous investments over the past 10 years have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Jeonbuk Ecological Tourist Site (12 locations),” the “Jeonbuk Cheolli Trail (44 routes totaling 405 km),” and related basic infrastructures, such as visitor centers, ecological experience centers, trails, and parking lots.
- Additionally, Jeonbuk developed ecological experience programs, ecotourism activists (eco-managers and trail guides), delivered integrated branding (Green Expedition), and secured promotional tools, including websites, guidebooks, and pamphlets.
- The authorities also established the Jeonbuk State Ecotourism Promotion Support Center, a coordinating organization in charge of ecotourism education, evaluation, promotion, and support, while enacting ordinances to institutionalize ecotourism and forming city/county residential communities.
- Jeonbuk State succeeded in making its presence known as one of the best ecotourism destinations through the designation of three national

ecotourism sites, the certification of three national geoparks, and the naming of one outstanding tourist village in the Gochang Ungok Ramsar Wetland.

■ Limitations

- Performance-related disparitie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were witnessed based on their willingness and suitabil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participation levels of their residents. Furthermore, the 10-year-long cookie-cutter approach across project areas failed to secure competitiveness and differentiation.
- Focusing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t the expense of fostering human resources and developing experience programs limited the region's ability to appeal to diverse types of visitors and thus generate tourism-based revenue.
- The pursuit of standalone ecotourism projects left little room for creating synergistic effects with other sectors involving geoparks and typical tourist attractions.

2. Mid-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ecotourism in Jeonbuk State

■ Vision, goals,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ecotourism+ in Jeonbuk State

- Vision: Glocal Jeonbuk ecotourism+ embracing nature, culture, and regionality
- Goals:
 - (Goal 1) Creating a hub for Jeonbuk eco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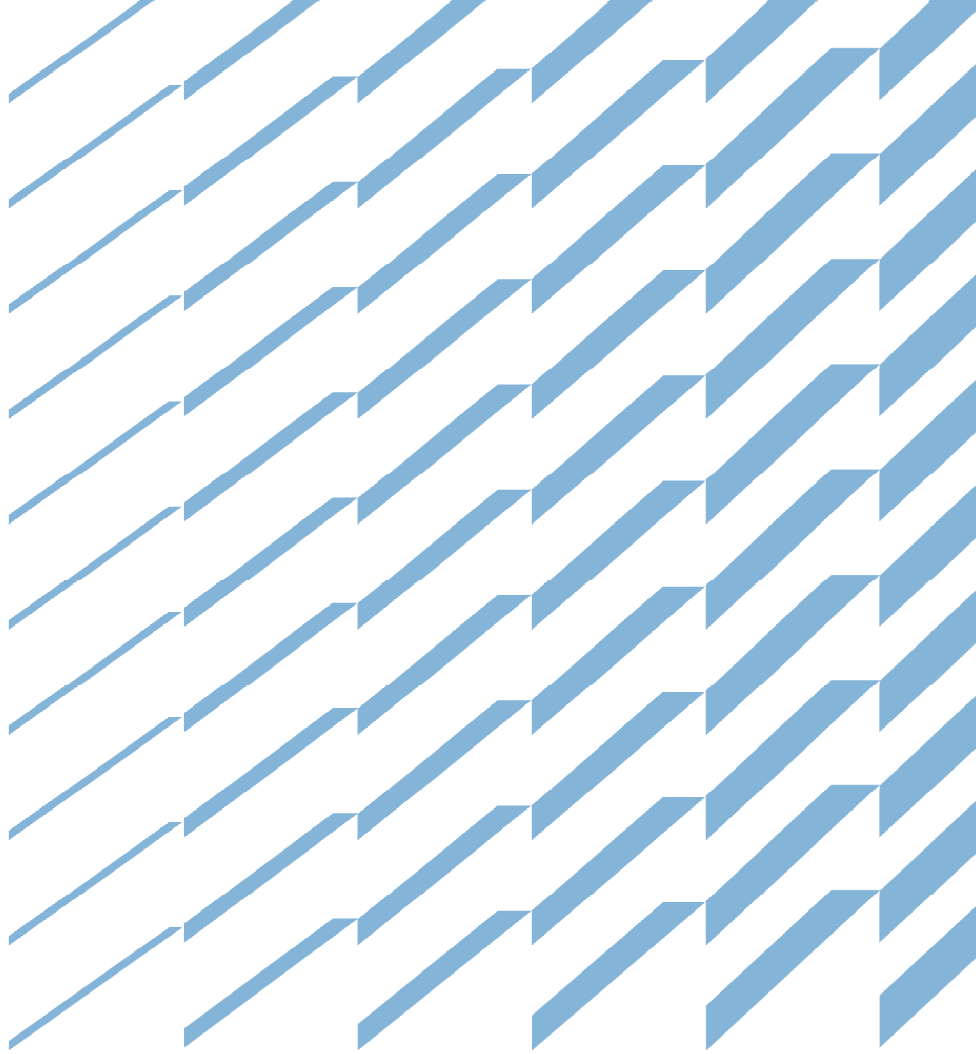
- (Goal 2) Building an ecotourism+ brand showcasing unique nature, culture, and history of region
- (Goal 3) Lay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ecotourism+
- Promotion strategies:
 - (Strategy 1) Connecting and expanding ecotourism resources through the dot→line→plane process (widening)
 - (Strategy 2) Creating new demand for ecotourism by combining natural ecology, history, culture, and tourism (convergence)
 - (Strategy 3) Achieving sustainable ecotourism with the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local participation)
 - (Strategy 4) Embodying an ecotourism governance system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 Policy recommendations

- Jeonbuk State must promote ecotourism+ policies to revitalize its ecological economy.
- Jeonbuk State must improve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nd governance to effectively promote its eco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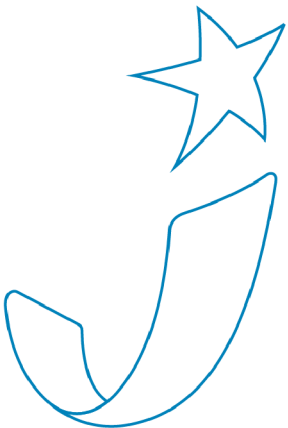
Key Words

Ecotourism, Mid-to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ies, Jeonbuk ecological tourist site, Ecological-environmental assets, Ecosystem service



부록

1.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지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회의록



1.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지

가. 시·군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에서 추진되었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 및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17~)'을 점검하고, 향후 생태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등 전북 지역의 생태관광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문항을 읽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답변과 개인 신상정보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 분석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강신범(280-4534)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280-7188) / 배진아 전문연구원(280-7169)

I

응답자 특성

1. 근무하시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군

국

과

팀

2. 본 부서를 포함, 생태관광(연관 분야 포함)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3. 귀하가 근무하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명칭은 무엇입니까?

1) 생태관광지 명칭:

2) 천리길 명칭: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분야 주요 사업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24)',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17~)'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24 (10년간) / 12개 시·군(전주, 부안 제외) ■ 총사업비 : 1,022억원 (균특 511, 도 255.5, 시군 255.5) ■ 주요내용 : 생태관찰·안내·전시·교육시설, 생태마을 조성 등	〈전북 천리길 - 생태숲 조성〉 ■ 사업기간 : 2019 ~ 2022 (4년간) ■ 총사업비 : 64억원 (균특 32, 시군 32) ■ 주요내용 : 수목 식재(향토·자생수종), 휴게·편의시설, 탐방로 정비 등
---	---

II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4. 귀하가 근무하는 시·군의 현재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정된 생태관광지가 매력적이고 잠재자원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2)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에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높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지 운영 주체로 활동할 주민공동체(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역량이 충분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시군·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지 '예산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평가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하는 현 방식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등급별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3) 12개 생태관광지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 받는 현 방식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4) 대상지 특성,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받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5) 소프트웨어(해설프로그램 등)보다 하드웨어(지원시설 등) 조성 중심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생태관광지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3) 생태해설사(에코메니저) 구성 인원과 개별 역량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지에 대한 탐방객(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밥상 등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III 천리길 조성사업

7. 귀하가 근무하는 시·군의 현재 천리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정된 천리길 노선이 매력적이고 걷기길로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천리길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천리길 조성을 위한 전복자치도의 의지가 높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천리길 운영 주체로 활동할 주민공동체가 많고 역량이 충분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천리길 운영을 위해 전복자치도-시군-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천리길 ‘예산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합리적이고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소프트웨어(해설프로그램 등)보다 하드웨어(지원시설 등) 조성 중심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천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와 사업 반영이 이뤄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시·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걷기길 및 걷기길 연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천리길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천리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3) 천리길 해설사 구성 인원과 개별 역량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천리길에 대한 탐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5) 천리길과 연관된 지역의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Ⅳ 중간지원조직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10. 생태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컨설팅, 모니터링 등이 생태관광지 조성 및 천리길 운영에 도움 이 된다.	⑤	④	③	②	①
2) 센터가 생태관광 및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센터가 주민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적극 개입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센터가 추진·지원하는 생태관광 및 천리길 사업의 마케팅, 홍보의 효과가 크다.	⑤	④	③	②	①
5) 센터가 추진·지원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⑤	④	③	②	①

Ⅴ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11.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생태관광(생태관광지, 천리길, 삼천리길 포함)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기존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는 곳은 고도화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 신규 생태관광지 지정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관광, 산림, 문화 등 생태관광과 연관된 타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소득증진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의 전문성 확립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12. 위에 언급된 사항 외 생태관광 개선을 위한 '자유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에코메니저 및 천리길 해설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생태관광 에코메니저 및 천리길해설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에서 추진되었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 및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17~)’을 점검하고, 향후 생태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등 전북 지역의 생태관광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문항을 읽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답변과 개인 신상정보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 분석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강신범(280-4534)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280-7188) / 배진아 전문연구원(280-7169)

I

응답자 특성

1. 귀하가 현재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 1) 생태관광 에코메니저 | 해당한다 () | 해당하지 않는다 () |
| 2) 천리길 해설사 | 해당한다 () | 해당하지 않는다 () |

2. 현재 활동을 포함, 생태관광(연관 분야 포함)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3. 귀하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재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명칭은 무엇입니까?

- 1) 생태관광지 명칭:
- 2) 천리길 명칭: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분야 주요 사업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24)',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17~)'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24 (10년간) / 12개 시·군(전주, 부안 제외) ■ 총사업비 : 1,022억원 (균특 511, 도 255.5, 시군 255.5) ■ 주요내용 : 생태관찰·안내·전시·교육시설, 생태마을 조성 등	〈전북 천리길 - 생태숲 조성〉 ■ 사업기간 : 2019 ~ 2022 (4년간) ■ 총사업비 : 64억원 (균특 32, 시군 32) ■ 주요내용 : 수목 식재(향토·자생수종), 휴게·편의시설, 탐방로 정비 등
---	---

II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4. 귀하가 근무하는 시·군의 현재 생태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정된 생태관광지가 매력적이고 잠재자원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2)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에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높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지 운영 주체로 활동할 주민공동체(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역량이 충분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시군-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지 '예산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평가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하는 현 방식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등급별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3) 12개 생태관광지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 받는 현 방식이 합리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4) 대상지 특성,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받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5) 소프트웨어(해설프로그램 등)보다 하드웨어(지원시설 등) 조성 중심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생태관광지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3) 생태해설사(에코메니저) 구성 인원과 개별 역량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지에 대한 탐방객(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밥상 등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III 천리길 조성사업

7. 귀하가 근무하는 시·군의 현재 천리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정된 천리길 노선이 매력적이고 걷기길로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천리길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천리길 조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높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천리길 운영 주체로 활동할 주민공동체가 많고 역량이 충분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천리길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시군-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천리길 ‘예산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합리적이고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소프트웨어(해설프로그램 등)보다 하드웨어(지원시설 등) 조성 중심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천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와 사업 반영이 이뤄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시·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걷기길 및 걷기길 연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천리길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천리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3) 천리길 해설사 구성 인원과 개별 역량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천리길에 대한 탐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5) 천리길과 연관된 지역의 소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이 적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Ⅳ

중간지원조직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10. 생태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컨설팅, 모니터링 등이 생태관광지 조성 및 천리길 운영에 도움 이 된다.	⑤	④	③	②	①
2) 센터가 생태관광 및 천리길 해설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센터가 주민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적극 개입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센터가 추진·지원하는 생태관광 및 천리길 사업의 마케팅, 홍보의 효과가 크다.	⑤	④	③	②	①
5) 센터가 추진·지원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⑤	④	③	②	①

V

생태관광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11.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생태관광(생태관광지, 천리길, 삼천리길 포함)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기존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는 곳은 고도화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 신규 생태관광지 지정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관광, 산림, 문화 등 생태관광과 연관된 타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4)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소득증진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5) 생태관광의 전문성 확립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12. 위에 언급된 사항 외 생태관광 개선을 위한 '자유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회의록

가. 1차 전문가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24. 4. 29.(월) 14:00 ~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내외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4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김상욱 교수(원광대/산림생태),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조영호 본부장(남해문화관광재단/걷기길)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연구」과제 개요 설명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15~'23, 1단계) 종합평가 발표

2) 자문의견 및 결과

■ 조영호 남해문화관광재단 본부장

- 중간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함
 - 전문인력은 어느정도 확충되어 있고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가 가 명확해야 함
- 전북자치도의 생태관광의 목표인지 생태관광지에 대한 목표인지 혼란스러움
 -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인 발전 단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단계는 하드웨어 중심, 2단계는 소프트웨어 및 웹개발 중심, 3단계는 시군연계임

- 3단계 시군 연계는 길, 관광객, 인적자원, 모바일을 통해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생태관광지의 리브랜딩이 필요함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필요하며 생태관광의 범위 및 지역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수립되어 '리브랜딩' 되어야 함

■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

○ 전북 생태관광의 정체성 설정과 이를 활용한 브랜딩 작업, 홍보마케팅 방안이 필요함

○ 2024년 이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정책적 방향성과 24년 이후 정책적 지향점 및 방향성은 달라져야 함.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생태관광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생태관광 시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델로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eco(생태) + nomic/economy(경제의) + local(전북특별자치도)의 결합이 필요함

○ 전북 생태관광의 카테고리화가 필요함. 생태관광자원 안에 여러 콘텐츠가 들어 올 수 있음. 위계를 구분하고 상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전북생태자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생태관광 콘텐츠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함

■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 1단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이 고도화 되어야 함

- 1단계 사업대상지의 고도화를 할 것인지 새로운 생태관광지를 조성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또 시군, 기존 사업에 있어 어느 수준으로 고도화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점으로서의 생태관광지, 선으로서의 천리길 및 삼천리길을 포함하여 이들을 네트워크화하는 큰 로드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센터 정비가 시급함. 센터는 생태관광지 전담부서, 삼천리길 전담부서, 총괄 마케팅 그룹으로 나뉘어야 함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전문화가 필요함. 현재 생태관광에 대한 사업을 컨설팅하고 집산화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의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취지 의지와 전문인력이 필요함
- 타 분야 연계가 검토 되어야 함. 농촌분야 등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 환경부 사업으로 풀 수 없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함

■ 허문경 전주대학교 교수

- 전북자치도만의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 생태관광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점한 장점이 있음. 반면 차별화는 부족함. 콘크리트 건조물의 하드웨어가 아닌 나무 등 생태관광의 하드웨어 강점이 부각 되어야 함
- 관광, 산림, 문화, 해양 등 타 분야와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함
 - 농촌다움의 어메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 등 타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 환경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자연환경연수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함
-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육성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 연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관광협의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고도화가 필요함. 센터 인력에 해외여행가이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함. 에코매니저는 서울 50+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초록원정대는 사무장, 에코매니저, 활동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를 끌고 나갈 전략이 필요함

나. 2차 전문가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24. 5. 17.(금) 15:00 ~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관광산업과 민동규 전문위원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2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김상욱 교수(원광대/산림생태),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조영호 본부장(남해문화관광재단/걷기길)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관광분야 발전방향

2) 자문의견 및 결과

■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 전북 전반의 총괄적 생태관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 생태관광을 사업으로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놓고 큰 판을 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태관광지 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2단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삼천리길'을 중심으로 놓을 필요가 있음
 - 기존 관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념적 정의와 함께 어떠한 유형자원 및 잠재자원을 선택하여 액션플랜을 가져갈 것인지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생태관광지 1단계 사업 평가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고도화 및 중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지만 도민의 평가가 빠져있음
 - 평가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예를 들어 '주민공동체 역량이 낮은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 결과가 필요함

■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 본 과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하며 광역이 지역의 모든 생태관광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함
 - 남해는 바다 해안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음
- 재단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남해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바래길 길 조성과 관련하여 길 운영을 고도화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것만 하고 있음. 또 풀 관리 인력만 관리함
- 현 전복 상황을 볼 때 꼭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보다는 마케팅의 리노베이션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 생태국가정원은 다 습지를 가지고 있음. 그 속에서도 각기 특이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또 특정 장소 중심으로 갈 것인지 특정 타겟을 새롭게 삼을 것인지 명확해야 함
- 시설관리, 마케팅 인력의 강조가 필요함
 - 남해는 이벤트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 이벤트를 하면 할수록 관광객과 홍보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임
- 지역관광의 활성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받아 들어야 함. 절대 생태관광 한 분야로는 성공할 수 없음
 - 기존 관광 조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브랜드 등과 접목되어야 함

■ 민동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전문위원

- 주민참여 기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생태관광에 있어 실제 주민들의 참여할 역량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판단되지 않음
-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생태관광 인력은 최소한의 행정 인력을 의미하는 것 같음. 현장에 나가는 인력이 빠져버리면 실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
 - 센터와 관광 다른 기구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센터 기능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음
- 생태관광지는 홍보 개선이 필요함. 랍사르 습지는 선정된 이후 홍보가 부족한 상태로 판단됨. 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체계를 개선해야 함
- 브랜드를 만들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함. 온라인 상의 정보 제공을 넘어 일본어, 외국어 지원이 필요함
-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수요층을 먼저 가지고 와야 함. 온라인 접근이 가장 수월함. 이미 관광쪽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니 접목이 필요함

■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

- 첫 번째 포럼 이후 두 번째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음. 도의 정책적 목표와 같이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이 치우침
- 생태관광에 대한 장기계획을 이야기 할 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했으면 좋겠음
 - 개념정의를 생태환경자산, 환경적 생태적 자산, 보전, 같은 워딩이 반복되고 있음. 전북생태자산에 대한 명확한 풀더화가 필요함
- 현재는 정책과 목표 이에 대한 사업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음.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정리 되어야 함
- 생태관광을 통해 어떻게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생태관광지를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듦

■ 허문경 전주대학교 교수

- 생태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10년 동안 생태관광지 사업을 했는데 정말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판단해야 함
 - 우리가 훌륭한 관광지라고 평가하는 곳이 실제 그러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생태관광지를 개선시키는 단기전략은 일반인이 올 수 있도록 디자인이 우수한 곳을 만드는 것임. 시각적인 흥미요소를 개선해서 새 바람을 불러 넣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두고 핵심적인 콘텐츠를 가꾸는 작업이 필요함
- 최근 지리사 둘레길 수요가 반으로 줄었다는 기사가 남. 이에 따라 마을비즈니스가 더욱 어려워짐.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함

■ 이성석 기후환경정책과 팀장

- 생태관광의 의미는 '관광'에 있음. 생태는 형용사임. 생태적으로 꾸며진, 생태의 개념을 입힌 관광지로 이해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 해택에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듦. 사실 이러한 사항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생태관광을 할 의미가 없을 것
 - 다른 성공 사례를 볼 때 생태관광지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자체는 별로 없음. 부수적인 수입이 더 많을 때 적극성이 생김. 계속해서 이런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해야 함
- 사람들을 모집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생태문명원 취지도 이와 같음. 생태관광은 불편하지 않으면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야 함

다. 3차 전문가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24. 6. 12.(수) 10:00 ~ / 컨퍼런스 홀
- 참 석 자 : 14명
 - 도(행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이성석 팀장, 강신범 주무관
 -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2명)
 - 전문가 : 최영기 교수(전주대/문화관광), 허문경 연구교수(전주대/마을비즈니스),
 - 서면자문 : 조영호 본부장(남해문화관광재단/걷기길), 김상욱 교수(원광대/산림조경)
- 주요내용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추진계획

2) 자문의견 및 결과

■ 허문경 전주대 교수

- 생태관광지에 대한 차별성은 관광지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지역 전체가 생태적인 삶과 가치를 추구해야 의미가 있음
- 전북은 어떤 마을도 다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이 말은 마을별로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음
- 생태관광에서 '생태'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결정이 필요함
 - 지역민의 삶에 있어 생태적 개념이 결합되어야 함. 전남은 유기농 마을을 특화시키고 있는데 100개가 지정될 예정이라 함
 - 기존의 관광지와 차별성을 가지려면 '생태관광 마을'이 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김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듯

○ 수요층 유입의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서비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였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수요자는 에코매니저에 맡기고 있으며 에코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수요층이 가변적인 문제가 있음
- 서비스 적정 관리가 필요함. 모객 모집 방법 활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현장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역량 편차가 해소되도록 해설을 매뉴얼 해야 함

○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가 필요함. 지역에 둠벙, 갯벌, 도시 숲 등 여러 자원이 있으므로 연계 해야 함. 현재 관광지는 너무나 각각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짐

■ 최영기 전주대 교수

- 유기농 농업을 농촌관광과 연결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환경부 사업이 아님. 연계사업으로 변경해야 함
- 현재 모든 사업들이 목표연도가 빠져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음. 보완해야 함
- 전북만이 할 수 있는 보이지 않음. 버튼 업 방식으로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었으면 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국비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 스마트 분석 이후 전략 설정 부분이 미약함. 보완이 필요함. ‘관계인구’ 단어는 생활인구로 바꾸어 가는 추세임
- 기존의 생태관광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보다는 연계사업이 부각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분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모두 제시만 되어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음. ‘생태관광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명경제에 기여한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
- 비전과 전략, 목표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음.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전략 중 하나로 생태관광 ESG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상황을 전부 검토한다고 했을 때 지질의 영역이 빠져있음. 언급이 필요함

- 생태관광의 권역화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시군 내에서의 실링화고 시군 자체를 넘어가는 권역화 임.
- 권역내만 네트워킹 할게 아니라. 무진장. 임순남. 고부정 등의 권역이 네트워킹 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조직 구성 재검토가 필요함. 본부 밑에 팀이 올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 조영호 본부장님

- 생태관광자원 기초 인프라가 튼튼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별 차등 지원 및 경쟁 공모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민관 공동 참여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 지역관광협의회, 생태관광협의회 등과 연계한 협업
- 생태관광 사업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트레킹’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 고려
- 전북 생태관광은 산길, 마을길을 포함해 지역 문화탐방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념 접근
- 트레킹, 산책, 걷기, 등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독일 ‘반데렌(Wandern)개념 도입
- 지역 연계활성화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연계, ‘전북에코카드’ 발행 검토가 필요함
- 전북투어패스에 생태관광을 탑재한 신선한 전북투어패스 발행
- 기존 관광지 + 음식점 + 카페 + 신규 걷기길 또는 마을 거점 마을 포함
- 삼천리길 거점마을 조성시 아웃도어, 캠핑, 기타 부대시설로 동반성장이 마련되어야 함
- 숙박, 카페, 음식점, 식음료, 교통 등 여행 형태별 지출 순으로 참여 및 안내 포함
- 카페는 휴식, 만남, 안내 장소로, 지도 및 지역 안내 등 움직이는 안내소 역할 수행
- 생태관광 통합해설사의 활동 범위 확대 및 역량 강화 확대 필요함. 지역 해설 및 안내

와 함께 걷는 길 관리 임무가 부여되어야 함

- 생태관광 국제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는 작은 페스티벌이 수시로 개최되어야 함
 - 권역별, 지역별, 계절별, 트레킹 작은 축제를 열어 이벤트를 통한 방문객 모객 및 활성화

■ 김상욱 교수님

- 생태관광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생명기반 녹색경제 구현’에 기반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과제이자 내용이라 판단됨
- 2단계 사업의 차별화 및 생태관광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 또는 개념의 도입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 로 비전 등 제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자연관광, 자연기반관광 등 보다 확장된 개념 도입도 검토 필요함
- 생태관광의 목표 중 하나인 주민참여, 주민소득증진과 관련하여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사업의 적극적 연계 필요함
- 기존 시군별 사업 및 사업대상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잠재력을 갖춘 생태관광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삼천리길 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점적인 사업대상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함
- 14개 시군에 배분하는 생태관광지 사업에서 탈피할 필요있음. 기존사업지 및 신규사업지로 사업대상지를 구분함에 있어 1단계 실패한 사업지를 신규사업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기존사업지 시군의 경우 반발 등이 있을 수 있음. 배분이 아닌 공모를 통한 몇 개의 사업지만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성석 팀장님

- 본 과제에 이어 발굴된 과제마다 세부 연구가 필요함
- 해설사, 활동가들의 직접적인 자문도 필요하며 나아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함 지속적인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음

정책연구 2024-08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4년 6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34-0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